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 석사학위논문

아시아 지역주의에 있어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ASEAN+ 3를 중심으로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푸미타라논 찌라타팁

The Role of Korea as a Middle Power in Asian Regionalism: Focusing on ASEAN+3

A thesis presented

By

Jiratatip Phumitharanon

To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in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February 2014

아시아 지역주의에 있어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ASEAN+3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은 기 수

이 논문을 국제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푸미타라논 찌라타팁

푸미타라논 찌라타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위 원 장 _____ 박태균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안덕근 _____ (인)

위 원 _____ 은기수 _____ (인)

The Role of Korea as a Middle Power in Asian Regionalism: Focusing on ASEAN+3

Academic Advisor: Professor Eun, Ki-Soo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February 2014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Jiratatip Phumitharanon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Jiratatip Phumitharanon

February 2014

Chair Park, Tae-Gyun (Seal)

Vice Chair Ahn, Duk-Geun (Seal)

Examiner Eun, Ki-Soo (Seal)

Copyright© 2014 Jiratattip Phumitharanon
All Rights Reserved

국문초록

아시아 지역주의에 있어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ASEAN+3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주의 구축에 있어 추구해야 할 중견국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다. 최근에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중견국”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지만, 여전히 한국이 어떻게 어디에서 중견국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강대국과는 달리,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은 자신의 목표를 단독으로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다자기구를 통해 그들은 국제 관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새로운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호주와 캐나다 등 이전의 성공적인 중견국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 동시에, 독특한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은 그 자신의 상황에 기반하여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위협, 영토 분쟁 등과 같은 한국의 지역 안보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와 기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지역기구를 통해 의제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주의와 지역 연합 구축의 과정을 촉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ASEAN+3는 한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의 기구로 간주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이

ASEAN+3 지역주의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의 중견국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유사입장국가(Like-minded countries)의 탐색, 유사입장국가의 유인 및 결집, 그룹 의제 설정, 지역 갈등 안정화, 지역주의 지속 등이다.

주요어: 중견국 역할, 아시아 지역주의, 지역 안보 문제, 연합 형성, ASEAN+3 지역주의, 유사입장국가

학번: 2011-24216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문헌 검토 4

제 1 절 지역주의 4

제 2 절 ASEAN+ 3(APT) 지역주의 7

1.APT 에 대한 ASEAN 의 관점 9

2.APT 에 대한 중국의 관점 12

3.APT 에 대한 일본의 관점 13

제 3 절 중견국 14

제 4 절 중견국과 지역주의 22

제 5 절 한국의 중견국 역할 24

1.연합형성 27

2.국제기구 안팎의 특수 의제 설정, 적용 및 추진 29

3.지역 갈등 안정 30

제 3 장 방법론 및 연구 범위 34

제 1 절 연구 방법론 34

제 2 절 사례 연구 선택 36

제 4 장 사례 연구 37

제 1 절 호주의 사례 연구 37

1.호주의 중견국 37

2.중견국으로서 케언즈 그룹에서의 호주의 역할과 전략 42

제 2 절 캐나다의 사례 연구 49

1.캐나다의 중견국 49

2.중견국으로서 지뢰 금지 조약에서의 캐나다의 역할과 전략 54

제 5 장 분석: 아시아 지역주의에서 한국의 중견국 역할 58

제 1 절 중견국으로서의 한국 58

1.역량 58

2.외교 60

제 2 절 아시아 지역주의(APT)에 있는 한국이 제도적 중견국 역할을 수행할 이유 63

1.한국의 아시아 지역주의 구축 필요성 63

2.APT 지역주의의 가능성과 중요성 66

3.타국가들 대비 APT 지역주의의 리더가 되기에 적합한 한국 69

제 3 절 APT 지역주의에서 한국이 수행해야 하는 중견국의 역할 76

1.유사입장국가의 탐색 77

2. 유사입장국가의 유인 및 결집 79

3. 그룹 의제 설정 81

4. 지역 갈등 안정화..... 84

5. 지역주의 지속 86

제 6 장 결론.....91

참고문헌..... 93

ABSTRACT..... 108

제 1 장 서론

머리말

오늘날 “중견국”은 국제적 계층 구조에서 국가들을 비교하는 새로운 개념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성취하려는 역할과 전략으로 중견국의 개념을 여긴다. 최근 한국은 자신이 중견국이라 주장하고 중견국 외교를 연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견국 역할을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는 호주,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인 중견국과 함께 한국은 현재 새로운 중견국이 되었다. 지역 내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패권 경쟁은 한국 정치에 우려를 주었으므로 많은 학자들과 논문들은 한국은 브로커 역할을 통해 중견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견국 역할은 지역 내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리더, 브로커, 매니저 등의 중견국 역할은 연합, 다자간 기구 또는 지역기구가 설립되었을 때 효과적이고, 중견국은 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견국의 충분하지 않은 역량 으로 인해, 중견국은 다자간 기구 또는 지역기구를 통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영역으로 이러한 기구를 인식한다. 본 논문은 중견국과 지역주의 간에 관계가 있으며, 중견국은 국제 무대에서 역할을 수행할 지역기구나

포럼이 필요함을 밝힌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견국은 그들의 목표를 위해 지역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교 목적 중 하나가 지역 안보 문제의 해결이고, 또한 한국 경제가 동아시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연합 파트너는 지리적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갈등, 중국의 부상 등 한국의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환경이 있다. 이는 모두 한국으로 하여금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 내에서 연합 파트너를 찾도록 만든다. 즉, 한국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지역 포럼 또는 기구에서 중견국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3(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3; ASEAN+3; APT)를 한국이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으로 제안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국제사회는 동아시아 협력에 중심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rea; FTA)의 증가는 동아시아로 하여금 동아시아 협력을 인식하게 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그로부터 매년 APT 정상회담을 하기 시작했으며 동아시아에서 양국간 또는 다국간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일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2015년 ASEAN은 경제적으로 통합할 계획이 있으며, 이 계획은 ASEAN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CE)라고 부른다.

APT 는 단순한 지역 블록이 아니라,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평화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이며, 지도자로서 중견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무대로 간주될 수 있다. APT 지역주의의 메커니즘은 북한의 위협, 영토 분쟁 등의 한국의 안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APT 지역주의 구축에서 지도자로서 중견국 역할의 수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연구 및 호주, 캐나다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은 APT 지역주의에서 한국이 어떤 중견국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2 장 문헌 검토

제 1 절 지역주의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광범위하게 통합되고 있다. 또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s; GATT) 협상의 여덟 번의 연속적인 라운드 후, 세계 무역 자유화는 더욱 중요해졌으며, 전세계에서 지역 통합의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 무역 통합의 확산 하에서, 점진적인 무역 자유화의 세대는 둘로 분할되었다. 이 두 세대는 첫 번째 파도 또는 구지역주의, 그리고 두 번째 파도 또는 신지역주의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첫 20-30 년 간은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모두 "얕은 통합"으로 특징지어지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구지역주의)(Burfisher et al., 2003). 유럽 공동 시장의 추진력 하에서, 지역주의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었다(De et al., 1993). 그러나 1970 년대에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지원하는 미국 패권으로 인해 지역주의가 중단되었다. 지역주의는 1980 년대 중반에 두 번째 흐름이나 신지역주의로 돌아왔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깊은 통합"이 되었다. 이것은 상품 무역과 표준 국경 보호의 정책을 넘어 서는 의미이다(De et al., 1993). 이스라엘과 캐나다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르며, 미국은 미주를 위한

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EAI)과 함께 전 세계의 절반에 걸친 FTA 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최근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NAFTA)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유럽 통합은 남부와 북부로 확대되었다. 또한, De et al.(1993)는 중미공동시장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CACM),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for South East Asia Nations; ASEAN), 남미 공동 시장(Southern Common Market; MERCOSUR) 등과 같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중동에 지역 무역 통합의 이니셔티브가 있다고 했다.

유현석(2012)은 구지역주의와 신지역주의의 차이점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꼽는다. 첫째, 시기적으로 구지역주의는 냉전 속에서 형성된 반면, 신지역주의는 1989 년 이후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형성되었다. 둘째, 주도권 측면에서 구지역주의는 초강대국이 이끌었던 반면, 신지역주의는 지역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끌어졌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구지역주의는 보호주의를, 신지역주의를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표방한다. 넷째, 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구지역주의는 특정 목적을, 신지역주의는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목적을 띄고 있다. 다섯째, 주요 행동주체 측면에서 구지역주의는 국가가 주요 행동주체였던 반면, 신지역주의는 다양한 비국가적 행위자들, 국가 하위 수준의 행위자들도 행동주체로 활동한다.

지역주의의 정의는 다양하고 많은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Ethier(1998)는 지역주의는 지리적 영역 내에서 특정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집합적인 행동을 형성하는 기관의 구성 및 실행과 결합된 아이덴티티와 목적의 공감에 대한 표현이다. 또한, 지역주의는 인접한 국가들간의 국제 협력이나 협동을 수단으로 긍정적 독립성의 제고 뿐만 아니라 독립성의 존재에 대한 인지이다. 지역주의는 지역 내 국가 간 관계 조정을 동반하는 복잡한 협약, 조화 및 국가 간의 정치경제적 이해의 타협을 의미한다(Yi, 2007).

유현석(2012)에 의하면, “지역주의는 국제관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이 개념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역주의라는 개념을 지역무역블록이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국제정치성이나 인식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학자들은 지역적 정체성이 생겨나고 강해지는 현상으로 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지역주의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Hurrell(1995)이 분류한 지역주의 개념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자고 한다. 첫 번째는 지역 내 사회적 통합의 확대인 지역화(regionalization)이다. 또한, 이는 종종 사회적이고 경제적 상호 작용의 특별한 목표가 없는 과정을 포함한다. 지역화는 집합체, 흐름, 네트워크 또는 모자이크에 관한 개념의 일종이다. 두 번째는 지역적 인식과 정체성(regional awareness and identity)이다. 이것은 공통의 문화,

역사, 종교적 전통 등과 같이 특정 커뮤니티에 속해 공유된 인식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적 국가간의 협력(regional inter-state cooperation)도 개념 중 하나이다. 정부간 협정 및 정권의 협상과 구성은 지역적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공식적인 기관의 설립과 연관될 수 있다. 그러나, 준비와 후속작업을 위한 메커니즘을 동반한 정기적인 모임과 같이 느슨해진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국가가 추진하는 지역적 경제 통합(state-promote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은 지역 협력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지역 통합 하에서,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 등의 상호 교류에 대한 장벽을 낮추거나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다섯번째는 지역의 결합(regional cohesion)이다. 그들은 응집되고 통합된 지역 단위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는 위와 같은 과정의 조합을 말한다.

제 2 절 ASEAN+3 지역주의

1990 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 위기부터, 모든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 정부는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금융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장관 및 정부의 수장급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왔다. 이러한 그룹은 1999 년에 APT 가 되었다. 이것은 APT 의 영향에 대한 모든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관심을 증가시켰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만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기구의 최초 설립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APT 회원국은 공통된 이익과 관심사를 위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서의 동아시아 협력을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경제, 금융, 정치적인 대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APT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을 체결하였다. Chung(2013)에 따르면, APT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협상된 양자간 통화 스왑 협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후, 2000 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의 형태로 동아시아의 금융 통합이 시작되었다.

또한, Stubbs(2002)에 따르면 APT 는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st Asian Economic Caucus; EAEC)의 구체화 및 공식화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정체성에 기반한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1990 년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는 점과 현재 다음의 진화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이제 다음 진화적인 단계에 도달하였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정부 공무원의 정기적인 회의가 공통의 목적과 정체성의 공감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Stubbs, 2002). 그러나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회원국의 협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APT 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APT 에 대한 ASEAN 의 관점

APT 의 지역주의에 대한 각각의 ASEAN 국가는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Hund(2003)은 ASEAN 회원국 정부는 ASEAN 이 세 가지 분열선(동남아시아-동북 아시아의 분열, 동북아 3 국의 분열(한중일), 지역 내 경제적 중심과 주변국의 다양한 분열 등)을 넘나들며 동아시아의 통합적인 대화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지한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ASEAN 은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지 및 시장을 연결하였다. ASEAN 은 APT 를 중국과 일본의 두 축 간의 양극화 및 다각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직면할 기회로 여긴다(Hund, 2003).

Hund 는 동아시아 안보 측면에서 동남아 국가의 정부들이 APT 가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ASEAN 의 관점을 통해, APT 가 이끄는 개발 원조, 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제도화된 협력은 동북아시아 정부 간의 신뢰 구축에 기여하며 뿌리 깊은 문화적, 정치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1 말레이시아

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이후 APT 로 발전한 EAEC 의 형성을 촉진해 왔다(Stubbs, 2002). “동방”정책을 통해, Mahathir 는 EAEC 에 미치는 서양의 영향을 반대하며,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과 NAFTA 과 같은 서양 우위의 경제블록과 균형을 맞추는 통합된 경제블록으로 APT 를 여긴다.

1.2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APT 를 촉진하고 “아시아 국가”만을 회원국으로 환영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ASEAN 과 경제협력강화협정(Closer Economic Relations; CER, 호주-뉴질랜드 간) 간의 자유 무역 지대의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갖는 경제 및 군사적 가치를 인식하는 반면 중국을 동일한 지위로 여기지 않는다(Lim, 2012). 즉, 싱가포르는 지역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환영한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제품과 서비스 공급은 ASEAN 시장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싱가포르의 싱크탱크도 동아시아 무역 자유화가 주는 ASEAN 의 경제적 이익에 의문을 갖는다 (Teo, 2001).

1.3 필리핀

안보 측면에서, 필리핀은 특히 남중국해, 대만 해협, 한반도에 대한 관점에서 ASEAN 지역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1] 의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APT 에 안보 차원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필리핀 전직 대통령 Fidel Ramos 는 APT 가 분명 중국의 패권에 대한 야망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Hund, 2003).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은 지역 국가들 사이의 강한 상호 의존 관계의 결과로

[1] 아세안 지역 포럼에는 호주,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북한, 유럽 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남한,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미국, 베트남 등이 포함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불가피한 필요로 묘사하며, APT 를 통합된 동아시아 공동체로 발전할 포럼으로 여긴다 (Hund, 2003).

1.4 태국

태국의 관점에서 APT 는 동아시아의 안보와 경제 문제를 모두 다루는 포럼이 될 수 있다. 태국은 양자 및 복수국간 경제 및 정치 협력의 망에서 특히 중국 등의 동북아시아를 통합할 수 있는 APT 의 큰 잠재력을 인정한다. 태국의 이웃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일본과 어려운 관계를 가져 왔지만, 태국은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서 소중한 파트너로 간주되었으며, 미국과의 공식 동맹도 지속해왔다. Thaksin Shinawatra 의 집권 기간에, 태국은 중국과 보다 친밀해졌고 APT 를 그들의 동쪽에 위치한 큰 이웃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도구로 보았다. 2006 년에 Shinawatra 는 중국이 태국의 친척과 같다고 했으며, 중국은 태국의 큰 시장이고 중국과의 증가된 교역량으로 인해 중국의 성장은 태국을 위한 기회가 됨을 인식한다. 따라서, Thaksin 은 안보 이슈보다는 APT 경제 협력 기회에 주로 관심을 보이며, 태국은 정치 및 안보 대화에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1.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와 APT 의 테두리 안에서 ASEAN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의 협력 증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정치적 상호 의존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APT 를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정치 측면에서, APT 는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적인 박애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협력도 안보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

ASEAN 국가들 사이에는 APT 에 관한 몇 가지 다른 관점이 있지만, 그들은 APT 가 동아시아의 경제 의존도 증가와 정치 및 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응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APT 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로 묘사된다.

2. APT 에 대한 중국의 관점

2000 년에 국무 총리 Zhu 는 APT 의 메커니즘이 지역 협력의 주요 채널이 될 수 있고 이 메커니즘은 점진적으로 지역의 금융, 무역, 투자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APT 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실현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Thayer, 2000).

APT 구성원 간의 경제적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 특히 동북아 국가들 간의 강화된 정치와 안보 관계는 APT 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APT 의 맥락에서 동북아시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세 국가 간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 한국과 매년 3 국 정상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Hund, 2003). Hund 는 안보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ASEAN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과 동남아비핵지대조약(Southeast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 treaty; SEANWFZ) 가입에 동의했다고 한다. 중국은 APT 포럼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관계된 일부 ASEAN 국가들과 논의할 수 있다. APT 를 통해, 중국은 압력없이 수행할 수 있는 포럼의 맥락에서 정치 및 안보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은 분명하다.

3. APT 에 대한 일본의 관점

일본은 생산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안정의 확보를 원하지만, 일본은 APT 가 지역 경제 블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경제 문제를 넘어, 일본은 APT 가 동북아시아 국가 사이의 정치와 안보 대화에 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및 정치적 협력의 이유로 인해, 일본은 APT 국가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의 일본 외교 정책에 따르면, 북한의 6 자 회담과 마찬가지로, APT 는 일본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또 다른 지역 포럼이다(Chung, 2011). 그러나 일본의 관점에서, 중국은 APT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의 영향과 균형을 맞추고자 다른 국가들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축 참여를 참여를 지원하려 한다. 예를 들어, 2001 년에 일본의 Koizumi 총리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확대된 동아시아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일본은 APT 가 일본의 경제 및 정치적 이해 관계 모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만, APT 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이니셔티브로 여기지는 않는다. APT 를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와 일본의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APT 가 중국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 따라서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을 찾고 있다.

제 3 절 중견국

냉전 이후 중견국의 역할은 급속하게 발전했다. 영국 경제학자 Barbara Ward 는 "현대 세계에서 국가 통치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직면하고 재정의하는 정부의 수가 얼마 없다. 강대국은 너무 크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불편하고, 그들 자신의 책임에 묶여 있다. 대다수의 신흥국은 너무 가난하며 불안정하다. 따라서 영향력의 크기에서 볼 때,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중견국이다"라고 주장하였다(Wood, 1987, 재인용). 이러한 발표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중견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국제 협력을 위하고 세계 정치에서 상위 중견국의 지위를 위한 중견국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최선의 방법을 찾게 하였다.

국제제도에서 중견국의 활동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적 전례는 문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견국에 대한 관심 자체가 거의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중견국의 전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캐나다를 선제적인 중견국으로 여기는 연구가 많이 있으며, 캐나다는 스스로를 중견국으로 여기고, 중견국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과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설립 계획 단계에서, 캐나다와 다른 국가들은 세력과 책임이 함께한다는 점과 세력과 힘은 중견국의 이익과 잠재적 기여를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을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중견국이 비상임 이사국의 특별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받길 원했다고 Andrew Gelber 는 주장하였다(Chapnick, 1999, 재인용).

1947년에 캐나다의 고위 외교관인 Robert Riddell은 중견국을 "규모, 물적 자원,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 그들의 영향력과 안정성이 강대국에 가까운 수준인 국가들"로 묘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캐나다는 증가하는 인구, 높은 생산성, 세계 상위의 국제 무역으로 인해 그들 자신을 중견국으로 여겼다. 또한, 캐나다의 외부무는 현대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외교관중 하나로 여겨졌다(Soward,1963).

중견국의 정의를 내리거나 중견국의 지표를 찾고자 하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 중견국을 규정하는 정확한 수단이 없지만, Riddell이 언급한 바와 같이 중견국은 본디 세계 무대에서 그들의 자원,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에 의해 고려되고 있다. Middle Power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A Preliminary Assessment of Potential에서 Wood(1987)는

중견국의 잠재적 기여에 관한 예비조사를 추진하였다. Wood는 1979년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 순위에서 6위부터 36위 사이(400-4,000억 달러)에 드는 국가들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중견국은 그들의 이익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제 협력 활동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Wood(1987)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중견국 구성원의 자금 조달 비율을 살펴봤는데 중견국의 그룹은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그 이전 기관의 총 누적 영수증의 총 50%이상을 기여하였다.

최근에 미국 정치학자 Neack(1992)는 널리 쓰이는 다섯 가지 국가 속성 요소(인당 GNP, 인당 군사비, 인구, 영아 사망률, 성인 식자율)를 기반으로 클러스터 분석의 통계 기술을 통해 중견국을 확인하고자 했다.

Cheeppensook(2008)는 중견국의 역할이 냉전 때와 달리 발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견국은 최근 개념과 정체성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인구, 무기, 자원처럼 객관적 특성들이 아니다. 중견국들 사이에 공유하는 정체성은 인권, 인간 안보, 환경, 정치 과정에서 시민 사회의 인식과 같은 인간 중심의 사고들이다.[2] 따라서, 충분히 강력한 정치-경제적 역량을 가지며, 세계 정치와 국제기구에서 적극적 행동주체가 되는 것 이외에, 중견국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고 시민

[2] Cheeppensook, Kasira. (2008). The European Union as a middle power and its role in world politics.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ces.in.th/PDF/chiangmai_pub_kasira.pdf

사회와 비정부 기구들에게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강대국보다 힘이 약한 국가는 다자간협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강대국은 그들 자신의 수단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체제와 작은 유럽 국가들(대부분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중견국에 속함)에 관하여, Peter Katzensteien은 다자간 활동의 일관된 패턴과 그 밑에 깔린 강력한 이유를 제안하였다(Wood, 1987, 재인용). 마찬가지로, Cooper et al.(1993)는 중견국은 국제 문제에 다자간 해결책을 추구하고, 국제 분쟁의 타협적인 위치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외교를 이끄는 "좋은 세계 시민"의 개념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중견국은 강대국보다 국제적인 수준의 정치경제적 이슈보다는 국내와 지역의 정치경제적 이슈에 집중적으로 매여있는 경향이 있다. 강대국은 세계적인 이익과 확장을 갖는 경향이 있는 반면, 많은 중견국은 그들의 지역 무대에서 벌어지는 주요 국외 문제, 책임, 기회를 찾는다. 그들의 지역 내에서 주로 집착하는 것 중 하나는 연합하거나 적대적인 가까운 강대국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놓여있다. 나아가,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그룹의 40%는 그들의 주요 수출국을 지역 수준에서 찾는다(Wood, 1987).

그러나, "중견국의 위상은 날마다 얻어져야 한다. 그것은 국가의 자원으로부터 전적으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Hayes(1993)는 주장한다. 또한, Cooper et al.(1993)는 지리적 위치, 지구물리학적 위치와 인구 크기 등의 물리적 특성과 군사력의 규모,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크기, 또는 외교 정책의 규범적 내용 등의 역량으로 중견국의 위상을 정의하는 것을 피한다. 대신, 그들은 중견국의 위상이 중견국의 외교와 그들의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식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avenhill, 1998). 결과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중견국을 이해하고 중견국의 효과적인 역할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능적 원리와 행동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견국의 특징, 역할, 행동과 외교에 관한 다수의 개념이 있다.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견국 역할을 연합 형성, 행동주체 간의 좋은 관계 형성, 지도자로 자리매김,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좋은 국제 회원국이 되는 것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강대국에 비해 중견국은 경제 및 정치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합형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중견국은 소국가 및 중견국과 동맹을 맺고 다른 행동주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 협력의 공식적인 형태로, 국제기구 또는 기관은 중견국이 주류에 도전하거나 국제 무대에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견국 영향력의 근원이다. Evans와 Grant에 따르면, “중견국은 대부분의 환경에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지만, 그들은 유사입장국가들의 관점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중견국은 문제 및 포럼에 따라 작은 국가들, 다른 중견국들, 또는 강대국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것이다(Ravenhill, 1998). Evans(2011)는 연합 이니셔티브 및 지역적 포럼이 중견국으로 하여금 잠재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진정한 기회라고 주장한다(Evans, 2011). Tiberghien(2013)은 중견국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관 디자인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Cooper et al.(1993)의 접근에서의 중견국의 행동 특징 중 하나는 다자주의에 대한 선호이다. 마찬가지로, 중견국은 다른 국가와 연합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Chapnick, 2000). Kim(2013)은 공통의 이해, 이익, 규범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국가 및 비국가 행동주체를 모으는 중견국의 역할을 "의장"이라고 부른다(Yul, 2013). 또한, Holbraad(1971)의 접근을 통해, 중견국은 부국과 빈국 사이의 연결고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EU와 달리 여전히 다자간인 안보 구조 및 통합된 시장의 형성이 미진한 동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 미국-중국 영향 경쟁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Lee, 2012). 따라서, 연합형성은 중견국의 매우 중요한 역할과 의지를 추구하는 진정한 기회로 여겨진다.

둘째, 중견국은 평화로운 환경이 중견국으로 하여금 큰 영향력을 갖도록 기여함을 인식한다. 따라서 중견국은 특히 강대국 등 행동주체 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시도한다. 강대국 사이의 긴장 상태 하에서 강대국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중견국과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강대국이

충돌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중견국은 더욱 효과적인 외교적 역할을 발견할 것이다(Kim, 2013). 그 결과로, 중견국은 국제 관계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Holbraad(1971)에 따르면, 중견국은 두 대립국 사이의 중재자이다. 또한, Wood(1988)는 중견국을 충돌 안정 장치라 설명하고, Cox(1989)는 국제 안정에 대한 헌신을 중견국의 특징 중 하나로 간주한다. 게다가, Henrikson은 중견국은 회유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Chapnick, 2000, 재인용). 이런 점에서, 중견국은 다른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사이의 전환, 변환, 번역의 등을 제공하는 단순한 연결고리 이상의 브로커이다. 브로커는 통합적인 가격 협상을 촉진하고 참여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를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슈의 틀을 만들기 위한 협상 스킬을 갖는 기업가를 의미하기도 한다(Ravenhill, 1998). 따라서, 중견국은 국가들 간의 좋은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아야 하며, 지역 갈등에 대한 협상과 해결을 할 수 있는 숙련된 브로커가 되기 위해 준비되야 한다.

셋째, 중견국은 다자간 또는 지역적 기구의 리더로 볼 수 있다. 리더는 강대국이 될 필요가 없지만, 새로운 의제를 선도하고 변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중견국이 새로운 의제를 시작하고 기구를 적극적으로 이끌 융통성을 보다 많이 갖는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을 영향력의 근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Wood(1988)는 특정 이슈 분야에서의 리더십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기능적 리더십”을

중견국의 특징으로 여긴다. 따라서, 기능적 리더십은 특정 이슈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중견국은 지역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많은 경우에, 문제에 적용되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정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난관 속에서 해결책을 발견하고 이끄는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이 부족한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은 종종 신속하고 사려깊은 외교 자세와 함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다(Evans, 2011). 그 결과로, 중견국은 새로운 의제를 시작하고 의제를 리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Ravenhill(1998)은 중견국 외교의 본질은 지적 리더십의 제공이라고 한다. 지적 지도자는 기관적 가격협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형성하는 지적 자산이나 사고의 재생산 체계를 조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리더십 역량은 중견국의 관료적 역량에 기반한다. 따라서, 중견국은 특히 새로운 의제나 틈새 외교, 그리고 지역기구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중견국은 창의성과 외무부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창의력과 외무부의 역량은 적극적인 국제 협력에서의 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넷째, 중견국은 주로 추진하고 집중하고자 하는 영역을 찾아야 한다. Evans(2011)에 따르면 중견국은 이슈를 따라가기에 충분한 물리적 역량이 있어야 한다. 역량은 외교 포스트의 충분히 넓은 네트워크와 선택적인 “틈새 외교”를 포함한다. 또한, 이슈를 따라가는 역량은 에너지와 체력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Ravenhill(1998)은 초강대국의 경우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둘 수

있는 반면, 중견국은 자원이 제한적이고 동시에 대외 정책 의제의 여러 분야에 걸쳐 자신의 높은 수준의 기술을 적용할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에 목적과 집중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중견국은 잘 할 수 있는 특정 분야를 찾고, 문제 또는 의제의 목표를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중견국은 모범적인 국제 회원국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모범 국제 회원의 타이틀은 중견국의 신뢰성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중견국의 외교 연습을 유지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Cooper(Cooper et al, 1993)는 중견국은 그들의 "좋은 세계 시민"의 개념을 그들의 외교 지침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Holbraad(1971)는 중견국은 문화적으로 다른 국가들 간의 국제적 이해를 촉진한다고 서술한다. 따라서, 중견국은 국제 문제, 특히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 및 국제적 규범의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4 절 중견국과 지역주의

Henrikson(1997)은 논쟁자 간 합의의 "구매"를 기대할 만큼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중견국은 국제기구에서 회원국이 되고, 참여하고 이끌어 감으로써 그들의 역할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역사적 연속성, 제도적

구조 및 중재자의 작업에 필요한 법적/도덕적 권위가 있으므로, 중견국 중재자는 국제기구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Lee(2012)는 국제 체제의 변화와 보다 복잡해진 국제 문제로 인해, 기관 또는 연합의 임시 형태를 통한 다자간 관리는 국제 문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그 결과로, 중견국 운영을 위한 국제적인 대화의 장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효과적인 중견국의 관리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견국은 다양한 구성원과 신뢰성을 추구하고 현존하는 국제 규범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다국가간 상호작용을 옹호한다.

따라서 중견국과 국제 협력의 관계는 분명히 상부상조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상부상조의 관계에서 중견국은 국제 기관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의 이니셔티브와 정권은 중견국에 의해 지원을 받으며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지역적 측면에서의 국제 협력 및 국제 기관에 특별히 초점을 둔다. 중견국과 지역주의의 상호 관계를 가정할 수 있지만, 일찍이 호주의 전 총리 Kevin Rudd는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적 협력에서의 중견국 중요한 역할에 대해 분명히 말하였다. Rudd는 아시아-태평양과 UN에서의 파트너십 강화을 통해 “창조적 중견국의 외교”를 향한 자신의 의지를 설명하였다(Reed, 2008, 재인용).

또한, 중견국은 강대국보다 국제적인 수준의 정치경제적 이슈보다는 국내와 지역의 정치경제적 이슈에 집중적으로 매여있는 경향이 있다고

Wood(1987)는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견국의 이니셔티브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연관된 다양한 종류의 결정들을 구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Holbraad(1984)는 이원적 시스템과 다각적 시스템 모두(국제 시스템의 세 가지 중 두 가지)에서 중견국은 지역적 이익과 자기 자신(국내)의 관심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Keohane(1969)는 중견국이 동맹 및 지역기구를 통해 역할을 수행한다면 국제 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상승 시기에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위상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지역 기관 등에서의 중견국 역할 수행을 통해 특정 분야에 집중하며, 그 기구의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제 5 절 한국의 중견국 역할

한국이 중견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다수의 기존 연구가 있다. Lee(2012)는 네트워크 권력이 21 세기 신중견국의 새로운 원천이라고 한다. 자원과 네트워크 없는 중견국 행동주의는 외교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결과를 갖기 보다는 열망으로만 남을 것이다. 또한, 제한적인 국제 네트워크는 중견국이 중재자, 브로커 및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위치적인 접근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행동주체의 위치는 행동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촉진한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에서의 행동주체의 위치는 그 행동주체의 역량이나 역할로 연결된다. 이 논문은 특정한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여전히 연결되지 않은 행동주체 사이의 연결을 형성하는 특정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브로커의 역할에 주목한다. Stacie E Goddard 는 브로커의 힘은 국가의 특성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위치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네트워크의 힘"은 "자원의 힘"과 다르다(Kim, 2013). 따라서 네트워크 권력은 효과적인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이자 중견국의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Choi(2009)는 한국으로 하여금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한국 경제는 지역적 의존도가 높다. 둘째,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6 자 회담에 실패하였다. 셋째, 중국과 일본의 위협이 있다.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며, 일본은 한국과의 역사적 문제와 영토 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한국과 일본이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넷째, 양자관계(중국, 일본, 북한 각각과의 관계)는 제한된 협상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해결책만을 제공한다. 다섯째, 한미 동맹은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관점에서 경제적 문제와 안보 문제를 지역 협력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안보적으로, 기관적 규범 하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 북한에 대항해 힘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영토 분쟁은 양자협력이 아니라 지역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나아가, 외교 정책도 정치적 인기와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매력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지역공동체를 이끌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다. 첫째, 미국은 다국간주의보다 일방주의를 선택하였다. 둘째, 북한은 국가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셋째, 중국은 주권에 민감하다. 넷째, 일본은 중국과 한국 등 지역 내 주요 세력에게 주도적인 역할으로 환영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은 심화된 지역주의에 관심이 없거나, 경쟁 관계 때문에 협력을 잘하지 못한다.

한국은 안보적 목적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타협을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적극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상당한 열의를 보여왔다. 따라서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 중강 행동주의로 나타나는 한국의 지역 전략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야만 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패권국을 적으로 만든다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형성은 중견국 리더십 성공의 열쇠이다. 그리고 지역 내 차상위 권력자는 지역에서 강대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역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그렇다면, 지역기구는 한국에게 중국과 일본을 결속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관점에서 ASEAN 은 잠재적 연합국이다(Choi, 2009). 지역주의 과정에서 한국이 수행해야 하는 중견국 역할은 몇 가지가 있다.

1. 연합형성

중견국은 규범 조성 및 기관 구축을 통해 지역을 이끌어야 한다. 현실적인 연합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 연합 구축을 목표로 하는 다수의 부분적인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hoi(2009)는 한국의 연합 파트너는 지리적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APT 의 출범 이후 ASEAN 은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연합 파트너의 상위 목록에 있다고 서술한다. ASEAN 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통합이 오랫동안 지체된 것이다. ASEAN 은 내부 통합을 기피하며, 오히려 외부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 한국에서 경제적 원조와 무역상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 ASEAN 은 한국이 중국, 일본과 겨루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ASEAN 에 반하는 영향력을 증진하는 것보다 ASEAN 의 마음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동아시와의 배타적인 관계 형성을 피하고, 동아시아 정상 회의(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의 회원 확장에 열려 있어야 한다.

“Roles of Middle Power in East Asia; A Korean Perspective”에서 Kim(2013)은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외교 역할을 논하기 위해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였다. 주요 행동주체 사이에서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스템에서의 구조적 위치의 관점에서 중견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통해, Kim(2013)은 구조적 틈새나 사회적 자본을 식별하면서 한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적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의 위치를 상황과 연결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달리 말하면, 한국은 힘의 원천의 분포, 따르는 국가들의 니즈와 수요, 시간적 긴급성, 정보의 흐름,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맥락지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브로커의 역할을 인식하는 한국은 네트워크 파트너 간의 비대칭 게임의 관리에 익숙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중견국 브로커 역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며, 유사입장국가를 가능한 한 많이 유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대국에 의해 설계된 플랫폼 위에서 적절한 역할로 자리잡은 한국은 작은 국가와 중견국의 지지 속에서 네트워크 구조를 보완하고 나아가 혁신해야 한다.

중견국의 브로커 역할의 상당 부분은 다른 국가들보다 많은 행동주체를 모으는 역할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유사입장그룹을 유인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행동주체들을 오랜 시간 동안 지원자로 유인해야 하며, 이전의 관계를 해체한 후에 자체적으로 주위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역 및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국은 모든 이웃 국가와의 협력적 동맹을 통해 집단 권력의 행사를 추구한다. 그러나, 한국은 유사한

안보적 문제를 공유하는 다른 중소국가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유사입장그룹을 모은 후, Kim(2013)은 결국 중견국이 Michel Callon 이 번역(Translation)이라 칭하는 과정에서 성공하고 구축한 플랫폼으로 다른 행동주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대표의 권한을 갖기 위해, 중견국은 "프로그래밍 외교"가 필요하다. 중견국은 국제 규범을 포괄하고 국제 규범에 근접한 외교 전략으로 다른 국가를 유인할 수 있다. 중견국이 집합적인 외교을 추진하고 전세계의 지원을 모으면, 규범 외교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중견국은 강대국이 간과하는 틈새를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더불어, 중견국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혼합해야 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관심사를 결합하며 이를 훌륭하게 하고 있다.

2. 국제기구 안팎의 특수 의제 설정, 적용 및 추진

Rudd 는 최초로 지역적 거버넌스(관리)에서 중견국의 역할을 제기하였다. 특히, 2008 년 말에, Rudd 는 (한국을 포함한) Group of 20(G20)의 중견국은 글로벌 금융 안정, 기후 변화, 핵 확산과 개발, 그리고 지역적 경제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Lin, 2011).

Lee(2012)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안보 문제와 국내의 반대로 인해 해외에 파병하거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한국은 평화유지를 위한 해외 파병보다 인간 안보 의제의 촉진과 제도적 장치 설정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국제 사회에 공을 돌리는 방법으로 다른 국가의 경제적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은 2009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 원조 위원회 가입,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확대, 국가의 개발 경험 공유, 2011 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및 기존 원조 효과성 의제에 개발 의제를 삽입하여 서양 원조국과 개발 도상국을 연결하는 등 개발 원조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시도해왔다.

3. 지역 갈등 안정 (중국-일본, 중국-미국, 미국 동맹)

지역의 평화는 특히 지역주의에서 중견국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APT 지역주의를 개선하려는 시도들은 APT 의 효과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간의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Choi(2009)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을 길들이기 위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결속하기 위한 규범과 규칙을 강화하는 기구적 락인(lock-in)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ASEAN 의 장애물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결속을 피하는 것, 비민주적인 정치 구조,

효과적인 실행의 부족, 발전 수준의 현저한 차이 등이다. 한국은 지역을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기구를 만들고,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한국은 인권, 환경,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보편적 가치를 이 지역을 위해 중요한 다국간의 규범으로 채택해야 한다.

APT 의 지역기구 개선 외에,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주요 지역 행동주체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Kim(2013)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한국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서술한다. 한국은 각 국가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영토분쟁의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Lee(2012)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외교적 노력은 중국과 일본의 경쟁에서 한국의 중견국의식(middlepowermanship)을 상징하는 서울에 3 국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핵심적 장으로 한-중-일 삼각 지대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에, 한국은 북한의 위협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안보 지원에 의존하는 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유사한 안보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다른 중견국과의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제한된 상태로 머무른다면, 한국의 성공적인 중견국 외교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미국 주도의 봉쇄에 참여하거나 중국 중심의 지역적 질서에 동의하기보다 지역 내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최대 공통분모를 위해 동맹 및 중견국 외교를 관리하며, 복잡한 외교에 대한 새로운 중견국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Lee, 2012).

Choi(2009)에 따르면, 미국과의 협력은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Lee(2012)는 한국이 미국-중국 간의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일부 지역적 안보 이슈(대만 문제와 중국 남부 해상 분쟁 등)와는 거리를 두면서, 글로벌 이슈에 관한 미국의 지원에 기반한 중견국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지역기구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지역 이니셔티브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미국의 일방주의와 중국의 부상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은 다음에 서술된 한국의 리더십의 경지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오랜시간동안 미국의 믿음직한 동맹국이 되며 적극적인 지역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첫째, 한국은 자기 자신을 미국의 신실한 파트너로 재건해야 한다. 한국은 반미주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뒷받침을 한다면 중강 행동주의의 성공 가능성이 커짐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미국과 한국은 6 자 회담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와 상세 설계에 관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셋째, 중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의 안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제 3 장 방법론 및 연구범위

본 연구는 “한국이 아시아의 지역주의에서 수행해야 하는 중견국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관련된 이론, 기존 연구, 뉴스 등의 보조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견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연구를 선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한국의 상황과 특징을 고려하여 한국이 아시아 지역주의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견국 역할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동아시아는 최근에 흥미로운 지역이 되었으며 세계 체제를 변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지역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제1절 연구 방법론

본 논문은 기존 이론, 기존 연구, 관련된 사례 연구를 활용하는 정성적인 연구이다. 모든 자료는 한국의 현대 상황과 역량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분석되었다.

기존 중견국 이론을 통한 분석은 한국이 중견국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 체제에서 중견국의 이상적인 역할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주의 이론은 세계에서 현대 지역주의(신지역주의)의 개념을 제공하며, 지역주의

과정과 원리를 보여준다. 이것은 APT 지역주의와 그 안에서의 중견국 역할을 정의함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는 한국이 수행해야 하는 중견국 역할을 제안하며, 특히 지역주의에서 현실적이고 가능한 중견국 역할을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한국의 특징과 한계를 지적한다.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연구는 현실적으로 중견국 역할을 묘사하고, 중견국 외교의 성공적인 경험을 설명한다. 그들이 자신의 외교 전략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중견국 외교를 달성하고, 국제 관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역할과 방법은 다른 중견국이 할 중견국 역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사례 연구는 중견국 역할의 구현에서 각 국가의 특징을 지적한다. 선행 중견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명백하게 중견국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호주와 캐나다의 중견국 역할을 한국의 상황에 알맞게 취사선택하여 적용한다.

자료 분석 후, 연구는 한국을 동아시아에 위치한 중견국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적인 특징, 상황, 그리고 한계에 관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 후,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특징, 상황, 한계의 프레임 안에서 APT 지역주의에서 한국의 중견국 역할을 제안한다.

제2절 사례 연구 선택

본 논문에서 호주와 캐나다가 국제적으로 이견이 없는 중견국이기 때문에 두 국가의 사례 연구가 선택되었으며, 그들은 분명히 케언즈 그룹과 지뢰 금지 조약의 사례에서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여 성공하였다. 두 국가는 역량에 바탕을 두는 중견국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적극적인 외교와 외교 정책은 자체 중견국의 입장을 스스로 표현한다. 따라서, 중견국을 성공으로 이끄는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특히 정치적 특성 등의 자신의 특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캐나다와 호주 모두 정치와 경제는 대영 제국에 의해 지배되는 영국연방이며, 그에 의해 경제 개발과 민주주의의 수준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조적으로, 한국은 영국연방 국가가 아니며, 남북한 분단이라는는 특징과 영토 분쟁 상황은 호주, 캐나다와는 다르다. 그러나, 한국은 호주, 캐나다와 공통점도 갖고 있다. 특히 경제 및 국제 관계의 측면에서의 공통점은 한국의 중견국 역할 수행의 상황에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연구를 적용하기에 충분하다.

제 4 장 사례 연구

제 1 절 호주의 사례 연구

1. 호주의 중견국

1940 년대 중후반 캐나다 외에 호주가 UN에서 특별한 중견국 지위를 추구했을 때부터 중견국 및 middlepowermanship의 개념은 널리 적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에 호주와 캐나다는 모두 중견국의 권력과 다른 목소리에 무게를 두고 또한 다른 세력들, 특히 미국의 세력을 희석할 국제 기구 구조를 구축하는 일에 강력하고 눈에 띄게 집중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를 구축하고, GATT 등의 제도를 강제하고, 콜롬보 계획 등 남반구의 주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일들은 호주를 중견국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케언즈 그룹(Cairns Group),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RtoP(Friends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핵 군비 축소에 관한 크로스 지역 그룹(Cross Regional Group on Nuclear Disarmament) 등의 많은 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적극성을 띄면서, 호주는 전세계에서 중견국으로 간주되었다.

호주가 다시 중견국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기인 Kevin Rudd의

재임 기간에, 정부는 “빌딩 블록”과 관계된 1997년 8월의 외교 정책 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호주는 UN 시스템과 같은 다자간 기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감을 가져야 한다. 국제기구는 자신의 회원국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 UN 시스템의 범위가 그 역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역량을 겸비한 열망에 필적하는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7)

호주의 중견국 특징 및 역할은 다섯 가지가 있다.

1) 호주의 강력한 외부무

Ravenhill(1998)은 1987년에 호주의 분석 역량과 복잡한 세계적 경제에서의 국가 경제적 목표를 추구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호주는 외부무와 무역부를 통합하였다고 서술한다. 외부무와 무역부의 통합은 호주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외교 관료제를 재형성하였다. 또한, Gareth Evans(외무부 장관)의 힘있는 관리 하에서 정부는 캄보디아, 남극, 핵 실험 금지, APEC, 화학 무기 금지 등과 관련된 다수의 이니셔티브를 내놓았다. Ravenhill(1998)은 각 외무 장관은 외교

정책에서 특히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ALP) 집권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2) 지역적 갈등에 초점을 두고 해결

호주는 캄보디아 충돌, 남극 대륙 대회(Antarctica Convention), APEC, 남태평양 비핵지대의 추진, 북한 핵의 위협, 태평양 제도 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등의 지역 갈등에 초점을 둔다. 또한, 동아시아의 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형성 노력과 관련된 호주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Ravenhill, 1998). 게다가, 호주의 고위 정치인은 최근에 확대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의 형태와 같은 경제 구조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등 아시아-태평양 및 동아시아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총리 겸 외무 장관인 Rudd는 지역 및 글로벌 관심사를 가진 중견국으로 호주를 설명하였다(Evans, 2011).

2013-2014년 호주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Australia's Overseas Aid Program)에 따라 호주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필리핀,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 미얀마, 바누아투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호주의 글로벌 인도적 약속의 지원 안에서 2013-2014년의 예산안에 따르면 4년 동안 약

9억 미국 달러를 제공한다.[3] 따라서 호주는 필요한 외교 정책의 하나로 지역 갈등을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 분야에 집중

호주는 APEC, GATT와 케언즈 그룹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왔다. 왜냐하면 호주는 농업 및 상품 수출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는 단지 새로운 의제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적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다. 1980 년대 후반에, 호주는 세계 경제가 경쟁적인 지역 무역 블럭이 되고, 호주가 아시아, 유럽 및 북미 그룹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에 대해 염려하였다. 호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호주는 호주-뉴질랜드 경제관계 긴밀화협정(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NZCERTA)을 통해 뉴질랜드와, 남태평양지역 무역경제협력협정(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SPARTECA)을 통해 남태평양 포럼과 무역 협정을 맺었다.(Ravenhill, 1998) 또한, 주한 호주대사인 Paterson(2013)에 따르면, 호주의 대사는 전체적 힘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를 고려한다. 그리고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는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며, 국제 사회에서 큰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3]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ausaid.gov.au/Publications/Pages/summary-budget-2013-14.aspx#aidprogram

있는 외교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많은 자금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4) 안보 문제/분야에 참여

미국과 함께, 호주는 남극에서 광업과 석유 시추의 금지를 시작하고, ASEAN지역안보포럼의 새로운 주요 안보 회담을 시작하고, UN의 평화와 안보적 역할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생성하고, 호주 그룹(Australia Group)과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을 수립하고, 핵무기 철폐에 관한 캔버라위원회를 후원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이다(Evans, 2011).

5) 연합 형성

국제적인 제도적 구조 구축은 호주의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이다. 왜나하면 이것은 중견국과 다른 국가의 목소리에 크게 기여하고, 미국 및 기타 강대국에 의해 행사될 권한의 일부를 희석할 수 있다(Evans, 2011). 호주는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유사입장국가에 주목한다. Evans(2011)의 접근을 통해 유사입장국가들과 연합의 형태는 탈냉전 세계에서 다른 국가들과 호주의 외교를 구별하는 주요 특징이 되었다. 이 개념은 외무 장관 Tony Street(CPD House, 1981)의 말을 통해 볼 수 있다. 중견국의 역할에서, 호주는 함께 행동하는 국가의 블록 및 국제 기구에서의 양자 및 다자간 외교를 모두 포괄하는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APEC, 케언즈 그룹, G20 등 호주가 연합 기관을 구축한 사례가 다수 있다.

2. 중견국으로서 케언즈 그룹에서의 호주의 역할과 전략

본 논문에서는 Richard A Higgott와 Andrew Fenton Cooper(1990)의 “Middle Power leadership and coalition building; Australia, the Cairns Group, and the Uruguay Round of trade negotiation”라는 이전 연구를 통해 케언즈 그룹에서의 호주의 중견국 리더십을 살펴보자고 한다.

1) 케언즈 그룹의 목표와 특징

Higgott와 Cooper(1990)는 특히 미국과 EU가 국제 농업 무역 시스템의 지배적인 행동주체가 되는 불균형 국제 정치-경제 시스템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호주가 이끄는 케언즈 그룹에 의해 어떻게 도전을 받는지 설명하였다. Gilbert Winham은 GATT 협상 하에 이전 라운드들에서의 의사 결정 피라미드 구조는 만연했고, 미국과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가 협상 의제를 설정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Higgott & Cooper, 1990, 재인용). 결과적으로, 이 만연한 모델의 수정이 필요하다.

1986 년에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우루과이 등을 포함하는 공정 무역 국가에 관한 케언즈 그룹은 국제 농산물 무역의 주요 개혁을 견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989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6번째 케언즈 그룹 장관급 회의에 따르면, 각국 장관들은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세계 개혁과 농업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포괄적인 케언즈 그룹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포괄적인 제안은 공정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과 원칙에 근거하여 개방적이고 공평한 거래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한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4]

1. 시장 접근 기회와 국경 보호 대비의 투명성에 상당한 개선,
2. 새로운 수출 보조금의 금지와 기존 수출 보조금의 철회
3. 농업에 제공되는 내부 지원의 상당한 감소와 규제
4. 다자간 합의 조항을 통해 상계관세 절차에 관한 광범위한 규제와 모든 무역 개혁 의무 적용
5.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농업 무역 개발 차원의 정교화
6. 제안된 개혁 과정의 요소에 통합된 개발도상을 위한 특별 대우에 대한 양식

[4] Cairns Group,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cairnsgroup.org/Pages/min06_statement.aspx

그룹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룹이 북쪽, 남쪽, 동쪽 및 서쪽의 전통적인 지정학적인 기준의 관점에서 분류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케언즈 그룹은 각기 다른 경제개발 수준과 다른 정치체제를 가지는 이질적인 국가들의 그룹이다. 그러나, 특정한 하나의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그들을 함께 묶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각 케언즈 그룹 국가들은 총 수출에서 농산물 수출이 높은 비율(18%-73%)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케언즈 그룹의 모든 회원국은 세계의 농업시장의 대다수에서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농업 무역에서의 부자유의 심화와 특히 미국 및 유럽공동체의 정책에 의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시기로 1980년대를 규정한다. 그들은 미국과 유럽 연합의 시장 접근 거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경쟁적인 보조금 강화로 인해 보다 커진 위협에 직면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소 농업 무역 국가는 점점 실제적인 피해자로 자신을 인식하였다.

2) 호주의 강점

호주와 캐나다 모두 중견국으로 여겨졌지만, 호주는 그룹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케언즈 그룹에서 캐나다의 노력이 미묘하고 양면적으로 나타난 반면, 호주는 연합 구축 및 유지 보수 과정에서 중요한 지식인이자 지도자의 위치를 가정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이 국제곡물협정 하에서 맺은 가격 계약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해 미국

생산물의 증가를 통해 위협할 때, 호주와 캐나다 모두는 체제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책임의 큰 짐을 떠안았다. 그러나 캐나다에 비해, 호주 외교는 적극적이었다. 특히 농업 무역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또한, 호주는 주요 행동주체의 정책이 정권의 규범과 상충될 경우, 다자간 포럼의 로우키(low-key) "도움을 주는 해결사"의 역할보다는 주요 행동주체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었다(Renouf, 1979).

캐나다의 무역의 약 80%는 미국과의 무역이다. 그 결과, 캐나다는 호주보다 하나의 거래 파트너에 의존도가 높다. 또한,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더욱 다변화된 경제와 높은 인당 GNP를 갖는다. 따라서 국제 정치경제에서 농업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보면, 무역 긴장에 대한 캐나다의 노출은 호주보다 훨씬 적게 나타난다. 호주는 자원의 수출에 더욱 의존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농업 수출(쌀, 설탕, 곡물, 유제품, 육류 등의 수출) 하에서 시장 접근의 거부와 농산물의 경쟁적인 보조금에 대한 취약점이 더욱 크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호주는 오히려 캐나다보다, 농업 무역 개혁의 목적을 위한 광범위한 국제 연합을 동원하는 노력에 분명한 이익을 갖는다 말할 수 있다. 또한, 호주는 농업 문제에 대한 유사입장을 갖는 일부 국가들과 오랜 시간 구축된 이익과 목적의 공통성을 갖고 있다.

3) 호주의 역할과 전략

케언즈 그룹 설립 전, 호주는 저개발국으로부터의 호의를 축적할 수

있었다. 1958년에 영연방 무역 경제 회의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를 위한 계획은 호주 무역 장관 John McEwen에 의해 제안되었다. 또한, 호주는 저개발국이 특별한 이익을 갖고 있는 범위의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 측면에서 일부 저개발국에 특혜를 부여할 수 있도록 면제안을 GATT에 발의하였다. 호주는 저개발국가들이 무역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호주는 농업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있다. 1980년대에 호주의 농업경제국은 농업에서의 보조금과 보호의 비용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모으고 분석하는 일과 보호 정책의 단기 이익에 반대하고 공정한 무역 시스템의 장기적 목표에 호응하는 주장들을 모으기 위해 이 정보를 널리 알리는 일의 선두에 섰다. 실제로, 연구는 양자간 맥락 및 다자간 무대 모두에서 외교적 도구로 명시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생산자 보조금 등가물의 개념은 호주가 이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1986년에 호주는 공식적으로 장기적으로 공통한 관심사를 표명하는 그룹을 생성하기 위해 케언즈 회의에서 선택한 14개 국가의 장관급 대표를 초대하였다. 호주는 그룹의 프로필과 역량 구축에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였다. 또한, 느슨한 협조 메커니즘을 통해 그룹 구성원의 활동에 일관성을 주고 통합하는 것이 호주에게는 필수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능과 부담을 가지는 호주를 그룹의 관리자로 여길 수 있다. 다른

멤버에 비교하면 호주는 다자간무역협정에 많은 투자를 지속하고자 했다. 따라서 호주는 그룹의 지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

충분히 상당히 숙련된 다자간 무역 관료를 가지는 호주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업 관련 협상 패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GATT 협상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몇 안되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호주는 미국과 유럽공동체와의 섬세한 협상 과정에서 그룹의 증분 및 접근 방식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행동주체이다. 신뢰구축 기술을 채택하면서, 호주는 협상에 유용한 행동주체를 설득하고 정지 및 롤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얻을 수 있었다. 1986년 9월에 그룹은 GATT 의제에 농업을 위한 중심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룹에 여러 가지 내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호주는 그룹의 협상 수요 뒤에서 원동력이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연합의 중재자이자 안정자였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일부 사례에서 그룹의 다른 회원에게 농업 정책의 측면에서의 활동 정보 제공에 실패하였다. 호주는 저개발국에 대한 전반적인 외교 정책과 일치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저개발국의 외부 시장과 국내 지원제도를 위한 차별화된 사례를 주장하였다. 결국, 호주는 그룹의 의제를 확대하고 비농업 문제를 포함하자는 브라질의 압력을 거절하면서 연합의 단일 문제를 향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문제는 그룹 내의 캐나다의 위치에 대한 것이다. 다른 회원국은 캐나다를 국제 캠페인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캐나다를 무임승차자로

보았다. 더욱이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은 다른 회원국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룹 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호주는 더욱 단정적인 저개발국과 신중하고 반항적인 캐나다의 타협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호주는 저개발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 대우에 대한 생각이 그룹의 정책문에서 입지를 굳혀야 한다는 생각을 회의적인 캐나다인에게 납득시킬 수 있었다.

요컨대 호주는 지적인 지도자와 기술적 지원 공급자 및 그룹의 정치적 의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요한 점은 호주의 다자간 무역 관료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케언즈 그룹에 대한 지원 문서와 논증을 제공해왔는 것이다. 또한, 호주의 기술적 역량은 그룹의 협상과 그룹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저개발국, 서부 동맹, 뉴질랜드 및 미국, 일본과의 호주의 외교 관계는 호주의 그룹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룹의 목표도 지지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넘어, 현대 국제 질서를 깊이 이해하는 호주는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990년에 Higgott 와 Cooper는 “Middle power leadership and coalition building: Australia, the Cairns Group, and the Uruguay Round of trade negotiation”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농업 문제는 원래 우루과이 라운드의 15가지 주제 중

하나였으며[5], 농업협정은 결국 호주와 케언즈 그룹의 시도가 이루어 낸 성과이다.[6]

제 2 절 캐나다의 사례 연구

1. 캐나다의 중견국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자신이 중견국이라 주장하는 최초의 국가이지만, 호주에 비해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특히 1980 년대 후반과 1990 년대 초반에, 중견국의 행동주의를 앞당기는데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캐나다의 외교는 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매우 뛰어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견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캐나다의 특성과 지뢰 금지 조약에서의 캐나다의 역할을 살펴본다.

다수의 연구[7]에 따르면, 캐나다는 중견국 개념을 선제적으로 만들었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중견국으로 간주되었다. 캐나다의 Lester

---

[5]World Trade Organization.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fact5_e.htm

[6] Cairns Group. (2013 년 10 월 3 일 확인) http://cairnsgroup.org/Pages/min15_communique.aspx

[7] 1.) Immanuel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2.) Carsten Holbraad,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4). 3.) Donald Puchala and Roger Coate, "The Challenge of Relevance: The United Nations in a Changing World Environ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cademic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1989, Ottawa, Canada). 4.) R.A. MacKay, "The Canadian Doctrine of the Middle Powers," in Dyck and Krosby (eds.), Empire and Nations (Toronto: University of

Pearson 과 Pierre Trudeau 가 국무총리로 집권하던 시기의 대부분에서, 캐나다는 국제적으로 활동적인 행동주체로 남아있었지만, 일부 동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작은 충돌을 제거하는 일에 도움이 된 중재자와 조정자로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중개인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많은 노력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국제 체제의 협상 하에서 기술적인 막후에 투입되었다(Chapnick, 2000). 국제적으로, 캐나다는 정보 기술 및 통신 수단의 혁신자으로 인식되며, 또한 다른 국가보다 멀고 빠르게 그 아이디어를 전파할 수 있다(Potter, 1996). 중요한 것은, 외무부 장관인 Lloyd Axworth 는 캐나다의 중견국 외교는 항상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중견국 외교는 항상 연합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캐나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Chapnick, 2000). 캐나다는 중견국으로서 네 가지의 특징과 역할을 갖는다.

1) 캐나다의 강력한 외부무와 캐나다인의 영향

캐나다의 외부무는 현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힘을 가진 외교부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Soward, 1963). 호주와 유사하게,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잡해지는 세계 경제에서 국가의 경제 목표를 잘 추구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외교부와 통상부는 1982 년에 합병되었다.

Toronto Press, 1969).

나아가, Stephen Lewis(유니세프 사무차장)[8], Donald Johnson(UN 사무총장), Elizabeth Dowdswell(국제 연합 환경계획 책임자)[9], Bill O'Neil (국제해사기구 책임자)[10] 등과 같이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캐나다인이 있다(Potter, 1996).

2)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

1996 년 초에, 외무부 장관 Lloyd Axworthy 는 인권과 특히 어린이의 복지 등을 강조하면서 캐나다의 외교 정책에 사회적 우려를 주도적으로 재삽입하고 추진하였으며, 국제 및 국내 문제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였다(Potter, 1996). 실업, 전염병, 환경 파괴 등의 최근의 문제는 국제 협력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족 국가가 단독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국제 협력의 확대가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입과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의 초기인 2000 년에, 캐나다는 1990 년대에 벌어진 대량 학살의 지속적인 공포와, 르완다와 발칸의 다른 대량 극악 범죄에 반응하였다(Chapnick, 2000). 결과적으로, 그것은 국제 정의, 공정, 법의 역할에 대해 봉사한다는 외교 사상에 높이 가치를 두는

[8]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9]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10]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나라로 계속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하였다. 국제 환경의 측면에서, 캐나다는 1987 년과 1988 년에 오존 수준 및 대기에 대한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다(Ravenhill, 1998).

정부 외에, 캐나다의 비정부기구도 국제 개발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토론토 기반의 Walter and Duncan Gordon Charitable Foundation 은 북극 이사회의 발전에 1 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또한 이 단체는 의회 검토에 앞서 캐나다의 안보 목표를 위한 비정부기구의 청사진을 제공하기 위해 The Canada 21 report 에게 기금을 제공하였다. 또한, Charles Rosner Bronfman 이 설립한 몬트리올 기반의 CRB 재단(CRB Foundation)은 중동의 아랍인과 유대인 간의 이해를 촉진해왔다(Potter, 1996).

따라서, 캐나다는 윤리적 의제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를 견고히 할 수 있다. Chapnick(2000)는 "인간 안보 의제의 추진은 국제 사회에서 캐나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제 2 차 세계대전 후 진정한 중견국의 위상 달성을 실패한 이후에 보다 높은 권력 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안보 영역에서보다 국제 경제 및 사회 정책 입안 영역에서 비교 우위

캐나다는 안보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린다는 일부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가 참여를 원하지 않아 The Contact Group(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1994 년에 제외되었다. 그러나 캐나다는 G7, Quadrilateral Group, OECD 등 가장 배타적인 모든 경제 포럼의 중요한 구성원이다(Potter, 1996). 또한, APEC 과 케언즈 그룹을 통해 무역 자유화의 진행을 강화해왔다. 1980 년대에 더욱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화된 국내 정책을 채택하였다(Ravenhill, 1998).

4) 미국과의 동맹

지리와 경제는 캐나다와 미국을 함께 묶는다. 미국의 전 대통령 Abraham Lincoln 의 말과 같이, 캐나다의 국무총리는 "물리적으로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고 다시 말하였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 대통령인 John F. Kennedy 는 "지리는 우리를 이웃으로 만들었다. 역사는 우리를 친구로 만들었다. 경제는 우리를 파트너로 만들었다. 그리고 필요성은 우리를 동맹국으로 만들었다. 자연이 결합하게 만든 것은, 사람이 산산이 쪼갤 수 없다."고 오타와에서 두 국가의 상호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Soward, 1963). 또한, 캐나다의 무역은 미국의 시장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캐나다는 미국의 후원 하에 적극적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선제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그 결과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중견국으로서 지뢰 금지 조약에서의 캐나다의 역할과 전략

“Uncharted Ground: Canada, Middle Power Leadership, and Public Diplomacy”에서 Baxter & Bishop(1998)은 Cooper et al.(1993)의 중견국 유형학을 통해 지뢰 금지 사례 연구에서 캐나다의 역할을 분석한다.

지뢰는 1970 년대부터 국제 무대의 주요 화제가 되었지만, 제조, 비축, 또는 광산의 판매를 규제하는 국제 조약이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 그러나 캐나다는 Lloyd Axworthy 가 외무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조약의 체결에 있어 빠른 진전이 있었다. 1997 년 12 월 2 일부터 4 일까지, the Global Conference to Ban Landmines in Ottawa 는 158 개국, 189 개의 비정부 기구, 13 개의 국제기구가 모여 개최되었다. 이것은 국제 체제에서 캐나다의 위상을 구축하는 혁신적인 외교 과정의 “정점”을 확인한다.

중견국 행동 모형의 3 단계 중 두 단계인 촉매와 촉진자는 지뢰를 금지하려는 노력에서 캐나다의 역할에 적용된다. 게다가, Baxter&Bishop(1998)은 사례에서 캐나다의 리더십을 논하기 위해 조력자의 역할을 사용한다.

1) 촉매로서의 캐나다 (유사입장국가와 비정부기구의 연결고리를 구축)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많은 강대국이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일부는 지뢰생산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캐나다는 주요 참가자가 되었으며, 오타와 과정의 지원을 위해 조용히 다른 국가들에게 로비하는 일에 정치적이고 외교적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1996 년 4 월과 5 월에 열렸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검토 회의의 세 번째 세션에서, 핵심적인 참가자 중 하나로서 캐나다의 행동은 국제 캠페인의 미래 성공에 연결된 궁극적인 리더십 역할의 발판을 마련했다.

2) 촉진자로서의 캐나다 (네트워크 구축 및 세계적 다자주의)

오타와 컨퍼런스에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캐나다 대표단의 노력이 있었다. 촉진하는 방법의 과정을 네 가지 요소로 분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제 적십자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와 비정부기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것을,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 (비정부기구와 협력) 실행에 사용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국제지뢰금지운동(International Compaign to Ban Landmines; ICBL)은 비정부기구(특히, 목표 국가의 비정부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공식적인 연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들은 언론에 호소하고 편지쓰기 캠페인을 관장함으로써 대상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양국간주의 및 다국간주의을 통해 이러한 네트워크를 전통적인 외교와 함께 보완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국제 수준에서 전통적인 양자적이거나 다자적인 채널을 통해 다른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외교 관계를 활용하였다. 세 번째는 금지 조약을 발표하는 것으로 국제적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도전과제는 1997 년 말까지 지뢰 금지 조약의 체결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Axworthy 의 말은 잘 정의된 목표를 나타낸다. 잘 정의된 목표는 명료한 목표의 진술, 성취의 타임 라인, 명확한 언어를 갖는다. 네 번째는 세계 규모의 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슈를 다루는 다수의 회의가 1997 년에 있었다.

3) 상승제로서의 캐나다 (국제 외교의 규칙을 재설계)

캐나다는 비정부와 정부의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상승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ICBL 의 코디네이터인 Jody Williams 는 캐나다가 1996 년 10 월 5 일에 발표된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ICBL, 비정부기구, UN 기구들과 함께 일할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국제 체계에서 정부와 비정부 행동주체 간의 협력인 새로운 "공공 외교"를 채용해왔다.

그것은 캐나다의 리더십이, 특히 공공 외교의 선도적인 접근법이 이 조약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호주와 캐나다의 중견국 역할은 한국이 배우고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 캐나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정치 및 경제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호주와 한국은 경제적 공통점이 있다. 호주의 GDP 는 전 세계 12 위이며, 한국은 15 위이다. 뿐만 아니라 두 국가는 OECD 와 G20 의 회원국이고 APEC 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두 국가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출현,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 식량 안보나 기후 변화와 같은 비안보적 문제를 직면하는 등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두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지리, 문화, 역사 등의 측면에서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호주의 두 국가간 중견국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남북한 분단의 독특성과 특징은 호주와 캐나다는 다르다. 또한, 두 국가는 한국과는 달리 다른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이 없다. 북한의 위협과 영토 분쟁 등의 한반도의 안보는 한국의 외교 정책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견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한국의 중견국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제 5 장 분석: 아시아 지역주의에서 한국의 중견국 역할

제 1 절 중견국으로서의 한국

첫째, 한국은 중견국임을 정의하고, 이미 중견국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논문은 한국이 중견국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Robertson(2007)는 한국의 외교 정책적인 행동과 역량 수준 모두에 기반하여 볼 때, 대표적인 중견국이라고 서술한다. 역량 수준은 물리적 역량(국토 면적, 지리적 위치, 천연자원 등), 경제적 역량(GDP, 노동, 교육 등), 그리고 군사적 역량 (군사력, 기술, 리더십, 국민성 등)를 포함한다. 본 논문은 기존 중견국 이론에 따라 한국을 중견국으로 정의한다.

1. 역량

Neack(1992)에 따르면, 중견국의 지표에는 일인당 국민총생산(GNP/GNI per capita), 일인당 군사비, 인구, 유아 사망률, 성인식자율 등이 포함된다. 2012년에 한국 인구는 세계 26위, 약 5천만명이다.[11] 또한,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 따르면 한국의 GDP는 2012년에 가치가 1조 1296억 미국 달러이며,세계 랭킹은 15위

[11] World Bank.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

이다.[12] 2012년에 GNI(Gross National Income)가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1조 1,338억 미국 달러이며[13], 그리고 고소득 국가로 세계에서 26위를 차지한 인당 국민 소득(이전 GNP 인당)은 22,670달러이다.[14] 그 결과로, 그것은 Wood(1987)가 중견국의 GNI 수준이라고 한 6위-36위 안에 속해 있다.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DP)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유아 사망률(0-1세 사망률)은 1,000명에 5명이다.[15] 또한, 성인식자율 (15세 이상 읽고 쓸 수 있음)은 2002년에 97.9%이다.[16] 2012년의 한국의 군사비는 31.4억 미국 달러이며[17],2010년 인당 군사비는 569달러이다.[18]

세계 경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기 때문에 한국은 중요한 행동주체가 된다.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PEC, OECD, G20 과 같은 중요한 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또한, 한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2010),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2011), 서울

---

[12] Trading Economics.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dp
[13] World Bank.(2012).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databank.worldbank.org/data/download/GNI.pdf
[14] World Bank.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CD
[15]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from http://esa.un.org/unpd/wpp/Excel-Data/mortality.htm
[16]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4 년 1 월 6 일 확인)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s.html
[17]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portal.sipri.org/publications/pages/expenditures/country-search
[18]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milexdata.sipri.org/

핵안보정상회의(2012)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다양한 외교 회의에서 인상적인 역할을 하였다(Kim, 2013).

한국은 자신을 동아시아 국가로 인식하고, 북한의 위협과 강대국 사이의 지역적 경쟁은 한국이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 왔다. 최근 미국과 EU 의 경제는 극적으로 악화되는 반면, 동아시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중국도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등 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지역적 상황을 주시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는 중국, 일본, ASEAN 국가들 등의 지역 파트너에 크게 의존한다.

한국에는 인간 중심 사상의 발전이 있다. Robertson(2007)은 민주적인 제도 강화(법의 지배, 기업소유구조, 선거법 개혁)와 사회적 분열의 감소(인종, 성별, 성적 취향, 장애인의 권리) 등의 구성적 개혁을 언급한다.

2. 외교

냉전이 끝난 후, 한국의 상황은 정상이 되었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기회가 증가하였다. 제 15 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햇볕 정책은 세 가지 경향으로 인해 대표적인 중견국 외교 정책 행위라고 Robertson(2007)은 서술한다. 첫째, 햇볕 정책은 특히 북한 등과의 국제 분쟁 타협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다. 이것은 이전의 한국의 정부들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둘째, 햇볕 정책은 북한의 전복 대신에 현상유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햇볕 정책은 북한과 제 3 국의 관여를 장려하기 위한 외교 이니셔티브의 형태로 중견국 행동주의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북한을 외교적 고립의 완화로 이끌었다.

Wood(1987)에 따르면, 중견국은 강대국에 비해 국제적인 수준의 정치경제적 이슈보다는 국내와 지역의 정치경제적 이슈에 보다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들의 지역 내에서 주로 관여하는 것 중 하나는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가까운 강대국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것들이다. Cooper et al.(1993)은 중견국은 국제 문제에 있어 다자간 해결책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 국가가 이끄는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드라이브는 중요한 중견국 외교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주의를 추진하는 한국의 역할은 중견국의 외교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아시아 지역주의에 관계된 다수의 한국의 외교 정책을 살펴보았다. 햇볕 정책에서 나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 비젼그룹(East Asia Vision Group; EAVG)과 동아시아 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 EASG)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AVG와 EASG는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견고한 수단과 액션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안한 EAVG는 1998년 12월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비공식 APT 정상 회담에서 설립되었다. 또한, EAVG의 권고를 평가하고 APT 지도자에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EASG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확대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상회담의 가치와 영향을 이끌 수 있다. 또한, 브루나이, 중국, ASEAN의 회원국 회의에서 10년 내에 자유 무역 지대를 설립할 계획이 시작되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든 APT 회원국을 포함하는 자유 무역 지대를 제안하였다(Stubbs, 2002).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다른 기념비적인 지역 이니셔티브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협력 이니셔티브(Northeast Asia Cooperation Initiative for Peace and Prosperity)이다. 이러한 노력의 목표는 1) 지경학적 이점으로부터의 경제적 기회 획득, 2) 분야를 불문하고 북한과의 연계 확장을 통한 남북한의 계속되는 안보적 문제의 해결이다(Nuangjamnong, 2007).

제17대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국이 외교와 국제 협력에 주목하는 것을 증명하는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의 슬로건과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글로벌 코리아"의 슬로건은 이러한 G20 서울 정상 회의,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 및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의 한국이 주최한 국제 회의로 표현된다(Lee, 2012).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64차 유엔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렸다.

"녹색기술의 개발과 국제협력은 기후변화 대응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G8 확대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전환기술 선도국가로 지정된 스마트 그리드 분야를 포함하여 녹색기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얻는 혜택을 온 인류와 함께 나눌 것입니다."(외교부, 2009)

또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에 따라 2,000억 원을 제공한다(외교부, 2013).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비전을 통해, 한국의 일반 대중과 국제적 사회에 대한 현 정권의 관심이 표현되고 있다. 중견국의 용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근혜의 중견국 정책이 드러난다. 또한, 박근혜는 외교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의제보다 외교 관련 의제에 우선순위를 둔다(Park, 2012).

제 2 절 아시아 지역주의(APT)에 있는 한국이 제도적 중견국 역할을 수행할 이유

1. 한국의 아시아 지역주의 구축 필요성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의 특성인 동시에 한국의 장단점이 된다.

Choi(2009)는 한국이 점차 중국과 일본에 의해 위협받는 것을 느낀다고 서술한다. 중국에의 경제 의존과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한국의 주요 우려 사항이다. 중국이 부상하는 시기에,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타협을 지원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석 외교관은 Asia Times Online 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생각하면, 중국은 서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Takahashi, 2012).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통제불능을 인지함에 따라,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지역적 정치에서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Choi, 2008). 또한, 영토 분쟁은 여전히 이 지역에서 큰 문제이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한국명) 또는 다케시마(일본명)의 주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다른 분쟁과 함께, 치열한 논쟁점으로 남아 있다. 독도는 현재 한국에 의해 관리되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일본의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발표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시위와 항의를 일으켰다. 이것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으며, 불만족스럽고 비우호적인 FTA 협상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안보 위협은 한국이 오랫 동안 해결을 시도하는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미국과 다른 이웃국가들이 북핵 6 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북핵 6 자회담의 제도적 약점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북한의 핵 문제는 현재 중국의 레버리지로의 활용과 미국의 당근과 채찍 접근방식에도 불구하고 교착 상태이다(Choi, 2009).

북한의 문제와 영토 분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외교 정책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외교 정책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Robertson(2007)은 한반도의 독특한 안보 상황은 외교 정책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발전시키는 한국의 역량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새로운 해결책을 추구할 필요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의 개선을 위한 자극도 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이 참여한 북핵 6 자 회담을 통해 북한 위협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 위협 협상의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지역의 평화를 원하는 다른 참여자가 필요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지속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의 안보 프레임워크에 포함될 수 있다(Choi, 2008). 결과적으로, 북한 문제와 영토 문제 모두 양자적으로 해결될 수 없지만, 지역기구 또는 지역주의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있다.

냉전 기간에, 한국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모두 연관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는 한국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외교 중 하나이지만, Choi(2009)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만으로는 한국의 안보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미국의 전 국방장관 Robert Gates 에 따르면, Barack Obama 행정부 후, 미국은 북한이 핵확산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북한의 사실상의 핵전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 그 결과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불완전한 핵 협상에 타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갖는다(Park, 2013).

2. APT 지역주의의 가능성과 중요성

앞서 한국이 지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APT 지역주의는 평화적이고 영구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대안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안보 문제의 해결책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다음 부분은 APT 지역주의의 가능성 및 중요성과, APT 지역주의를 이끄는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의 역량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정치와 행정적인 연관 관계는 확실히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다수 드러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분명히 진화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Stubbs(2002)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진행의 이유를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첫째, 일본 군국주의의 대두와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일본의 지역적 확장,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지역 차원의

경제 및 사회적 혼란, 식민주의의 지속적인 침해와 아시아 민족주의의 대두 등 유사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 또한, 1950년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의 지역 내 두 개의 주요 전쟁은 냉전의 최전선으로 동아시아 국가를들을 내몰았다. 둘째, 유럽과 북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동아시아 국가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이 지역의 특성으로 식별되는 일반적인 문화적 특성이 있다. 정치 전문가인 Pye(1985)에 따르면 동아시아 사회 전반에는 가족, 지역 사회적 조화뿐 아니라 의무, 계층 구조의 수용과 권위에 대한 존경 등을 중시한다. 셋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지향적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개입적이고, 촉진적이며, 성장기의 국가들이 되어 왔다.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부 경쟁으로부터 특정 산업을 보호한다. 넷째, 동아시아 자본주의는 법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다섯째, 동아시아 자본주의는 이 지역 전체를 휩쓴 해외직접투자의 홍수에 의해 강화되었다. 교차 투자 패턴은 수 십 년 동안 지역 경제의 밀접한 연결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Funabashi(1993)가 “아시아의 의식과 정체성”이라 칭하는 부분의 성장이 있다. 물론 동아시아의 지역화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공식적인 기관의 설립에 앞설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특히 아시아 금융 위기 등에 의해 지역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면서 등장하였다. Chung(2013)에 따르면, ASEAN은 정부의 지도자, 장관, 또는 고위공직자 급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세 대화 파트너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

2000년, 회원국의 재무 장관이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모여, APT는 주요 경제 통합 기능을 시작하였으며, 개별적으로 협상된 양자간 통화 스왑 협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CMI의 형태로 동아시아의 금융 통합의 시작을 표명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APT의 협력은 정치와 안보, 다국적 범죄, 경제, 금융, 통화, 농업과 임업, 에너지, 광물, 관광, 보건, 노동, 문화와 예술, 환경, 과학과 기술, 정보통신기술, 사회 복지, 농촌 개발과 빈곤 퇴치, 재해 관리, 청소년, 여성, 기타 이슈 등 20개의 분야로 설명된다(Arase, 2011).

또한, ASEAN의 목적은 국가 주권의 존중, 불간섭주의의 다짐,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약속에 대하다. ASEAN의 의제에 따라, 기본적인 원칙은 ASEAN의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 자유, 평화, 중립지대정책(Southeast Asian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 동남아비핵지대조약 (Treaty on the Southeast Asian Nuclear Weapon-Free-Zone)등과 같은 문서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안보 문제는 APT 지역주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지역 안보를 다루는 다른 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년이 이상의 기간 동안 ASEAN은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안보 지역주의의 주요 결정점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ASEAN은 국가간 신뢰 개선과 평화로운 변화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경제적 성과를 개선하고 강제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적인 체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Friedrichs, 2012).

3. 타국가들 대비 APT 지역주의의 리더가 되기에 적합한 한국

타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은 APT 지역주의의 주도권을 잡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ASEAN 국가들은 각각 내부적인 문제들, 특히, 비민주적 정치적 구조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또한, ASEAN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초기 회원국 다수는 기관을 갱신하고 재활성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반면, 신규 회원국들은 가입 시에 사인한 원칙으로부터 ASEAN이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현상유지를 원한다. 또한, 정치적 발전(민주주의)의 국가별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다. ASEAN에 필요한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부여하는 시도의 결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핵심 회원국들로부터 경제 위기와 인권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의 업무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양상이 있다(Stubbs, 2002). ASEAN 국가들은 이제 자유화보다 경제적 협력, 내부 통합보다 외부 연계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Choi, 2009). 그 결과, 주도권을 잡기에는 여전한 취약점들과 각국의 국내 문제 때문에 한국 외의 ASEAN 국가들은 APT 지역주의의 지도자 되기에는 제약이 있다.

중국은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은 ASEAN과 FTA의 체결을 추진한 최초의 나라이고, 이후 일본,

미국, 인도, 한국이 중국의 뒤를 따랐다(Yunhua, 2013). ASEAN 국가의 경제는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ASEAN은 중국의 경제 호황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중국은 그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ASEAN을 지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2003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에 관한 공동 선언"은 프놈펜에서 열린 중국-ASEAN 정상 회담에서 등장하였다. 중국은 TAC에 응했으며 최초로 군사간 회담을 제안한다 (Medeiros & Fravel, 2003).

그러나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경제, 자원, 영토의 크기 등의 측면에서 중국만큼 강력하지 않지만, 미국, 일본과 보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주권에 민감하며(Choi, 2009), 그리고 중국은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와의 남중국해 분쟁, 일본과의 다오 또는 센카쿠 제도 분쟁, 대만과의 갈등 등 이웃 국가들과 많은 영토 분쟁이있다. ASEAN 국가들과 중국의 영토 분쟁은 ASEAN 국가들이 이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새로운 정책의 목표는 토지와 해역의 보전과 통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ASEAN 국가들은 모두 작고 약하며, 그들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독주를 원치 않으며, 그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ASEAN의 이익을 해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손상될 것을 우려한다(Yunhua, 2013). 또한, 특히 대만 문제 등 중국의 안보 문제는 제한적인 군사적 투명성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제한적인 군사적 투명성은 중국이 신뢰 구축의 조치를 추진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준다.

중국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중국은 국내 문제에 많은 초점과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중국은 ASEAN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지만, 중국과 ASEAN은 모두 세계의 중요한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ASEAN의 경제적 경쟁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일부 ASEAN의 정부 관료들과 학자들은 ASEAN 국가들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중국보다 적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은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혜택을 얻는다고 믿는다. 그 결과, ASEAN은 특히 농업 부문에서 불공정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Breckon(2001)은 중국의 임금은 거의 모든 동남아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ASEAN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FTA에서 이익을 얻을지가 불분명하며, 그러므로 ASEAN은 그들 자신의 늘어나는 노동력을 위한 내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자본을 수출하는데 주저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가져왔다. 기러기편대이론(Flying Geese Model)을 통해, 일본은 특히 기술 개발에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를 지원하는 선도적인 거위의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 Yunhua(2013)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적 이익은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1970년대에 동남아시아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각종 기금을 설립하고, 일본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을 동남아시아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양국간 문화 교환, 인적 교류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발해왔다.

즉,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은 캄보디아의 평화 증진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동티모르의 평화 유지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근에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보다 메콩강을 따라 위치한 국가들에 많은 초점을 두고 이 지역의 가장 큰 원조국이 되었다.

또한, 일본은 미얀마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후쿠다 교리도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는 일본을 더 이상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APT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중국에게 보다 환영을 받는다. 일본 제국주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지도자로 환영받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일본과 중국은 역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리더십 경쟁 때문에 두 국가 모두 심도 있는 지역주의에 관심이 없고 협력할 수 없다(Choi, 2009).

중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각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에서 일본보다 낮은 재정적 기여를 받아들이기 꺼려했다. Chung(2013)에 따르면, 그 결과로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합의에 유리하도록 APT의 기존 회원국의 수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영향력있는 농업관계자의 로비 등 일본 내의 저항으로 인해, 일본은 농업과 어업 제품을 수입하는 ASEAN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대형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지도 원칙으로 인적 안보의 보호를 사용한다. 그러나 권한이 정부보다는 국민의 안보에 우위를 부여하는 보여주는 개념은 국경 방어 및 국내 반란에 더 큰 관심이 있는 동남아시아의 지배계층 엘리트에 의해 지지받는 국가 안보 개념을 불편하게 만든다(Arase, 2010).

미국을 살펴보면, APT가 미국을 제외하기 때문에 미국은 APT 지역주의를 지지하기 보다는 견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미국은 APT의 성공을 중국의 부상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 주권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2009).

또한, 미국이 포함된 APEC은 다수의 문제가 있다. APEC의 주요 문제는 무역 자유화에 대한 결합과 포괄적인 목표를 원하는 영미(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경제와 무역 촉진과 경제 및 기술적 협력의 확대를 원하는 아시아(특히 중국, 말레이시아) 경제의 분열이며, 이는 이미 명백해졌다(Stubbbs, 2002). 또한, Ravenhill(1998)은 APEC은 유럽

연합과 같은 지역기구 보다는 아시아-유럽 간의 회의와 유사하게 초지역적 기구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의 영향 하에서, APEC과 같은 기구는 동아시아 회원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

한국은 지역 정치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베트남 전쟁 기간에 한국의 경제가 독립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에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시작하고 촉진하였다. 1987년에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나라 중 하나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진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중심수단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지역주의에 대한 접근은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부터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ia and Pacific Council; ASPAC)라는 잘 알려진 지역기구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EAVG와 EASG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AVG와 EASG는 협력의 폭을 넓히고 견고한 수단과 액션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한 다른 기념비적인 지역 이니셔티브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2003년에 노무현 정부는 자유 무역 협정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그 안에 20개 이상의 국가와의 FTA를 활발히 추진하려는 의지를 명백히 서술하였다(Nuangjamnong, 2007).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서 동아시아를 대표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한국

외교의 중점을 확대하고, 한국의 정치적 관심을 경제에서 안보, 문화, 녹색 이슈, 개발으로 확장하겠다고 선포하였다(Arase, 2011).

결과적으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축에서 동남아시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한국이 오랜 시간 지역주의를 이끌어 온 역사는 다른 국가에게 만족스럽고 존경할 만한 리더가 되고, 아시아 지역주의에서 숙련된 리더가 되도록 미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또한, 역사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추진에 유리한 입장을 갖는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소 국가들과 많은 불쾌한 경험을 공유한다(Nuangjamnong, 2007). 이러한 경험은 20 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냉전, 1997 년 아시아 경제 위기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APT 공동체에서 정치경제적 특징이 있다. 한국은 중국 또는 일본과 비교하여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그 영향력은 보다 크다. 한국은 다른 ASEAN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안보적 이익도 얻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ASEAN 과 한국이 협력한다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은 국토가 좁고 자원도 부족하고 인건비가 높지만 월등히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국가들은 낮은 임금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진다(Arase, 2011). 그래서 이러한 협력은 한국과 ASEAN 모두에게 이롭다. 또한,

한국과 ASEAN 국가의 경제적 관계는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의존성, 평화로운 지역 환경으로 인해 강화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소프트 파워 외교의 수행에 성공한 주목 받는 국가가 되었다. 외교 분야에서, Kim(2013)은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다양한 개발과 문화 정책을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국제 회의를 개최하고, 집합적인 외교를 주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다수의 후원자를 소집할 목적을 갖는다고 서술한다. 이것은 중견국 역할을 수행할 채널을 제공한다. 다수의 근거에 따르면, 한국은 APT 지역주의를 이끌기에 적합한 역량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 3 절 APT 지역주의에서 한국이 수행해야 하는 중견국의 역할

중견국 이론, 한국의 중견국 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연구를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중견국 역할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외무부의 능력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연합 구축, 충돌 안정, 주도적인 역할, 의제 설정, 모범적인 국제 구성원이 되는 능력은 외무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캐나다는 분석 역량을 향상시키고 복잡해지는 세계 경제에서 국가의 경제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외교부와 통상부를 1982년에 합병하였다. 같은 이유로, 호주는 1987년에 외부무와 무역부를 통합하였다. Ravenhill(1998)은 각 외무 장관은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우선 외무부의 역량 개발 및 외교부와 통상부의 재합병을 통해 APT 지역주의에서 효과적인 중견국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캐나다처럼 국제 관계에 관한 보다 많은 경험을 얻고 한국과 그룹의 목표를 추구하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한국이 수행해야 하는 중견국의 다섯 가지 역할을 제안한다.

1. 유사입장국가의 탐색

권력과 영향력의 원천으로, 연합 형성은 중견국이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중견국 이론의 대부분은 중견국이 다른 국가들과 연합 및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견국은 연합 형성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국 중견국의 사례연구도 한국은 유사입장국가를 모으고 그들과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중견국의 선례인 호주와 캐나다는 연합을 형성하는 역량이 그들의 성공에 기여했음을 증명한다. 본 논문은 APT 지역주의를 통한 연합형성을 통해 한국이 중견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Choi(2009)에 따르면 한국의 연합 파트너는 지리적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사입장그룹을

추구하고 그들을 유인하려 한다. Kim(2013)도 한국은 유사한 안보적 문제를 공유하는 다른 중소국가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 결과, 한국의 관점에서 동일한 의견을 갖고 기꺼이 협력하고자 하는 그룹이나 국가는 ASEAN 이 될 수 있다. ASEAN 은 경제 개발 협력을 목표로 하고, 이 지역에서 평화를 원하는 국가의 그룹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ASEAN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안보 문제(북한의 위협, 중국과 일본의 관계, 중국과 미국의 경쟁)를 해결하기 위해 APT 지역주의에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Choi(2009)는 한국이 동아시아와의 배타적인 관계 형성을 피하고 동아시아 정상 회의의 회원국 확장에 열려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본 논문은 지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의는 회원국에 관련된 조건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지역주의는 아시아에 속하지 않고, 한국, 일본 등의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 지역주의에 APEC 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Trans-Pacific Partnership; TPP)와 같이 미국 또는 영미가 영향을 미치면, 지역기구의 목표는 단지 일부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 APT 지역주의는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의 편에 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PT 지역주의는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한국과 APT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등 지역 강대국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게다가, 지역주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체성이다. “The Awkwardness of Australian Engagement with Asia; The Dilemmas of Australian Idea of Regionalism”에서 He(2013)는 특히 Rudd 가 2008 년에 제안한 아시아태평양공동체(Asia Pacific Community; APC)와 같이 호주가 아시아 지역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서 직면하는 몇 가지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시아 지역에 적절히 연결되는 호주의 정체성이 없이, 아시아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아시아 지역주의에서 호주의 중요한 역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호주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적 및 지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호주는 문화적, 정신적으로 아시아가 아니다. ASEAN 국가들, 한국, 중국, 일본은 유사한 경험, 공통의 문화적 특성을 공유한다. 동아시아(APT) 자본주의는 법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Stubbs, 2002). 그 결과, 지역주의 형성에 있어 구성원의 선택은 목표와 정체성(특히 문화적 정체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2. 유사입장국가의 유인 및 결집

유사입장국가들을 확인한 후, 그 국가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브로커 역할의 상당 부분은 다른 국가들보다 다수의 행동주체를 모으는 역할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Kim, 2013).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의 지원을 통해 행동주체들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주는 모범 사례가 된다. 케언즈 그룹 설립 전, 호주는 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생필품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를 위한 계획 제안, 일부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등을 통해 특히 무역 문제에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저개발국을 지원해왔다.

또한, 국제 규범을 포괄하고 국제 규범에 근접한 외교 전략은 다른 국가를 유인할 수 있다. 중견국은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범적인 국제 회원국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Ravenhill(1998)에 따르면, 중견국 신뢰의 외부 차원은 중대한 행동주체를 위한 허수아비로 인식되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 또한, 중견국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호주는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서 국제 질서를 깊이 이해한다. 그 결과로 케언즈 그룹을 이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 간의 신뢰성을 생성하고 유사입장국가들을 유인하기 위해 한국이 모범적 국제 회원국 또는 좋은 국제 시민(Cooper el at., 1993)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한국은 다양한 개발 및 문화 정책의 실행을 지속해야 한다. Kim(2013)은 소프트 파워 외교 또는 매력외교의 수행을 통해 한국은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많은 국제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에는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를 공공 정책 도구로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로부터 지원을 얻는 것은 집합적인 외교 및 매력외교를 추구하는 한국의 노력을 보여준다.

한국은 집합적, 매력외교를 전개할 채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3. 그룹 의제 설정

유사입장그룹을 유인한 다음의 단계는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중견국은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견국은 강점을 갖는 분야나 틈새를 찾았을 때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견국은 일부 영역에서 역량이 부족하고 강대국만큼 힘이 강력하지는 않으나, 중견국은 이슈를 관리하고 추진할 충분한 역량을 갖는다. 이러한 역량은 충분히 넓은 외교 포스트 네트워크와 선택적인 "틈새 외교"를 포함한다. 따라서, 한국은 강점이 있는 틈새를 찾아야 한다.

호주의 사례 연구를 통해, 호주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들은 캄보디아 충돌, 남극 대륙 대회(the Antarctica Convention), APEC, 남태평양 비핵지대의 추진, 북한 핵의 위협, PIF 등의 지역 이슈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 확대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의 형태와 같은 경제 구조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등 호주의 고위 정치인들은 아시아-태평양 및 동아시아 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 결과, 한국은 지역주의 형성에서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동아시아 이슈에 중점을 둔 의제를 설정해야 하며, 한국의 고위 정치인들은 동아시아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경제 분야는 한국이 경제적 역량과 경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된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이다. 호주와 캐나다는 단지 새로운 의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다. 두 국가는 (특히 호주는) APEC, GATT와 케언즈 그룹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왔다. 호주는 세계 경제가 경쟁적인 지역 무역 블록으로 분화되고, 호주가 아시아, 유럽 및 북미 그룹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에 대해 염려한 반면, 캐나다는 NAFTA라는 북미 지역주의의 회원국 중 하나이다. 명백하게 동아시아 국가로 간주되는 한국은 이 지역의 경제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무역 자유화,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경제 협력 및 개발과 관련된 경제적 의제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제 개발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의제를 설정한 경험을 갖는다. 강희종(2013)에 한국의 개발 협력은 물질적 원조를 넘어 수원국의 문화, 환경, 국민적 수요 등에 적합한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은 한국에게 경제 개발 의제를 제시하는 한국에게 대한 바람직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인권, 민주주의, 환경 등의 윤리적인 이슈를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96년에 캐나다는 외교 정책에 사회적 우려를 재삽입하였다. 나아가, 캐나다는 르완다와 발칸의 집단 학살과 다른 대량

잔혹 행위의 지속적인 공포에 대응하였으며, 오존 수준 및 대기에 대한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 외에, 캐나다의 토론토 기반 Walter and Duncan Gordon Charitable Foundation, 몬트리올 기반의 CRB재단 등 비정부기구도 개발 및 국제 이해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1990년대에 한국은 캄보디아의 평화를 얻기 위한 중견국의 이니셔티브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고, 동티모르에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한국은 중견국 무역 자유화 노력에 자주 반대해 왔으나, 최근 들어 환경 보호에 관한 이니셔티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Robertson, 2007). 최근에 한국에서는 경제 강화와 환경 보호에 목적을 두고 개발 도상국의 녹색 기술을 지원하는 "녹색 성장"이 부상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과거보다 인간 안보 의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안보 측면에서 호주는 남극에서 광업과 석유 시추의 금지를 시작하고, ARF에서 새로운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고, UN의 평화와 안보적 역할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생성하고, 호주 그룹(Australia Group)과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을 수립하고, 핵무기 철폐에 관한 캔버라위원회(Canberra Commission on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를 후원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안보와 관련된 한국의 의제 설정은 제한적이다. Lee(2012)는 북한 위협 억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반도 외부의

평화 유지 노력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 또한, 특히 남북한간의 긴장이 심화될 때, 위협은 평화 유지에 대한 국민들의 지원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해외 평화 유지 활동은 한국군의 국내 상주가 필요한 한, 한국 중견국 외교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와 관련된 의제 설정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4. 지역 갈등 안정화

특히 지역의 강대국 사이에 지역 갈등이 일어날 때 중견국 역할은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지역주의에서 효과적인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갈등을 안정화해야 한다. 한국은 중일관계, 중미관계, 한미관계 등 세 가지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첫째, 한국, 일본, 중국, 세 국가 사이에서 중일 관계보다 한중과 한일 관계가 보다 원만하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과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19] 한국이 두 국가와 상당 부분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국은 영토와 역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을 지원하는 브로커가 될 수 있다. 또한, 3 국간 지역 내 무역의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0 년에,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일본과 한국은 중국의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간주되었다. 같은 해에, 일본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일본에서

[19] 중앙일보.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joongang.joins.com/index.html?cloc=home%7Cnavi_top%7Chome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였다.[20] 경제적 의존은 3 개국 사이의 관계 개선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3 국간 지역 내 무역의 비중을 유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2011 년, 한국은 서울에 3 국 협력 사무국을 설치하며 외교적 노력을 하였다. 이것은 지역과 APT 무대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좋은 징조이다. 더불어, Choi(2009)는 한국이 중국, 일본과 협력하기 위해 APT 와 같은 지역기구에 중국과 일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서술한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APT 지역주의를 지원하며, 동시에 APT 는 두 국가 사이의 문제를 완화한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지역 내 국가들의 우려를 낳는다. Lee 는(2012) 지역 균형이 한국의 국익에 이로우며,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한, 한국이 안보 영역에서 이들을 중재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결과, 한국은 두 나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해야 하는 동시에 한국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셋째, 한국이 APT 지역주의에 관한 외교 정책 수립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미국은 APT 회원국이 아니고 APT 지역주의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캐나다처럼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견국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

[20] Joint Study Report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meti.go.jp/press/2011/03/20120330027/20120330027-3.pdf

Choi(2009)는 한국이 반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두 국가는 북핵 6 자 회담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와 상세 설계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더불어, 민주국가의 안보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NATO 를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NATO 확대는 위태로운 한중안보관계 및 중미안보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에 적대적일 수 있는 안보 협력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지역주의 지속

본 논문은 APT 지역주의에서 중견국 역할의 마지막 단계를 "지역주의 지속"이라고 부른다. 유사입장국가를 탐색하고, 유사입장국가를 유인하고, 의제를 설정하고, 지역 갈등을 안정화한 후, 한국은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PT 가 영구적인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그룹의 프로필과 역량을 구축하는 시간과 자원은 모두 지역주의 형성과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 호주는 케언즈 그룹의 프로필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바치고, 또한 케언즈 그룹을 통합하고 회원국들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협업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룹 내에서 다른 회원국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책임을 지므로, 호주는 그룹의 지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APT 를 이끌기 위해 그룹의 중견국으로서 시간과 자원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지역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호주의 신뢰구축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신뢰구축 기술의 사용을 통해, 호주는 케언즈 그룹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공동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 신뢰구축은 국가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행동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모니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뢰 구축 방식은 다양하다. 케언즈 그룹의 경우에, 호주는 점진적인 헌신(걸림돌을 극복하고 주요 행동주체를 앞지르기 위한 단계별 접근), 투명성 방법의 기술 향상에 대한 헌신, 교착 상태에서 호주의 고위 무역 교섭인에 의한 왕복 외교와 브로커 행동의 광범위한 활용에 헌신 등 신뢰구축을 위한 세 가지 방식을 활용하였다(Higgott&Cooper, 1990). 한국은 이 지역의 주요 행동주체를 참여시키고 다른 회원국을 설득하기 위해 호주의 신뢰 구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APT 의 의제 및 장기 목표를 따르기 위해 한국에 공식적인 기관이 있어야 한다. 호주는 농업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호주에 농업경제국(Bureau of Agricultural Economics)을 설립하였다. 농업경제국의 역할은 케언즈 그룹의 의제와 관련된 정보 편찬, 분석, 홍보이다. 한국은 공식적인 기관 설립을 통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중견국 역할을 수행할 수있다.

넷째, 힘의 원천의 분포, 협력 국가들의 니즈와 수요, 시간적 긴급성, 정보의 흐름, 문화 등에 대한 한국의 이해 외에, 한국은 지역 이슈 및 지역 경제에 관한 시스템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호주는

전체적인 국제 무역 협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므로, 케언즈 그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끌 수 있다. 의제와 관련된 세계와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다른 국가 및 비정부 기구와의 정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 분야에 있어 호주가 성과를 거둔 이유 중 하나는 저개발국, 서부 동맹,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과의 전세계적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룹 외부의 정치적 관계는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 지역 의제 설정 및 지역 강대국과의 협업 필요성으로 인해, 한국은 APT 의 안팎으로 정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때때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와 관련된 의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비정부기구 사이 및 정부와 비정부 사이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지뢰에 대해 다루기 위해 비정부기구들, 국제 적십자 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비정부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공식적인 연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였다. 한국은 그룹의 의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대중의 지지에 의해 구성원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정부기구와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중견국 역할을 통해 APT 지역주의 추진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주의의 구축의 다섯 가지 요소(지역 내 사회적 통합의 확대, APT 국가들의 지역 의식과 정체성 고취, 국가 간 협력 지원, 지역 경제 통합 촉진, 지역 화합 도모 등 한국의 역할)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APT 국가들의 참여 유도, 경제 발전·윤리적 갈등·지역 이슈에 관련된 의제 설정, 지역 갈등 안정 등을 통해, 한국은 지역 내 사회적 통합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지역 협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 지역화를 위한 원동력인 지역 시장,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또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 외교는 사람들의 흐름을 증가시키고,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생각, 정치적 태도, 사고 방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여러 채널과 복잡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초국가적 지역 시민 사회를 생성할 수 있다.

둘째, APT 연합 형성 과정에서, 한국은 공통적인 문화, 역사, 종교적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내부 요인에 기반한 지역 의식(특정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APT 연합 형성은 경제적 의존성과 아시아 아이덴티티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셋째, APT 의 목표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고, 의제와 장기 목표를 따르기 위한 기관 설립을 통해 한국은 지역 내 국가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 활동에 중요한 정부간 협정 또는 제도에 관한 협상과 구축은 시간, 자원,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넷째, 한국은 GATT, APEC, G20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한국은 ASEAN 과의 FTA 를 체결하였으며, 중국 및 일본과의 FTA 를 확대하려 한다. 모범적인 국제 회원국과 “지역주의 지속”에 관한 역할은

무역 장벽의 제거 및 상품의 관세 동맹의 형성에 집중하는 한국에게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한국이 신뢰 구축, 그룹의 활동 지원, 신뢰성 형성을 통해 APT 경제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통합을 야기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은 신뢰 구축, 그룹 목표를 위한 기관 설립, 국가 간 또는 국가 및 비정부기구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 갈등 안정화 등을 통해 지역의 응집력을 가져올 수 있다.

제 6 장 결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 영토 분쟁,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역 강대국을 참여시키고 “동아시아” 목표를 대표하는 APT 의 메커니즘은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추진해 온 한국의 오랜 역사, 공통된 역사적 경험, 소프트 파워 외교의 실행 등 이러한 것은 모두 한국이 APT 지역주의에서 지도자로서 중견국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호주와 캐나다 등 앞선 중견국들의 성공을 고찰하고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이러한 역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룹의 목표를 추구하기 하는 주도적인 중견국의 실제 사례는 케언즈 그룹에서 호주의 역할 및 지뢰 금지 조약에서 캐나다의 역할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외교부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이 APT 지역주의 형성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 중견국 역할이 있다. 유사입장국가의 탐색, 유사입장국가의 유인 및 결집, 그룹 의제 설정, 지역 갈등 안정화, 지역주의 지속 등이다. 이러한 중견국 역할은 사회적 통합, 지역적 인식과 정체성, 지역 내 국가간의 협력, 지역적 경제 통합, 그리고 지역의 결합 등의 지역주의를 낳을 수 있다.

ASEAN 은 지역의 평화를 원하고 지역의 경제 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과 유사입장그룹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국 및 일본과 관련된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APT 지역주의에 중국과 일본을 참여시키고, 의제를 설정하고, 그룹의 목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APT 지역주의의 노력은 직접적인 안보 해결책이 아니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역 분쟁에 대한 평화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견국 역할은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국가는 오랜 시간 동안 그룹에 자신을 바쳐야 한다. 새로운 중견국인 한국은 앞선 중견국에게서 배워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중견국 역할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수행하기 위해 독특성과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외교부. (2013). 『2013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유현석. (2012). 『동아시아 지역주의: 평화,변영,인간안보의 지역적 모색』.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333 집.

Cooper, A. F., Higgott, R. A., & Nossal, K. R. (Eds.). (1993).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ol. 6). UBC Press.

De, M. J. & Panagariya, A. (1993).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P.

Ethier, W. (1998).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system. International Finance Section*, Department of Ec., Princeton University.

Holbraad, C. (1984).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Macmillan.

Nuangjamnong, N. (2007). *Korean Regionalism: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Pye, L. W. (1985). *Asian Power and Politics: The Cultural Dimension of Authority*, Havard University Press.

Renouf, A. (1979). *The frightened country* (p. 16). Melbourne: Macmillan.

학술지

강희종. (2013). 『개도국 사회수요 기반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 카메론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rase, D. (2010). Non-Traditional Security in China-ASEAN Coopera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and the Evolu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Asian Survey*, Vol.50, No.4, 808-833.

Arase, D. (2011). Korea, ASEAN, and East Asian Regionalism. *Joint U.S.-Korea Academic Studies*, Vol. 21: 33-53.

Chapnick, A. (1999). The Middle Power, *Canadian Foreign Policy*, Vol.7, No.2 (Winter 1999), 73-82.

Chapnick, A. (2000). The Canadian Middle Power Myth, *International Journal*, Vol.55, No.2, 201.

Chung, C. (2011). Japan's involvement in Asia-centered regional forums in the context of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sian Survey*, Vol.51, No.3, 407-428.

Chung, C. (2013). China and Japan in "ASEAN Plus" Multilateral Arrangements, *Asian Survey*, Vol.53, No.5, 801-824.

Cox, R. T. (1989). Middlepowermanship, Japan, and the future world order, *International Journal*, Vol.44, 827.

Friedrichs, J. (2012). East Asian Regional Security: What the ASEAN Family Can(Not) Do, *Asian Survey* , Vol.52, No.4, 754-776.

Funabashi, Y. (1993). The Asianization of Asia. *Foreign Affairs*, Vol.72, 75-85.

Hayes, G.(1993). Middle Powers in the New World Order*, Behind the Headlines*, Vol.51, No.2, 13.

He, B. (2013).The Awkwardness of Australian Engagement with Asia: The Dilemmas of Australian Idea of Regionalism, *Journal of Ritsumeika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Vol.5.

Henrikson, A. K. (1997). Middle Powers as Managers: International Mediation within across, and outside Institutions. *In Cooper ed*.

Higgott, R. A., & Cooper, A. F. (1990). Middle power leadership and coalition building: Australia, the Cairns Group, and the Uruguay Round of trade negot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9-632.

Holbraad, C. (1971). The role of middle powers. *Cooperation and Conflict*, Vol.6, No.1, 77-90.

Hund, M. (2003). ASEAN Plus Three: towards a new age of pan-East Asian regionalism? A skeptic's appraisal, *the Pacific Review*, Vol.16, No.3, 383-417.

Hurrell, A. (1995).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 Vol.21, 331-58.

Keohane, R. O. (1969). Lilliputians' Dilemmas: Small States in Internati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23, No.02, 291-310.

Lee, S. (2012). South Korea as New Middle Power Seeking Complex Diplomacy. *EAI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 연구보고서*, Vol.25, 1-36.

Medeiros, E & Fravel, M.(2003), China's New Diplomacy, *Foreign Affairs*, Vol 82, No.6, 22-35.

Neack, L. (1992). Empirical Observations on "Middle State" Behavior at the Start of a New International System, *Pacific Focus*, Vol.7, No.1, 5-21.

Potter, E. H. (1996). Niche diplomacy as Canadi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Vol.52, No.1, 25-38.

Ravenhill, J. (1998). Cycles of Middle power activism: Constraint and choice in Australian and Canadianforeign policie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52, No.3, 309-327.

Robertson, J. (2007).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Capacity, Behavior, and Now Opport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16, No.1, 151-174.

Soward, F. H.(1963). On Becoming and Being A Middle Power: The Canadian Experience.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32, No.2, 111-136.

Stubbs, R. (2002). ASEAN PLUS THREE Emering East Asian Regionalsim?, *Asian Survey*, Vol.42, No.3, 440-455.

Teo, E. (2001). The Emerging East Asian Regionalism. *Internationale Politik und Gesellschaft*, 49-53.

Tiberghien, Y. (2013). Global and Regional Institution-Building; The Importance of Middle Power Diplomacy in East Asia, The Role of Middle Power in 21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2013 KAIS-KF International Conference.*

Wood, B. (1987). Middle Power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A Preliminary Assessment of Potential, *Winder working papers*.

Wood, B. (1988). The middle powers and the general interest (No. 1). North South Inst.

Yunhua, C. (2013).What Kind of Policy towards Southeast Asia Does China Need for Its Peaceful Rise?, *Journal of Ritsumeika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vol.5.

학술대회

Burfisher, M. E., Robinson, S., & Thierfelder, K. (2003). *Regionalism: Old and new, theory and practice*.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to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Conference, June 2003, Capri, Italy. Economic Research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ashington, DC.

Choi, Y. (2009). *East Asian Regionalism and South Korea's Strategy: Lessons from the Experience of Middle Power Activis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PD (House), 24 March 1981, pp.829-30

Kim, S. (2013). *Roles of Middle Powers in East Asia: A Korean Perspective*, The Role of Middle Power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2013 KAIS-KF International Conference.

Lin, C. M., & Univesity, T. (2011, June). *The Role of Mid-power Countries in Asia-Pacific Regional Integration*. In 7th APEA Annual conference, Busan, Korea (p. 4).

Park, I. (2013). *Middle Power Diplomacy of the Next Korean Administration,* The Role of Middle Power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2013 KAIS-KF International Conference.

Yul, S. (2013). *The US-China Contest for Leadership in Desigining a Regional Architecture and the Role of Middle Powers*, The Role of Middle Power in 21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2013 KAIS-KF International Conference.

인터넷 자료

외교부. (2009). (2014 년 1 월 24 일 확인)
http://www.mofa.go.kr/trade/un/about/index.jsp?menu=m_30_60_10

중앙일보.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joongang.joins.com/index.html?cloc=home%7Cnavi_top%7Chom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ausaid.gov.au/Publications/Pages/summary-budget-2013-14.aspx#aidprogram

Baxter, L & Bishop, J. (1998). *Uncharted Ground: Canada, Middle Power Leadership, and Public Diplomacy*. Journa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2014 년 1 월 6 일 확인)
http://www.wws.princeton.edu/~jpia/5.html

Breckon, L. (2001). *China-Southeast Asia relations - gains for Beijing in an otherwise gloomy quarter.* Comparative Connections online, 3(4). (2014 년 1 월 6 일 확인) http://www.csis.org/pacfor/cc/0104Qchina_asean.html

Cairns Group.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cairnsgroup.org/Pages/min06_statement.aspx

Cairns Group. (2013 년 10 월 3 일 확인) http://cairnsgroup.org/Pages/min15_communique.aspx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4 년 1 월 6 일 확인)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s.html

Cheeppensook, K. (2008). *The European Union as a middle power and its role in world politics*.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ces.in.th/PDF/chiangmai_pub_kasira.pdf

Evans, G. (2011). *Middle Power Diplomacy*.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gevans.org/speeches/speech441.html

Joint Study Report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meti.go.jp/press/2011/03/20120330027/20120330027-3.pdf

Lim, J. (2012). *Reader response: Singapore's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aspistrategist.org.au/reader-response-singapores-relations-with-the-us-and-china/

Paterson, W. (2013). *Middle Power Diplomatic Strategy of Australia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s Middle Power*, Roundtable Discussions for Middle Power Diplomacy. No. 4.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eai.or.kr/data/bbs/eng_report/201310151120412.pdf

Reed, W. (2008). *ASIA: Middle power status for Australia: Mind over rhetoric*. 26 Apr. 2008. News Weekly.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newsweekly.com.au/article.php?id=3273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milexdata.sipri.org/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portal.sipri.org/publications/pages/expenditures/country-search

Takahashi, K. (2012). Asian Times.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atimes.com/atimes/Japan/NE26Dh01.html

Thayer, C. A. (2000). *'ASEAN Plus Three: an evolving East Asian community?'*, Comparative Connections online, 2(4).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csis.org.

Trading Economics.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dp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esa.un.org/unpd/wpp/Excel-Data/mortality.htm

World Bank.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

World Bank.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CD

World Bank.(2012).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databank.worldbank.org/data/download/GNI.pdf

World Trade Organization.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fact5_e.htm

Yi, C. (2007). Emergence of Regionalism: About State Preference Formation, POLIS Working Paper No. 23.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polis.leeds.ac.uk/assets/files/research/working-papers/wp23yi.pdf

ABSTRACT

The Role of Korea as a Middle Power in Asian Regionalism: Focusing on ASEAN+3

Jiratatip Phumitharanon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plain the middle power role that South Korea should take in building Asian Regionalism. Korea has recently realized the significance of having a "Middle Power" role in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how and where the country should apply its middle power role is still controversial. Diversely from superpower countries, middle powe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lack the capacity to pursue their goals alone. Therefore, they have to take lead and achieve goal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 multilateral institutions.

As a new coming middle power country, South Korea should learn the lesson from previous successful middle powers' cases, for instance Australia and Canada. At the same time, due to the unique

political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play a middle power role based on its own situation. Korean regional security problems such as the North Korean threat and territorial disputes, demonstrate that Korea needs a regional partner and institution to solve its security problems. Therefore, Korea should promote the process of Asian regionalism and regional coalition building in order to push forward its agenda through a regional institution and finally pursue its goals.

In the research, ASEAN+3 is regarded as a regional institution where Korea plays a middle power role to achieve its goals. Moreover, results of the research have suggested the five roles of middle power that Korea should play in ASEAN+3 regionalism. These roles involve seeking like-minded countries, collecting and attracting the like-minded countries, setting the group agenda, stabilizing the regional conflicts, and lasting regionalism.

Keywords: Middle Power Role, Asian Regionalism, Regional Security Problems, Coalition Building, ASEAN+3 Regionalism, Like-Minded countries.

Student Number: 2011-24216

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 석사학위논문

아시아 지역주의에 있어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ASEAN+ 3를 중심으로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푸미타라논 찌라타팁

The Role of Korea as a Middle Power in Asian Regionalism: Focusing on ASEAN+3

A thesis presented

By

Jiratatip Phumitharanon

To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in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February 2014

아시아 지역주의에 있어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ASEAN+3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은 기 수

이 논문을 국제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푸미타라논 찌라타팁

푸미타라논 찌라타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위 원 장 _____ 박태균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안덕근 _____ (인)

위 원 _____ 은기수 _____ (인)

The Role of Korea as a Middle Power in Asian Regionalism: Focusing on ASEAN+3

Academic Advisor: Professor Eun, Ki-Soo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February 2014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Jiratatip Phumitharanon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Jiratatip Phumitharanon

February 2014

Chair Park, Tae-Gyun (Seal)

Vice Chair Ahn, Duk-Geun (Seal)

Examiner Eun, Ki-Soo (Seal)

Copyright© 2014 Jiratattip Phumitharanon
All Rights Reserved

국문초록

아시아 지역주의에 있어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ASEAN+3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주의 구축에 있어 추구해야 할 중견국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다. 최근에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중견국”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지만, 여전히 한국이 어떻게 어디에서 중견국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강대국과는 달리,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은 자신의 목표를 단독으로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다자기구를 통해 그들은 국제 관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새로운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호주와 캐나다 등 이전의 성공적인 중견국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 동시에, 독특한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은 그 자신의 상황에 기반하여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위협, 영토 분쟁 등과 같은 한국의 지역 안보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와 기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지역기구를 통해 의제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주의와 지역 연합 구축의 과정을 촉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ASEAN+3는 한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의 기구로 간주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이

ASEAN+3 지역주의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의 중견국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유사입장국가(Like-minded countries)의 탐색, 유사입장국가의 유인 및 결집, 그룹 의제 설정, 지역 갈등 안정화, 지역주의 지속 등이다.

주요어: 중견국 역할, 아시아 지역주의, 지역 안보 문제, 연합 형성, ASEAN+3 지역주의, 유사입장국가

학번: 2011-24216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문헌 검토 4

제 1 절 지역주의 4

제 2 절 ASEAN+ 3(APT) 지역주의 7

1.APT 에 대한 ASEAN 의 관점 9

2.APT 에 대한 중국의 관점 12

3.APT 에 대한 일본의 관점 13

제 3 절 중견국 14

제 4 절 중견국과 지역주의 22

제 5 절 한국의 중견국 역할 24

1.연합형성 27

2.국제기구 안팎의 특수 의제 설정, 적용 및 추진 29

3.지역 갈등 안정 30

제 3 장 방법론 및 연구 범위 34

제 1 절 연구 방법론 34

제 2 절 사례 연구 선택 36

제 4 장 사례 연구 37

제 1 절 호주의 사례 연구 37

1.호주의 중견국 37

2.중견국으로서 케언즈 그룹에서의 호주의 역할과 전략 42

제 2 절 캐나다의 사례 연구 49

1.캐나다의 중견국 49

2.중견국으로서 지뢰 금지 조약에서의 캐나다의 역할과 전략 54

제 5 장 분석: 아시아 지역주의에서 한국의 중견국 역할 58

제 1 절 중견국으로서의 한국 58

1.역량 58

2.외교 60

제 2 절 아시아 지역주의(APT)에 있는 한국이 제도적 중견국 역할을 수행할 이유 63

1.한국의 아시아 지역주의 구축 필요성 63

2.APT 지역주의의 가능성과 중요성 66

3.타국가들 대비 APT 지역주의의 리더가 되기에 적합한 한국 69

제 3 절 APT 지역주의에서 한국이 수행해야 하는 중견국의 역할 76

1.유사입장국가의 탐색 77

2. 유사입장국가의 유인 및 결집 79

3. 그룹 의제 설정 81

4. 지역 갈등 안정화..... 84

5. 지역주의 지속 86

제 6 장 결론.....91

참고문헌..... 93

ABSTRACT..... 108

제 1 장 서론

머리말

오늘날 “중견국”은 국제적 계층 구조에서 국가들을 비교하는 새로운 개념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성취하려는 역할과 전략으로 중견국의 개념을 여긴다. 최근 한국은 자신이 중견국이라 주장하고 중견국 외교를 연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견국 역할을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는 호주,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인 중견국과 함께 한국은 현재 새로운 중견국이 되었다. 지역 내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패권 경쟁은 한국 정치에 우려를 주었으므로 많은 학자들과 논문들은 한국은 브로커 역할을 통해 중견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견국 역할은 지역 내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리더, 브로커, 매니저 등의 중견국 역할은 연합, 다자간 기구 또는 지역기구가 설립되었을 때 효과적이고, 중견국은 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견국의 충분하지 않은 역량 으로 인해, 중견국은 다자간 기구 또는 지역기구를 통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영역으로 이러한 기구를 인식한다. 본 논문은 중견국과 지역주의 간에 관계가 있으며, 중견국은 국제 무대에서 역할을 수행할 지역기구나

포럼이 필요함을 밝힌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견국은 그들의 목표를 위해 지역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교 목적 중 하나가 지역 안보 문제의 해결이고, 또한 한국 경제가 동아시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연합 파트너는 지리적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갈등, 중국의 부상 등 한국의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환경이 있다. 이는 모두 한국으로 하여금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 내에서 연합 파트너를 찾도록 만든다. 즉, 한국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지역 포럼 또는 기구에서 중견국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3(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3; ASEAN+3; APT)를 한국이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으로 제안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국제사회는 동아시아 협력에 중심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rea; FTA)의 증가는 동아시아로 하여금 동아시아 협력을 인식하게 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그로부터 매년 APT 정상회담을 하기 시작했으며 동아시아에서 양국간 또는 다국간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일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2015년 ASEAN은 경제적으로 통합할 계획이 있으며, 이 계획은 ASEAN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CE)라고 부른다.

APT 는 단순한 지역 블록이 아니라,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평화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이며, 지도자로서 중견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무대로 간주될 수 있다. APT 지역주의의 메커니즘은 북한의 위협, 영토 분쟁 등의 한국의 안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APT 지역주의 구축에서 지도자로서 중견국 역할의 수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연구 및 호주, 캐나다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은 APT 지역주의에서 한국이 어떤 중견국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2 장 문헌 검토

제 1 절 지역주의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광범위하게 통합되고 있다. 또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s; GATT) 협상의 여덟 번의 연속적인 라운드 후, 세계 무역 자유화는 더욱 중요해졌으며, 전세계에서 지역 통합의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 무역 통합의 확산 하에서, 점진적인 무역 자유화의 세대는 둘로 분할되었다. 이 두 세대는 첫 번째 파도 또는 구지역주의, 그리고 두 번째 파도 또는 신지역주의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첫 20-30 년 간은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모두 "얕은 통합"으로 특징지어지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구지역주의)(Burfisher et al., 2003). 유럽 공동 시장의 추진력 하에서, 지역주의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었다(De et al., 1993). 그러나 1970 년대에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지원하는 미국 패권으로 인해 지역주의가 중단되었다. 지역주의는 1980 년대 중반에 두 번째 흐름이나 신지역주의로 돌아왔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깊은 통합"이 되었다. 이것은 상품 무역과 표준 국경 보호의 정책을 넘어 서는 의미이다(De et al., 1993). 이스라엘과 캐나다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르며, 미국은 미주를 위한

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EAI)과 함께 전 세계의 절반에 걸친 FTA 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최근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NAFTA)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유럽 통합은 남부와 북부로 확대되었다. 또한, De et al.(1993)는 중미공동시장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CACM),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for South East Asia Nations; ASEAN), 남미 공동 시장(Southern Common Market; MERCOSUR) 등과 같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중동에 지역 무역 통합의 이니셔티브가 있다고 했다.

유현석(2012)은 구지역주의와 신지역주의의 차이점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꼽는다. 첫째, 시기적으로 구지역주의는 냉전 속에서 형성된 반면, 신지역주의는 1989 년 이후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형성되었다. 둘째, 주도권 측면에서 구지역주의는 초강대국이 이끌었던 반면, 신지역주의는 지역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끌어졌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구지역주의는 보호주의를, 신지역주의를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표방한다. 넷째, 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구지역주의는 특정 목적을, 신지역주의는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목적을 띄고 있다. 다섯째, 주요 행동주체 측면에서 구지역주의는 국가가 주요 행동주체였던 반면, 신지역주의는 다양한 비국가적 행위자들, 국가 하위 수준의 행위자들도 행동주체로 활동한다.

지역주의의 정의는 다양하고 많은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Ethier(1998)는 지역주의는 지리적 영역 내에서 특정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집합적인 행동을 형성하는 기관의 구성 및 실행과 결합된 아이덴티티와 목적의 공감에 대한 표현이다. 또한, 지역주의는 인접한 국가들간의 국제 협력이나 협동을 수단으로 긍정적 독립성의 제고 뿐만 아니라 독립성의 존재에 대한 인지이다. 지역주의는 지역 내 국가 간 관계 조정을 동반하는 복잡한 협약, 조화 및 국가 간의 정치경제적 이해의 타협을 의미한다(Yi, 2007).

유현석(2012)에 의하면, “지역주의는 국제관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이 개념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역주의라는 개념을 지역무역블록이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국제정치성이나 인식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학자들은 지역적 정체성이 생겨나고 강해지는 현상으로 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지역주의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Hurrell(1995)이 분류한 지역주의 개념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자고 한다. 첫 번째는 지역 내 사회적 통합의 확대인 지역화(regionalization)이다. 또한, 이는 종종 사회적이고 경제적 상호 작용의 특별한 목표가 없는 과정을 포함한다. 지역화는 집합체, 흐름, 네트워크 또는 모자이크에 관한 개념의 일종이다. 두 번째는 지역적 인식과 정체성(regional awareness and identity)이다. 이것은 공통의 문화,

역사, 종교적 전통 등과 같이 특정 커뮤니티에 속해 공유된 인식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적 국가간의 협력(regional inter-state cooperation)도 개념 중 하나이다. 정부간 협정 및 정권의 협상과 구성은 지역적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공식적인 기관의 설립과 연관될 수 있다. 그러나, 준비와 후속작업을 위한 메커니즘을 동반한 정기적인 모임과 같이 느슨해진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국가가 추진하는 지역적 경제 통합(state-promote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은 지역 협력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지역 통합 하에서,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 등의 상호 교류에 대한 장벽을 낮추거나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다섯번째는 지역의 결합(regional cohesion)이다. 그들은 응집되고 통합된 지역 단위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는 위와 같은 과정의 조합을 말한다.

제 2 절 ASEAN+3 지역주의

1990 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 위기부터, 모든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 정부는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금융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장관 및 정부의 수장급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왔다. 이러한 그룹은 1999 년에 APT 가 되었다. 이것은 APT 의 영향에 대한 모든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관심을 증가시켰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만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기구의 최초 설립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APT 회원국은 공통된 이익과 관심사를 위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서의 동아시아 협력을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경제, 금융, 정치적인 대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APT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을 체결하였다. Chung(2013)에 따르면, APT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협상된 양자간 통화 스왑 협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후, 2000 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의 형태로 동아시아의 금융 통합이 시작되었다.

또한, Stubbs(2002)에 따르면 APT 는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st Asian Economic Caucus; EAEC)의 구체화 및 공식화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정체성에 기반한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1990 년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는 점과 현재 다음의 진화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이제 다음 진화적인 단계에 도달하였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정부 공무원의 정기적인 회의가 공통의 목적과 정체성의 공감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Stubbs, 2002). 그러나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회원국의 협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APT 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APT 에 대한 ASEAN 의 관점

APT 의 지역주의에 대한 각각의 ASEAN 국가는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Hund(2003)은 ASEAN 회원국 정부는 ASEAN 이 세 가지 분열선(동남아시아-동북 아시아의 분열, 동북아 3 국의 분열(한중일), 지역 내 경제적 중심과 주변국의 다양한 분열 등)을 넘나들며 동아시아의 통합적인 대화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지한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ASEAN 은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지 및 시장을 연결하였다. ASEAN 은 APT 를 중국과 일본의 두 축 간의 양극화 및 다각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직면할 기회로 여긴다(Hund, 2003).

Hund 는 동아시아 안보 측면에서 동남아 국가의 정부들이 APT 가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ASEAN 의 관점을 통해, APT 가 이끄는 개발 원조, 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제도화된 협력은 동북아시아 정부 간의 신뢰 구축에 기여하며 뿌리 깊은 문화적, 정치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1 말레이시아

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이후 APT 로 발전한 EAEC 의 형성을 촉진해 왔다(Stubbs, 2002). “동방”정책을 통해, Mahathir 는 EAEC 에 미치는 서양의 영향을 반대하며,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과 NAFTA 과 같은 서양 우위의 경제블록과 균형을 맞추는 통합된 경제블록으로 APT 를 여긴다.

1.2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APT 를 촉진하고 “아시아 국가”만을 회원국으로 환영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ASEAN 과 경제협력강화협정(Closer Economic Relations; CER, 호주-뉴질랜드 간) 간의 자유 무역 지대의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갖는 경제 및 군사적 가치를 인식하는 반면 중국을 동일한 지위로 여기지 않는다(Lim, 2012). 즉, 싱가포르는 지역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환영한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제품과 서비스 공급은 ASEAN 시장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싱가포르의 싱크탱크도 동아시아 무역 자유화가 주는 ASEAN 의 경제적 이익에 의문을 갖는다 (Teo, 2001).

1.3 필리핀

안보 측면에서, 필리핀은 특히 남중국해, 대만 해협, 한반도에 대한 관점에서 ASEAN 지역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1] 의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APT 에 안보 차원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필리핀 전직 대통령 Fidel Ramos 는 APT 가 분명 중국의 패권에 대한 야망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Hund, 2003).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은 지역 국가들 사이의 강한 상호 의존 관계의 결과로

[1] 아세안 지역 포럼에는 호주,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북한, 유럽 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남한,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미국, 베트남 등이 포함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불가피한 필요로 묘사하며, APT 를 통합된 동아시아 공동체로 발전할 포럼으로 여긴다 (Hund, 2003).

1.4 태국

태국의 관점에서 APT 는 동아시아의 안보와 경제 문제를 모두 다루는 포럼이 될 수 있다. 태국은 양자 및 복수국간 경제 및 정치 협력의 망에서 특히 중국 등의 동북아시아를 통합할 수 있는 APT 의 큰 잠재력을 인정한다. 태국의 이웃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일본과 어려운 관계를 가져 왔지만, 태국은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서 소중한 파트너로 간주되었으며, 미국과의 공식 동맹도 지속해왔다. Thaksin Shinawatra 의 집권 기간에, 태국은 중국과 보다 친밀해졌고 APT 를 그들의 동쪽에 위치한 큰 이웃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도구로 보았다. 2006 년에 Shinawatra 는 중국이 태국의 친척과 같다고 했으며, 중국은 태국의 큰 시장이고 중국과의 증가된 교역량으로 인해 중국의 성장은 태국을 위한 기회가 됨을 인식한다. 따라서, Thaksin 은 안보 이슈보다는 APT 경제 협력 기회에 주로 관심을 보이며, 태국은 정치 및 안보 대화에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1.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와 APT 의 테두리 안에서 ASEAN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의 협력 증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정치적 상호 의존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APT 를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정치 측면에서, APT 는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적인 박애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협력도 안보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

ASEAN 국가들 사이에는 APT 에 관한 몇 가지 다른 관점이 있지만, 그들은 APT 가 동아시아의 경제 의존도 증가와 정치 및 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응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APT 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로 묘사된다.

2. APT 에 대한 중국의 관점

2000 년에 국무 총리 Zhu 는 APT 의 메커니즘이 지역 협력의 주요 채널이 될 수 있고 이 메커니즘은 점진적으로 지역의 금융, 무역, 투자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APT 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실현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Thayer, 2000).

APT 구성원 간의 경제적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 특히 동북아 국가들 간의 강화된 정치와 안보 관계는 APT 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APT 의 맥락에서 동북아시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세 국가 간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 한국과 매년 3 국 정상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Hund, 2003). Hund 는 안보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ASEAN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과 동남아비핵지대조약(Southeast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 treaty; SEANWFZ) 가입에 동의했다고 한다. 중국은 APT 포럼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관계된 일부 ASEAN 국가들과 논의할 수 있다. APT 를 통해, 중국은 압력없이 수행할 수 있는 포럼의 맥락에서 정치 및 안보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은 분명하다.

3. APT 에 대한 일본의 관점

일본은 생산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안정의 확보를 원하지만, 일본은 APT 가 지역 경제 블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경제 문제를 넘어, 일본은 APT 가 동북아시아 국가 사이의 정치와 안보 대화에 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및 정치적 협력의 이유로 인해, 일본은 APT 국가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의 일본 외교 정책에 따르면, 북한의 6 자 회담과 마찬가지로, APT 는 일본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또 다른 지역 포럼이다(Chung, 2011). 그러나 일본의 관점에서, 중국은 APT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의 영향과 균형을 맞추고자 다른 국가들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축 참여를 참여를 지원하려 한다. 예를 들어, 2001 년에 일본의 Koizumi 총리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확대된 동아시아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일본은 APT 가 일본의 경제 및 정치적 이해 관계 모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만, APT 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이니셔티브로 여기지는 않는다. APT 를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와 일본의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APT 가 중국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 따라서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을 찾고 있다.

제 3 절 중견국

냉전 이후 중견국의 역할은 급속하게 발전했다. 영국 경제학자 Barbara Ward 는 "현대 세계에서 국가 통치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직면하고 재정의하는 정부의 수가 얼마 없다. 강대국은 너무 크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불편하고, 그들 자신의 책임에 묶여 있다. 대다수의 신흥국은 너무 가난하며 불안정하다. 따라서 영향력의 크기에서 볼 때,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중견국이다"라고 주장하였다(Wood, 1987, 재인용). 이러한 발표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중견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국제 협력을 위하고 세계 정치에서 상위 중견국의 지위를 위한 중견국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최선의 방법을 찾게 하였다.

국제제도에서 중견국의 활동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적 전례는 문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견국에 대한 관심 자체가 거의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중견국의 전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캐나다를 선제적인 중견국으로 여기는 연구가 많이 있으며, 캐나다는 스스로를 중견국으로 여기고, 중견국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과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설립 계획 단계에서, 캐나다와 다른 국가들은 세력과 책임이 함께한다는 점과 세력과 힘은 중견국의 이익과 잠재적 기여를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을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중견국이 비상임 이사국의 특별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받길 원했다고 Andrew Gelber 는 주장하였다(Chapnick, 1999, 재인용).

1947년에 캐나다의 고위 외교관인 Robert Riddell은 중견국을 "규모, 물적 자원,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 그들의 영향력과 안정성이 강대국에 가까운 수준인 국가들"로 묘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캐나다는 증가하는 인구, 높은 생산성, 세계 상위의 국제 무역으로 인해 그들 자신을 중견국으로 여겼다. 또한, 캐나다의 외부무는 현대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외교관중 하나로 여겨졌다(Soward,1963).

중견국의 정의를 내리거나 중견국의 지표를 찾고자 하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 중견국을 규정하는 정확한 수단이 없지만, Riddell이 언급한 바와 같이 중견국은 본디 세계 무대에서 그들의 자원,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에 의해 고려되고 있다. Middle Power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A Preliminary Assessment of Potential에서 Wood(1987)는

중견국의 잠재적 기여에 관한 예비조사를 추진하였다. Wood는 1979년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 순위에서 6위부터 36위 사이(400-4,000억 달러)에 드는 국가들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중견국은 그들의 이익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제 협력 활동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Wood(1987)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중견국 구성원의 자금 조달 비율을 살펴봤는데 중견국의 그룹은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그 이전 기관의 총 누적 영수증의 총 50%이상을 기여하였다.

최근에 미국 정치학자 Neack(1992)는 널리 쓰이는 다섯 가지 국가 속성 요소(인당 GNP, 인당 군사비, 인구, 영아 사망률, 성인 식자율)를 기반으로 클러스터 분석의 통계 기술을 통해 중견국을 확인하고자 했다.

Cheeppensook(2008)는 중견국의 역할이 냉전 때와 달리 발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견국은 최근 개념과 정체성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인구, 무기, 자원처럼 객관적 특성들이 아니다. 중견국들 사이에 공유하는 정체성은 인권, 인간 안보, 환경, 정치 과정에서 시민 사회의 인식과 같은 인간 중심의 사고들이다.[2] 따라서, 충분히 강력한 정치-경제적 역량을 가지며, 세계 정치와 국제기구에서 적극적 행동주체가 되는 것 이외에, 중견국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고 시민

[2] Cheeppensook, Kasira. (2008). The European Union as a middle power and its role in world politics.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ces.in.th/PDF/chiangmai_pub_kasira.pdf

사회와 비정부 기구들에게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강대국보다 힘이 약한 국가는 다자간협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강대국은 그들 자신의 수단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체제와 작은 유럽 국가들(대부분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중견국에 속함)에 관하여, Peter Katzensteien은 다자간 활동의 일관된 패턴과 그 밑에 깔린 강력한 이유를 제안하였다(Wood, 1987, 재인용). 마찬가지로, Cooper et al.(1993)는 중견국은 국제 문제에 다자간 해결책을 추구하고, 국제 분쟁의 타협적인 위치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외교를 이끄는 "좋은 세계 시민"의 개념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중견국은 강대국보다 국제적인 수준의 정치경제적 이슈보다는 국내와 지역의 정치경제적 이슈에 집중적으로 매여있는 경향이 있다. 강대국은 세계적인 이익과 확장을 갖는 경향이 있는 반면, 많은 중견국은 그들의 지역 무대에서 벌어지는 주요 국외 문제, 책임, 기회를 찾는다. 그들의 지역 내에서 주로 집착하는 것 중 하나는 연합하거나 적대적인 가까운 강대국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놓여있다. 나아가,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그룹의 40%는 그들의 주요 수출국을 지역 수준에서 찾는다(Wood, 1987).

그러나, "중견국의 위상은 날마다 얻어져야 한다. 그것은 국가의 자원으로부터 전적으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Hayes(1993)는 주장한다. 또한, Cooper et al.(1993)는 지리적 위치, 지구물리학적 위치와 인구 크기 등의 물리적 특성과 군사력의 규모,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크기, 또는 외교 정책의 규범적 내용 등의 역량으로 중견국의 위상을 정의하는 것을 피한다. 대신, 그들은 중견국의 위상이 중견국의 외교와 그들의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식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avenhill, 1998). 결과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중견국을 이해하고 중견국의 효과적인 역할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능적 원리와 행동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견국의 특징, 역할, 행동과 외교에 관한 다수의 개념이 있다.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견국 역할을 연합 형성, 행동주체 간의 좋은 관계 형성, 지도자로 자리매김,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좋은 국제 회원국이 되는 것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강대국에 비해 중견국은 경제 및 정치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합형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중견국은 소국가 및 중견국과 동맹을 맺고 다른 행동주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 협력의 공식적인 형태로, 국제기구 또는 기관은 중견국이 주류에 도전하거나 국제 무대에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견국 영향력의 근원이다. Evans와 Grant에 따르면, “중견국은 대부분의 환경에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지만, 그들은 유사입장국가들의 관점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중견국은 문제 및 포럼에 따라 작은 국가들, 다른 중견국들, 또는 강대국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것이다(Ravenhill, 1998). Evans(2011)는 연합 이니셔티브 및 지역적 포럼이 중견국으로 하여금 잠재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진정한 기회라고 주장한다(Evans, 2011). Tiberghien(2013)은 중견국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관 디자인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Cooper et al.(1993)의 접근에서의 중견국의 행동 특징 중 하나는 다자주의에 대한 선호이다. 마찬가지로, 중견국은 다른 국가와 연합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Chapnick, 2000). Kim(2013)은 공통의 이해, 이익, 규범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국가 및 비국가 행동주체를 모으는 중견국의 역할을 "의장"이라고 부른다(Yul, 2013). 또한, Holbraad(1971)의 접근을 통해, 중견국은 부국과 빈국 사이의 연결고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EU와 달리 여전히 다자간인 안보 구조 및 통합된 시장의 형성이 미진한 동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 미국-중국 영향 경쟁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Lee, 2012). 따라서, 연합형성은 중견국의 매우 중요한 역할과 의지를 추구하는 진정한 기회로 여겨진다.

둘째, 중견국은 평화로운 환경이 중견국으로 하여금 큰 영향력을 갖도록 기여함을 인식한다. 따라서 중견국은 특히 강대국 등 행동주체 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시도한다. 강대국 사이의 긴장 상태 하에서 강대국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중견국과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강대국이

충돌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중견국은 더욱 효과적인 외교적 역할을 발견할 것이다(Kim, 2013). 그 결과로, 중견국은 국제 관계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Holbraad(1971)에 따르면, 중견국은 두 대립국 사이의 중재자이다. 또한, Wood(1988)는 중견국을 충돌 안정 장치라 설명하고, Cox(1989)는 국제 안정에 대한 헌신을 중견국의 특징 중 하나로 간주한다. 게다가, Henrikson은 중견국은 회유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Chapnick, 2000, 재인용). 이런 점에서, 중견국은 다른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사이의 전환, 변환, 번역의 등을 제공하는 단순한 연결고리 이상의 브로커이다. 브로커는 통합적인 가격 협상을 촉진하고 참여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를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슈의 틀을 만들기 위한 협상 스킬을 갖는 기업가를 의미하기도 한다(Ravenhill, 1998). 따라서, 중견국은 국가들 간의 좋은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아야 하며, 지역 갈등에 대한 협상과 해결을 할 수 있는 숙련된 브로커가 되기 위해 준비되야 한다.

셋째, 중견국은 다자간 또는 지역적 기구의 리더로 볼 수 있다. 리더는 강대국이 될 필요가 없지만, 새로운 의제를 선도하고 변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중견국이 새로운 의제를 시작하고 기구를 적극적으로 이끌 융통성을 보다 많이 갖는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을 영향력의 근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Wood(1988)는 특정 이슈 분야에서의 리더십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기능적 리더십”을

중견국의 특징으로 여긴다. 따라서, 기능적 리더십은 특정 이슈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중견국은 지역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많은 경우에, 문제에 적용되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정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난관 속에서 해결책을 발견하고 이끄는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이 부족한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은 종종 신속하고 사려깊은 외교 자세와 함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다(Evans, 2011). 그 결과로, 중견국은 새로운 의제를 시작하고 의제를 리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Ravenhill(1998)은 중견국 외교의 본질은 지적 리더십의 제공이라고 한다. 지적 지도자는 기관적 가격협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형성하는 지적 자산이나 사고의 재생산 체계를 조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리더십 역량은 중견국의 관료적 역량에 기반한다. 따라서, 중견국은 특히 새로운 의제나 틈새 외교, 그리고 지역기구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중견국은 창의성과 외무부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창의력과 외무부의 역량은 적극적인 국제 협력에서의 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넷째, 중견국은 주로 추진하고 집중하고자 하는 영역을 찾아야 한다. Evans(2011)에 따르면 중견국은 이슈를 따라가기에 충분한 물리적 역량이 있어야 한다. 역량은 외교 포스트의 충분히 넓은 네트워크와 선택적인 “틈새 외교”를 포함한다. 또한, 이슈를 따라가는 역량은 에너지와 체력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Ravenhill(1998)은 초강대국의 경우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둘 수

있는 반면, 중견국은 자원이 제한적이고 동시에 대외 정책 의제의 여러 분야에 걸쳐 자신의 높은 수준의 기술을 적용할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에 목적과 집중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중견국은 잘 할 수 있는 특정 분야를 찾고, 문제 또는 의제의 목표를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중견국은 모범적인 국제 회원국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모범 국제 회원의 타이틀은 중견국의 신뢰성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중견국의 외교 연습을 유지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Cooper(Cooper et al, 1993)는 중견국은 그들의 "좋은 세계 시민"의 개념을 그들의 외교 지침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Holbraad(1971)는 중견국은 문화적으로 다른 국가들 간의 국제적 이해를 촉진한다고 서술한다. 따라서, 중견국은 국제 문제, 특히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 및 국제적 규범의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4 절 중견국과 지역주의

Henrikson(1997)은 논쟁자 간 합의의 "구매"를 기대할 만큼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중견국은 국제기구에서 회원국이 되고, 참여하고 이끌어 감으로써 그들의 역할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역사적 연속성, 제도적

구조 및 중재자의 작업에 필요한 법적/도덕적 권위가 있으므로, 중견국 중재자는 국제기구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Lee(2012)는 국제 체제의 변화와 보다 복잡해진 국제 문제로 인해, 기관 또는 연합의 임시 형태를 통한 다자간 관리는 국제 문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그 결과로, 중견국 운영을 위한 국제적인 대화의 장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효과적인 중견국의 관리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견국은 다양한 구성원과 신뢰성을 추구하고 현존하는 국제 규범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다국가간 상호작용을 옹호한다.

따라서 중견국과 국제 협력의 관계는 분명히 상부상조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상부상조의 관계에서 중견국은 국제 기관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의 이니셔티브와 정권은 중견국에 의해 지원을 받으며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지역적 측면에서의 국제 협력 및 국제 기관에 특별히 초점을 둔다. 중견국과 지역주의의 상호 관계를 가정할 수 있지만, 일찍이 호주의 전 총리 Kevin Rudd는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적 협력에서의 중견국 중요한 역할에 대해 분명히 말하였다. Rudd는 아시아-태평양과 UN에서의 파트너십 강화을 통해 “창조적 중견국의 외교”를 향한 자신의 의지를 설명하였다(Reed, 2008, 재인용).

또한, 중견국은 강대국보다 국제적인 수준의 정치경제적 이슈보다는 국내와 지역의 정치경제적 이슈에 집중적으로 매여있는 경향이 있다고

Wood(1987)는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견국의 이니셔티브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연관된 다양한 종류의 결정들을 구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Holbraad(1984)는 이원적 시스템과 다각적 시스템 모두(국제 시스템의 세 가지 중 두 가지)에서 중견국은 지역적 이익과 자기 자신(국내)의 관심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Keohane(1969)는 중견국이 동맹 및 지역기구를 통해 역할을 수행한다면 국제 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상승 시기에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위상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지역 기관 등에서의 중견국 역할 수행을 통해 특정 분야에 집중하며, 그 기구의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제 5 절 한국의 중견국 역할

한국이 중견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다수의 기존 연구가 있다. Lee(2012)는 네트워크 권력이 21 세기 신중견국의 새로운 원천이라고 한다. 자원과 네트워크 없는 중견국 행동주의는 외교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결과를 갖기 보다는 열망으로만 남을 것이다. 또한, 제한적인 국제 네트워크는 중견국이 중재자, 브로커 및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위치적인 접근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행동주체의 위치는 행동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촉진한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에서의 행동주체의 위치는 그 행동주체의 역량이나 역할로 연결된다. 이 논문은 특정한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여전히 연결되지 않은 행동주체 사이의 연결을 형성하는 특정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브로커의 역할에 주목한다. Stacie E Goddard 는 브로커의 힘은 국가의 특성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위치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네트워크의 힘"은 "자원의 힘"과 다르다(Kim, 2013). 따라서 네트워크 권력은 효과적인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이자 중견국의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Choi(2009)는 한국으로 하여금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한국 경제는 지역적 의존도가 높다. 둘째,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6 자 회담에 실패하였다. 셋째, 중국과 일본의 위협이 있다.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며, 일본은 한국과의 역사적 문제와 영토 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한국과 일본이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넷째, 양자관계(중국, 일본, 북한 각각과의 관계)는 제한된 협상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해결책만을 제공한다. 다섯째, 한미 동맹은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관점에서 경제적 문제와 안보 문제를 지역 협력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안보적으로, 기관적 규범 하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 북한에 대항해 힘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영토 분쟁은 양자협력이 아니라 지역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나아가, 외교 정책도 정치적 인기와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매력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지역공동체를 이끌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다. 첫째, 미국은 다국간주의보다 일방주의를 선택하였다. 둘째, 북한은 국가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셋째, 중국은 주권에 민감하다. 넷째, 일본은 중국과 한국 등 지역 내 주요 세력에게 주도적인 역할으로 환영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은 심화된 지역주의에 관심이 없거나, 경쟁 관계 때문에 협력을 잘하지 못한다.

한국은 안보적 목적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타협을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적극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상당한 열의를 보여왔다. 따라서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 중강 행동주의로 나타나는 한국의 지역 전략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야만 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패권국을 적으로 만든다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형성은 중견국 리더십 성공의 열쇠이다. 그리고 지역 내 차상위 권력자는 지역에서 강대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역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그렇다면, 지역기구는 한국에게 중국과 일본을 결속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관점에서 ASEAN 은 잠재적 연합국이다(Choi, 2009). 지역주의 과정에서 한국이 수행해야 하는 중견국 역할은 몇 가지가 있다.

1. 연합형성

중견국은 규범 조성 및 기관 구축을 통해 지역을 이끌어야 한다. 현실적인 연합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 연합 구축을 목표로 하는 다수의 부분적인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hoi(2009)는 한국의 연합 파트너는 지리적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APT 의 출범 이후 ASEAN 은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연합 파트너의 상위 목록에 있다고 서술한다. ASEAN 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통합이 오랫동안 지체된 것이다. ASEAN 은 내부 통합을 기피하며, 오히려 외부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 한국에서 경제적 원조와 무역상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 ASEAN 은 한국이 중국, 일본과 겨루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ASEAN 에 반하는 영향력을 증진하는 것보다 ASEAN 의 마음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동아시와의 배타적인 관계 형성을 피하고, 동아시아 정상 회의(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의 회원 확장에 열려 있어야 한다.

“Roles of Middle Power in East Asia; A Korean Perspective”에서 Kim(2013)은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외교 역할을 논하기 위해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였다. 주요 행동주체 사이에서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스템에서의 구조적 위치의 관점에서 중견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통해, Kim(2013)은 구조적 틈새나 사회적 자본을 식별하면서 한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적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의 위치를 상황과 연결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달리 말하면, 한국은 힘의 원천의 분포, 따르는 국가들의 니즈와 수요, 시간적 긴급성, 정보의 흐름,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맥락지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브로커의 역할을 인식하는 한국은 네트워크 파트너 간의 비대칭 게임의 관리에 익숙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중견국 브로커 역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며, 유사입장국가를 가능한 한 많이 유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대국에 의해 설계된 플랫폼 위에서 적절한 역할로 자리잡은 한국은 작은 국가와 중견국의 지지 속에서 네트워크 구조를 보완하고 나아가 혁신해야 한다.

중견국의 브로커 역할의 상당 부분은 다른 국가들보다 많은 행동주체를 모으는 역할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유사입장그룹을 유인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행동주체들을 오랜 시간 동안 지원자로 유인해야 하며, 이전의 관계를 해체한 후에 자체적으로 주위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역 및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국은 모든 이웃 국가와의 협력적 동맹을 통해 집단 권력의 행사를 추구한다. 그러나, 한국은 유사한

안보적 문제를 공유하는 다른 중소국가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유사입장그룹을 모은 후, Kim(2013)은 결국 중견국이 Michel Callon 이 번역(Translation)이라 칭하는 과정에서 성공하고 구축한 플랫폼으로 다른 행동주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대표의 권한을 갖기 위해, 중견국은 "프로그래밍 외교"가 필요하다. 중견국은 국제 규범을 포괄하고 국제 규범에 근접한 외교 전략으로 다른 국가를 유인할 수 있다. 중견국이 집합적인 외교을 추진하고 전세계의 지원을 모으면, 규범 외교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중견국은 강대국이 간과하는 틈새를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더불어, 중견국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혼합해야 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관심사를 결합하며 이를 훌륭하게 하고 있다.

2. 국제기구 안팎의 특수 의제 설정, 적용 및 추진

Rudd 는 최초로 지역적 거버넌스(관리)에서 중견국의 역할을 제기하였다. 특히, 2008 년 말에, Rudd 는 (한국을 포함한) Group of 20(G20)의 중견국은 글로벌 금융 안정, 기후 변화, 핵 확산과 개발, 그리고 지역적 경제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Lin, 2011).

Lee(2012)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안보 문제와 국내의 반대로 인해 해외에 파병하거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한국은 평화유지를 위한 해외 파병보다 인간 안보 의제의 촉진과 제도적 장치 설정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국제 사회에 공을 돌리는 방법으로 다른 국가의 경제적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은 2009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 원조 위원회 가입,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확대, 국가의 개발 경험 공유, 2011 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및 기존 원조 효과성 의제에 개발 의제를 삽입하여 서양 원조국과 개발 도상국을 연결하는 등 개발 원조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시도해왔다.

3. 지역 갈등 안정 (중국-일본, 중국-미국, 미국 동맹)

지역의 평화는 특히 지역주의에서 중견국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APT 지역주의를 개선하려는 시도들은 APT 의 효과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간의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Choi(2009)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을 길들이기 위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결속하기 위한 규범과 규칙을 강화하는 기구적 락인(lock-in)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ASEAN 의 장애물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결속을 피하는 것, 비민주적인 정치 구조,

효과적인 실행의 부족, 발전 수준의 현저한 차이 등이다. 한국은 지역을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기구를 만들고,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한국은 인권, 환경,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보편적 가치를 이 지역을 위해 중요한 다국간의 규범으로 채택해야 한다.

APT 의 지역기구 개선 외에,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주요 지역 행동주체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Kim(2013)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한국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서술한다. 한국은 각 국가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영토분쟁의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Lee(2012)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외교적 노력은 중국과 일본의 경쟁에서 한국의 중견국의식(middlepowermanship)을 상징하는 서울에 3 국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핵심적 장으로 한-중-일 삼각 지대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에, 한국은 북한의 위협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안보 지원에 의존하는 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유사한 안보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다른 중견국과의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제한된 상태로 머무른다면, 한국의 성공적인 중견국 외교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미국 주도의 봉쇄에 참여하거나 중국 중심의 지역적 질서에 동의하기보다 지역 내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최대 공통분모를 위해 동맹 및 중견국 외교를 관리하며, 복잡한 외교에 대한 새로운 중견국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Lee, 2012).

Choi(2009)에 따르면, 미국과의 협력은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Lee(2012)는 한국이 미국-중국 간의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일부 지역적 안보 이슈(대만 문제와 중국 남부 해상 분쟁 등)와는 거리를 두면서, 글로벌 이슈에 관한 미국의 지원에 기반한 중견국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지역기구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지역 이니셔티브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미국의 일방주의와 중국의 부상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은 다음에 서술된 한국의 리더십의 경지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오랜시간동안 미국의 믿음직한 동맹국이 되며 적극적인 지역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첫째, 한국은 자기 자신을 미국의 신실한 파트너로 재건해야 한다. 한국은 반미주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뒷받침을 한다면 중강 행동주의의 성공 가능성이 커짐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미국과 한국은 6 자 회담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와 상세 설계에 관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셋째, 중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의 안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제 3 장 방법론 및 연구범위

본 연구는 “한국이 아시아의 지역주의에서 수행해야 하는 중견국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관련된 이론, 기존 연구, 뉴스 등의 보조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견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연구를 선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한국의 상황과 특징을 고려하여 한국이 아시아 지역주의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견국 역할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동아시아는 최근에 흥미로운 지역이 되었으며 세계 체제를 변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지역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제1절 연구 방법론

본 논문은 기존 이론, 기존 연구, 관련된 사례 연구를 활용하는 정성적인 연구이다. 모든 자료는 한국의 현대 상황과 역량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분석되었다.

기존 중견국 이론을 통한 분석은 한국이 중견국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 체제에서 중견국의 이상적인 역할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주의 이론은 세계에서 현대 지역주의(신지역주의)의 개념을 제공하며, 지역주의

과정과 원리를 보여준다. 이것은 APT 지역주의와 그 안에서의 중견국 역할을 정의함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는 한국이 수행해야 하는 중견국 역할을 제안하며, 특히 지역주의에서 현실적이고 가능한 중견국 역할을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한국의 특징과 한계를 지적한다.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연구는 현실적으로 중견국 역할을 묘사하고, 중견국 외교의 성공적인 경험을 설명한다. 그들이 자신의 외교 전략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중견국 외교를 달성하고, 국제 관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역할과 방법은 다른 중견국이 할 중견국 역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사례 연구는 중견국 역할의 구현에서 각 국가의 특징을 지적한다. 선행 중견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명백하게 중견국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호주와 캐나다의 중견국 역할을 한국의 상황에 알맞게 취사선택하여 적용한다.

자료 분석 후, 연구는 한국을 동아시아에 위치한 중견국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적인 특징, 상황, 그리고 한계에 관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 후,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특징, 상황, 한계의 프레임 안에서 APT 지역주의에서 한국의 중견국 역할을 제안한다.

제2절 사례 연구 선택

본 논문에서 호주와 캐나다가 국제적으로 이견이 없는 중견국이기 때문에 두 국가의 사례 연구가 선택되었으며, 그들은 분명히 케언즈 그룹과 지뢰 금지 조약의 사례에서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여 성공하였다. 두 국가는 역량에 바탕을 두는 중견국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적극적인 외교와 외교 정책은 자체 중견국의 입장을 스스로 표현한다. 따라서, 중견국을 성공으로 이끄는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특히 정치적 특성 등의 자신의 특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캐나다와 호주 모두 정치와 경제는 대영 제국에 의해 지배되는 영국연방이며, 그에 의해 경제 개발과 민주주의의 수준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조적으로, 한국은 영국연방 국가가 아니며, 남북한 분단이라는는 특징과 영토 분쟁 상황은 호주, 캐나다와는 다르다. 그러나, 한국은 호주, 캐나다와 공통점도 갖고 있다. 특히 경제 및 국제 관계의 측면에서의 공통점은 한국의 중견국 역할 수행의 상황에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연구를 적용하기에 충분하다.

제 4 장 사례 연구

제 1 절 호주의 사례 연구

1. 호주의 중견국

1940 년대 중후반 캐나다 외에 호주가 UN에서 특별한 중견국 지위를 추구했을 때부터 중견국 및 middlepowermanship의 개념은 널리 적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에 호주와 캐나다는 모두 중견국의 권력과 다른 목소리에 무게를 두고 또한 다른 세력들, 특히 미국의 세력을 희석할 국제 기구 구조를 구축하는 일에 강력하고 눈에 띄게 집중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를 구축하고, GATT 등의 제도를 강제하고, 콜롬보 계획 등 남반구의 주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일들은 호주를 중견국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케언즈 그룹(Cairns Group),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RtoP(Friends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핵 군비 축소에 관한 크로스 지역 그룹(Cross Regional Group on Nuclear Disarmament) 등의 많은 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적극성을 띄면서, 호주는 전세계에서 중견국으로 간주되었다.

호주가 다시 중견국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기인 Kevin Rudd의

재임 기간에, 정부는 “빌딩 블록”과 관계된 1997년 8월의 외교 정책 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호주는 UN 시스템과 같은 다자간 기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감을 가져야 한다. 국제기구는 자신의 회원국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 UN 시스템의 범위가 그 역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역량을 겸비한 열망에 필적하는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7)

호주의 중견국 특징 및 역할은 다섯 가지가 있다.

1) 호주의 강력한 외부무

Ravenhill(1998)은 1987년에 호주의 분석 역량과 복잡한 세계적 경제에서의 국가 경제적 목표를 추구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호주는 외부무와 무역부를 통합하였다고 서술한다. 외부무와 무역부의 통합은 호주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외교 관료제를 재형성하였다. 또한, Gareth Evans(외무부 장관)의 힘있는 관리 하에서 정부는 캄보디아, 남극, 핵 실험 금지, APEC, 화학 무기 금지 등과 관련된 다수의 이니셔티브를 내놓았다. Ravenhill(1998)은 각 외무 장관은 외교

정책에서 특히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ALP) 집권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2) 지역적 갈등에 초점을 두고 해결

호주는 캄보디아 충돌, 남극 대륙 대회(Antarctica Convention), APEC, 남태평양 비핵지대의 추진, 북한 핵의 위협, 태평양 제도 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등의 지역 갈등에 초점을 둔다. 또한, 동아시아의 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형성 노력과 관련된 호주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Ravenhill, 1998). 게다가, 호주의 고위 정치인은 최근에 확대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의 형태와 같은 경제 구조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등 아시아-태평양 및 동아시아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총리 겸 외무 장관인 Rudd는 지역 및 글로벌 관심사를 가진 중견국으로 호주를 설명하였다(Evans, 2011).

2013-2014년 호주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Australia's Overseas Aid Program)에 따라 호주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필리핀,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 미얀마, 바누아투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호주의 글로벌 인도적 약속의 지원 안에서 2013-2014년의 예산안에 따르면 4년 동안 약

9억 미국 달러를 제공한다.[3] 따라서 호주는 필요한 외교 정책의 하나로 지역 갈등을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 분야에 집중

호주는 APEC, GATT와 케언즈 그룹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왔다. 왜냐하면 호주는 농업 및 상품 수출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는 단지 새로운 의제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적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다. 1980 년대 후반에, 호주는 세계 경제가 경쟁적인 지역 무역 블럭이 되고, 호주가 아시아, 유럽 및 북미 그룹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에 대해 염려하였다. 호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호주는 호주-뉴질랜드 경제관계 긴밀화협정(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NZCERTA)을 통해 뉴질랜드와, 남태평양지역 무역경제협력협정(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SPARTECA)을 통해 남태평양 포럼과 무역 협정을 맺었다.(Ravenhill, 1998) 또한, 주한 호주대사인 Paterson(2013)에 따르면, 호주의 대사는 전체적 힘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를 고려한다. 그리고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는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며, 국제 사회에서 큰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3]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ausaid.gov.au/Publications/Pages/summary-budget-2013-14.aspx#aidprogram

있는 외교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많은 자금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4) 안보 문제/분야에 참여

미국과 함께, 호주는 남극에서 광업과 석유 시추의 금지를 시작하고, ASEAN지역안보포럼의 새로운 주요 안보 회담을 시작하고, UN의 평화와 안보적 역할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생성하고, 호주 그룹(Australia Group)과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을 수립하고, 핵무기 철폐에 관한 캔버라위원회를 후원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이다(Evans, 2011).

5) 연합 형성

국제적인 제도적 구조 구축은 호주의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이다. 왜나하면 이것은 중견국과 다른 국가의 목소리에 크게 기여하고, 미국 및 기타 강대국에 의해 행사될 권한의 일부를 희석할 수 있다(Evans, 2011). 호주는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유사입장국가에 주목한다. Evans(2011)의 접근을 통해 유사입장국가들과 연합의 형태는 탈냉전 세계에서 다른 국가들과 호주의 외교를 구별하는 주요 특징이 되었다. 이 개념은 외무 장관 Tony Street(CPD House, 1981)의 말을 통해 볼 수 있다. 중견국의 역할에서, 호주는 함께 행동하는 국가의 블록 및 국제 기구에서의 양자 및 다자간 외교를 모두 포괄하는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APEC, 케언즈 그룹, G20 등 호주가 연합 기관을 구축한 사례가 다수 있다.

2. 중견국으로서 케언즈 그룹에서의 호주의 역할과 전략

본 논문에서는 Richard A Higgott와 Andrew Fenton Cooper(1990)의 “Middle Power leadership and coalition building; Australia, the Cairns Group, and the Uruguay Round of trade negotiation”라는 이전 연구를 통해 케언즈 그룹에서의 호주의 중견국 리더십을 살펴보자고 한다.

1) 케언즈 그룹의 목표와 특징

Higgott와 Cooper(1990)는 특히 미국과 EU가 국제 농업 무역 시스템의 지배적인 행동주체가 되는 불균형 국제 정치-경제 시스템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호주가 이끄는 케언즈 그룹에 의해 어떻게 도전을 받는지 설명하였다. Gilbert Winham은 GATT 협상 하에 이전 라운드들에서의 의사 결정 피라미드 구조는 만연했고, 미국과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가 협상 의제를 설정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Higgott & Cooper, 1990, 재인용). 결과적으로, 이 만연한 모델의 수정이 필요하다.

1986 년에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우루과이 등을 포함하는 공정 무역 국가에 관한 케언즈 그룹은 국제 농산물 무역의 주요 개혁을 견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989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6번째 케언즈 그룹 장관급 회의에 따르면, 각국 장관들은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세계 개혁과 농업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포괄적인 케언즈 그룹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포괄적인 제안은 공정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과 원칙에 근거하여 개방적이고 공평한 거래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한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4]

1. 시장 접근 기회와 국경 보호 대비의 투명성에 상당한 개선,
2. 새로운 수출 보조금의 금지와 기존 수출 보조금의 철회
3. 농업에 제공되는 내부 지원의 상당한 감소와 규제
4. 다자간 합의 조항을 통해 상계관세 절차에 관한 광범위한 규제와 모든 무역 개혁 의무 적용
5.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농업 무역 개발 차원의 정교화
6. 제안된 개혁 과정의 요소에 통합된 개발도상을 위한 특별 대우에 대한 양식

[4] Cairns Group,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cairnsgroup.org/Pages/min06_statement.aspx

그룹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룹이 북쪽, 남쪽, 동쪽 및 서쪽의 전통적인 지정학적인 기준의 관점에서 분류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케언즈 그룹은 각기 다른 경제개발 수준과 다른 정치체제를 가지는 이질적인 국가들의 그룹이다. 그러나, 특정한 하나의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그들을 함께 묶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각 케언즈 그룹 국가들은 총 수출에서 농산물 수출이 높은 비율(18%-73%)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케언즈 그룹의 모든 회원국은 세계의 농업시장의 대다수에서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농업 무역에서의 부자유의 심화와 특히 미국 및 유럽공동체의 정책에 의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시기로 1980년대를 규정한다. 그들은 미국과 유럽 연합의 시장 접근 거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경쟁적인 보조금 강화로 인해 보다 커진 위협에 직면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소 농업 무역 국가는 점점 실제적인 피해자로 자신을 인식하였다.

2) 호주의 강점

호주와 캐나다 모두 중견국으로 여겨졌지만, 호주는 그룹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케언즈 그룹에서 캐나다의 노력이 미묘하고 양면적으로 나타난 반면, 호주는 연합 구축 및 유지 보수 과정에서 중요한 지식인이자 지도자의 위치를 가정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이 국제곡물협정 하에서 맺은 가격 계약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해 미국

생산물의 증가를 통해 위협할 때, 호주와 캐나다 모두는 체제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책임의 큰 짐을 떠안았다. 그러나 캐나다에 비해, 호주 외교는 적극적이었다. 특히 농업 무역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또한, 호주는 주요 행동주체의 정책이 정권의 규범과 상충될 경우, 다자간 포럼의 로우키(low-key) "도움을 주는 해결사"의 역할보다는 주요 행동주체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었다(Renouf, 1979).

캐나다의 무역의 약 80%는 미국과의 무역이다. 그 결과, 캐나다는 호주보다 하나의 거래 파트너에 의존도가 높다. 또한,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더욱 다변화된 경제와 높은 인당 GNP를 갖는다. 따라서 국제 정치경제에서 농업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보면, 무역 긴장에 대한 캐나다의 노출은 호주보다 훨씬 적게 나타난다. 호주는 자원의 수출에 더욱 의존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농업 수출(쌀, 설탕, 곡물, 유제품, 육류 등의 수출) 하에서 시장 접근의 거부와 농산물의 경쟁적인 보조금에 대한 취약점이 더욱 크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호주는 오히려 캐나다보다, 농업 무역 개혁의 목적을 위한 광범위한 국제 연합을 동원하는 노력에 분명한 이익을 갖는다 말할 수 있다. 또한, 호주는 농업 문제에 대한 유사입장을 갖는 일부 국가들과 오랜 시간 구축된 이익과 목적의 공통성을 갖고 있다.

3) 호주의 역할과 전략

케언즈 그룹 설립 전, 호주는 저개발국으로부터의 호의를 축적할 수

있었다. 1958년에 영연방 무역 경제 회의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를 위한 계획은 호주 무역 장관 John McEwen에 의해 제안되었다. 또한, 호주는 저개발국이 특별한 이익을 갖고 있는 범위의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 측면에서 일부 저개발국에 특혜를 부여할 수 있도록 면제안을 GATT에 발의하였다. 호주는 저개발국가들이 무역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호주는 농업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있다. 1980년대에 호주의 농업경제국은 농업에서의 보조금과 보호의 비용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모으고 분석하는 일과 보호 정책의 단기 이익에 반대하고 공정한 무역 시스템의 장기적 목표에 호응하는 주장들을 모으기 위해 이 정보를 널리 알리는 일의 선두에 섰다. 실제로, 연구는 양자간 맥락 및 다자간 무대 모두에서 외교적 도구로 명시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생산자 보조금 등가물의 개념은 호주가 이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1986년에 호주는 공식적으로 장기적으로 공통한 관심사를 표명하는 그룹을 생성하기 위해 케언즈 회의에서 선택한 14개 국가의 장관급 대표를 초대하였다. 호주는 그룹의 프로필과 역량 구축에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였다. 또한, 느슨한 협조 메커니즘을 통해 그룹 구성원의 활동에 일관성을 주고 통합하는 것이 호주에게는 필수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능과 부담을 가지는 호주를 그룹의 관리자로 여길 수 있다. 다른

멤버에 비교하면 호주는 다자간무역협정에 많은 투자를 지속하고자 했다. 따라서 호주는 그룹의 지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

충분히 상당히 숙련된 다자간 무역 관료를 가지는 호주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업 관련 협상 패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GATT 협상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몇 안되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호주는 미국과 유럽공동체와의 섬세한 협상 과정에서 그룹의 증분 및 접근 방식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행동주체이다. 신뢰구축 기술을 채택하면서, 호주는 협상에 유용한 행동주체를 설득하고 정지 및 롤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얻을 수 있었다. 1986년 9월에 그룹은 GATT 의제에 농업을 위한 중심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룹에 여러 가지 내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호주는 그룹의 협상 수요 뒤에서 원동력이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연합의 중재자이자 안정자였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일부 사례에서 그룹의 다른 회원에게 농업 정책의 측면에서의 활동 정보 제공에 실패하였다. 호주는 저개발국에 대한 전반적인 외교 정책과 일치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저개발국의 외부 시장과 국내 지원제도를 위한 차별화된 사례를 주장하였다. 결국, 호주는 그룹의 의제를 확대하고 비농업 문제를 포함하자는 브라질의 압력을 거절하면서 연합의 단일 문제를 향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문제는 그룹 내의 캐나다의 위치에 대한 것이다. 다른 회원국은 캐나다를 국제 캠페인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캐나다를 무임승차자로

보았다. 더욱이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은 다른 회원국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룹 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호주는 더욱 단정적인 저개발국과 신중하고 반항적인 캐나다의 타협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호주는 저개발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 대우에 대한 생각이 그룹의 정책문에서 입지를 굳혀야 한다는 생각을 회의적인 캐나다인에게 납득시킬 수 있었다.

요컨대 호주는 지적인 지도자와 기술적 지원 공급자 및 그룹의 정치적 의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요한 점은 호주의 다자간 무역 관료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케언즈 그룹에 대한 지원 문서와 논증을 제공해왔는 것이다. 또한, 호주의 기술적 역량은 그룹의 협상과 그룹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저개발국, 서부 동맹, 뉴질랜드 및 미국, 일본과의 호주의 외교 관계는 호주의 그룹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룹의 목표도 지지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넘어, 현대 국제 질서를 깊이 이해하는 호주는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990년에 Higgott 와 Cooper는 “Middle power leadership and coalition building: Australia, the Cairns Group, and the Uruguay Round of trade negotiation”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농업 문제는 원래 우루과이 라운드의 15가지 주제 중

하나였으며[5], 농업협정은 결국 호주와 케언즈 그룹의 시도가 이루어 낸 성과이다.[6]

제 2 절 캐나다의 사례 연구

1. 캐나다의 중견국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자신이 중견국이라 주장하는 최초의 국가이지만, 호주에 비해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특히 1980 년대 후반과 1990 년대 초반에, 중견국의 행동주의를 앞당기는데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캐나다의 외교는 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매우 뛰어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견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캐나다의 특성과 지뢰 금지 조약에서의 캐나다의 역할을 살펴본다.

다수의 연구[7]에 따르면, 캐나다는 중견국 개념을 선제적으로 만들었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중견국으로 간주되었다. 캐나다의 Lester

---

[5]World Trade Organization.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fact5_e.htm

[6] Cairns Group. (2013 년 10 월 3 일 확인) http://cairnsgroup.org/Pages/min15_communique.aspx

[7] 1.) Immanuel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2.) Carsten Holbraad,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4). 3.) Donald Puchala and Roger Coate, "The Challenge of Relevance: The United Nations in a Changing World Environ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cademic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1989, Ottawa, Canada). 4.) R.A. MacKay, "The Canadian Doctrine of the Middle Powers," in Dyck and Krosby (eds.), Empire and Nations (Toronto: University of

Pearson 과 Pierre Trudeau 가 국무총리로 집권하던 시기의 대부분에서, 캐나다는 국제적으로 활동적인 행동주체로 남아있었지만, 일부 동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작은 충돌을 제거하는 일에 도움이 된 중재자와 조정자로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중개인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많은 노력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국제 체제의 협상 하에서 기술적인 막후에 투입되었다(Chapnick, 2000). 국제적으로, 캐나다는 정보 기술 및 통신 수단의 혁신자으로 인식되며, 또한 다른 국가보다 멀고 빠르게 그 아이디어를 전파할 수 있다(Potter, 1996). 중요한 것은, 외무부 장관인 Lloyd Axworth 는 캐나다의 중견국 외교는 항상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중견국 외교는 항상 연합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캐나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Chapnick, 2000). 캐나다는 중견국으로서 네 가지의 특징과 역할을 갖는다.

1) 캐나다의 강력한 외부무와 캐나다인의 영향

캐나다의 외부무는 현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힘을 가진 외교부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Soward, 1963). 호주와 유사하게,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잡해지는 세계 경제에서 국가의 경제 목표를 잘 추구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외교부와 통상부는 1982 년에 합병되었다.

Toronto Press, 1969).

나아가, Stephen Lewis(유니세프 사무차장)[8], Donald Johnson(UN 사무총장), Elizabeth Dowdswell(국제 연합 환경계획 책임자)[9], Bill O'Neil (국제해사기구 책임자)[10] 등과 같이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캐나다인이 있다(Potter, 1996).

2)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

1996 년 초에, 외무부 장관 Lloyd Axworthy 는 인권과 특히 어린이의 복지 등을 강조하면서 캐나다의 외교 정책에 사회적 우려를 주도적으로 재삽입하고 추진하였으며, 국제 및 국내 문제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였다(Potter, 1996). 실업, 전염병, 환경 파괴 등의 최근의 문제는 국제 협력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족 국가가 단독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국제 협력의 확대가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입과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의 초기인 2000 년에, 캐나다는 1990 년대에 벌어진 대량 학살의 지속적인 공포와, 르완다와 발칸의 다른 대량 극악 범죄에 반응하였다(Chapnick, 2000). 결과적으로, 그것은 국제 정의, 공정, 법의 역할에 대해 봉사한다는 외교 사상에 높이 가치를 두는

[8]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9]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10]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나라로 계속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하였다. 국제 환경의 측면에서, 캐나다는 1987 년과 1988 년에 오존 수준 및 대기에 대한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다(Ravenhill, 1998).

정부 외에, 캐나다의 비정부기구도 국제 개발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토론토 기반의 Walter and Duncan Gordon Charitable Foundation 은 북극 이사회의 발전에 1 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또한 이 단체는 의회 검토에 앞서 캐나다의 안보 목표를 위한 비정부기구의 청사진을 제공하기 위해 The Canada 21 report 에게 기금을 제공하였다. 또한, Charles Rosner Bronfman 이 설립한 몬트리올 기반의 CRB 재단(CRB Foundation)은 중동의 아랍인과 유대인 간의 이해를 촉진해왔다(Potter, 1996).

따라서, 캐나다는 윤리적 의제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를 견고히 할 수 있다. Chapnick(2000)는 "인간 안보 의제의 추진은 국제 사회에서 캐나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제 2 차 세계대전 후 진정한 중견국의 위상 달성을 실패한 이후에 보다 높은 권력 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안보 영역에서보다 국제 경제 및 사회 정책 입안 영역에서 비교 우위

캐나다는 안보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린다는 일부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가 참여를 원하지 않아 The Contact Group(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1994 년에 제외되었다. 그러나 캐나다는 G7, Quadrilateral Group, OECD 등 가장 배타적인 모든 경제 포럼의 중요한 구성원이다(Potter, 1996). 또한, APEC 과 케언즈 그룹을 통해 무역 자유화의 진행을 강화해왔다. 1980 년대에 더욱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화된 국내 정책을 채택하였다(Ravenhill, 1998).

4) 미국과의 동맹

지리와 경제는 캐나다와 미국을 함께 묶는다. 미국의 전 대통령 Abraham Lincoln 의 말과 같이, 캐나다의 국무총리는 "물리적으로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고 다시 말하였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 대통령인 John F. Kennedy 는 "지리는 우리를 이웃으로 만들었다. 역사는 우리를 친구로 만들었다. 경제는 우리를 파트너로 만들었다. 그리고 필요성은 우리를 동맹국으로 만들었다. 자연이 결합하게 만든 것은, 사람이 산산이 쪼갤 수 없다."고 오타와에서 두 국가의 상호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Soward, 1963). 또한, 캐나다의 무역은 미국의 시장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캐나다는 미국의 후원 하에 적극적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선제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그 결과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중견국으로서 지뢰 금지 조약에서의 캐나다의 역할과 전략

“Uncharted Ground: Canada, Middle Power Leadership, and Public Diplomacy”에서 Baxter & Bishop(1998)은 Cooper et al.(1993)의 중견국 유형학을 통해 지뢰 금지 사례 연구에서 캐나다의 역할을 분석한다.

지뢰는 1970 년대부터 국제 무대의 주요 화제가 되었지만, 제조, 비축, 또는 광산의 판매를 규제하는 국제 조약이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 그러나 캐나다는 Lloyd Axworthy 가 외무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조약의 체결에 있어 빠른 진전이 있었다. 1997 년 12 월 2 일부터 4 일까지, the Global Conference to Ban Landmines in Ottawa 는 158 개국, 189 개의 비정부 기구, 13 개의 국제기구가 모여 개최되었다. 이것은 국제 체제에서 캐나다의 위상을 구축하는 혁신적인 외교 과정의 “정점”을 확인한다.

중견국 행동 모형의 3 단계 중 두 단계인 촉매와 촉진자는 지뢰를 금지하려는 노력에서 캐나다의 역할에 적용된다. 게다가, Baxter&Bishop(1998)은 사례에서 캐나다의 리더십을 논하기 위해 조력자의 역할을 사용한다.

1) 촉매로서의 캐나다 (유사입장국가와 비정부기구의 연결고리를 구축)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많은 강대국이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일부는 지뢰생산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캐나다는 주요 참가자가 되었으며, 오타와 과정의 지원을 위해 조용히 다른 국가들에게 로비하는 일에 정치적이고 외교적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1996 년 4 월과 5 월에 열렸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검토 회의의 세 번째 세션에서, 핵심적인 참가자 중 하나로서 캐나다의 행동은 국제 캠페인의 미래 성공에 연결된 궁극적인 리더십 역할의 발판을 마련했다.

2) 촉진자로서의 캐나다 (네트워크 구축 및 세계적 다자주의)

오타와 컨퍼런스에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캐나다 대표단의 노력이 있었다. 촉진하는 방법의 과정을 네 가지 요소로 분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제 적십자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와 비정부기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것을,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 (비정부기구와 협력) 실행에 사용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국제지뢰금지운동(International Compaign to Ban Landmines; ICBL)은 비정부기구(특히, 목표 국가의 비정부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공식적인 연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들은 언론에 호소하고 편지쓰기 캠페인을 관장함으로써 대상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양국간주의 및 다국간주의을 통해 이러한 네트워크를 전통적인 외교와 함께 보완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국제 수준에서 전통적인 양자적이거나 다자적인 채널을 통해 다른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외교 관계를 활용하였다. 세 번째는 금지 조약을 발표하는 것으로 국제적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도전과제는 1997 년 말까지 지뢰 금지 조약의 체결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Axworthy 의 말은 잘 정의된 목표를 나타낸다. 잘 정의된 목표는 명료한 목표의 진술, 성취의 타임 라인, 명확한 언어를 갖는다. 네 번째는 세계 규모의 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슈를 다루는 다수의 회의가 1997 년에 있었다.

3) 상승제로서의 캐나다 (국제 외교의 규칙을 재설계)

캐나다는 비정부와 정부의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상승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ICBL 의 코디네이터인 Jody Williams 는 캐나다가 1996 년 10 월 5 일에 발표된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ICBL, 비정부기구, UN 기구들과 함께 일할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국제 체계에서 정부와 비정부 행동주체 간의 협력인 새로운 "공공 외교"를 채용해왔다.

그것은 캐나다의 리더십이, 특히 공공 외교의 선도적인 접근법이 이 조약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호주와 캐나다의 중견국 역할은 한국이 배우고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 캐나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정치 및 경제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호주와 한국은 경제적 공통점이 있다. 호주의 GDP 는 전 세계 12 위이며, 한국은 15 위이다. 뿐만 아니라 두 국가는 OECD 와 G20 의 회원국이고 APEC 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두 국가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출현,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 식량 안보나 기후 변화와 같은 비안보적 문제를 직면하는 등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두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지리, 문화, 역사 등의 측면에서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호주의 두 국가간 중견국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남북한 분단의 독특성과 특징은 호주와 캐나다는 다르다. 또한, 두 국가는 한국과는 달리 다른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이 없다. 북한의 위협과 영토 분쟁 등의 한반도의 안보는 한국의 외교 정책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견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한국의 중견국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제 5 장 분석: 아시아 지역주의에서 한국의 중견국 역할

제 1 절 중견국으로서의 한국

첫째, 한국은 중견국임을 정의하고, 이미 중견국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논문은 한국이 중견국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Robertson(2007)는 한국의 외교 정책적인 행동과 역량 수준 모두에 기반하여 볼 때, 대표적인 중견국이라고 서술한다. 역량 수준은 물리적 역량(국토 면적, 지리적 위치, 천연자원 등), 경제적 역량(GDP, 노동, 교육 등), 그리고 군사적 역량 (군사력, 기술, 리더십, 국민성 등)를 포함한다. 본 논문은 기존 중견국 이론에 따라 한국을 중견국으로 정의한다.

1. 역량

Neack(1992)에 따르면, 중견국의 지표에는 일인당 국민총생산(GNP/GNI per capita), 일인당 군사비, 인구, 유아 사망률, 성인식자율 등이 포함된다. 2012년에 한국 인구는 세계 26위, 약 5천만명이다.[11] 또한,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 따르면 한국의 GDP는 2012년에 가치가 1조 1296억 미국 달러이며,세계 랭킹은 15위

[11] World Bank.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

이다.[12] 2012년에 GNI(Gross National Income)가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1조 1,338억 미국 달러이며[13], 그리고 고소득 국가로 세계에서 26위를 차지한 인당 국민 소득(이전 GNP 인당)은 22,670달러이다.[14] 그 결과로, 그것은 Wood(1987)가 중견국의 GNI 수준이라고 한 6위-36위 안에 속해 있다.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DP)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유아 사망률(0-1세 사망률)은 1,000명에 5명이다.[15] 또한, 성인식자율 (15세 이상 읽고 쓸 수 있음)은 2002년에 97.9%이다.[16] 2012년의 한국의 군사비는 31.4억 미국 달러이며[17],2010년 인당 군사비는 569달러이다.[18]

세계 경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기 때문에 한국은 중요한 행동주체가 된다.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PEC, OECD, G20 과 같은 중요한 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또한, 한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2010),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2011), 서울

---

[12] Trading Economics.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dp
[13] World Bank.(2012).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databank.worldbank.org/data/download/GNI.pdf
[14] World Bank.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CD
[15]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from http://esa.un.org/unpd/wpp/Excel-Data/mortality.htm
[16]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4 년 1 월 6 일 확인)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s.html
[17]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portal.sipri.org/publications/pages/expenditures/country-search
[18]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milexdata.sipri.org/

핵안보정상회의(2012)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다양한 외교 회의에서 인상적인 역할을 하였다(Kim, 2013).

한국은 자신을 동아시아 국가로 인식하고, 북한의 위협과 강대국 사이의 지역적 경쟁은 한국이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 왔다. 최근 미국과 EU 의 경제는 극적으로 악화되는 반면, 동아시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중국도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등 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지역적 상황을 주시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는 중국, 일본, ASEAN 국가들 등의 지역 파트너에 크게 의존한다.

한국에는 인간 중심 사상의 발전이 있다. Robertson(2007)은 민주적인 제도 강화(법의 지배, 기업소유구조, 선거법 개혁)와 사회적 분열의 감소(인종, 성별, 성적 취향, 장애인의 권리) 등의 구성적 개혁을 언급한다.

2. 외교

냉전이 끝난 후, 한국의 상황은 정상이 되었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기회가 증가하였다. 제 15 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햇볕 정책은 세 가지 경향으로 인해 대표적인 중견국 외교 정책 행위라고 Robertson(2007)은 서술한다. 첫째, 햇볕 정책은 특히 북한 등과의 국제 분쟁 타협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다. 이것은 이전의 한국의 정부들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둘째, 햇볕 정책은 북한의 전복 대신에 현상유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햇볕 정책은 북한과 제 3 국의 관여를 장려하기 위한 외교 이니셔티브의 형태로 중견국 행동주의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북한을 외교적 고립의 완화로 이끌었다.

Wood(1987)에 따르면, 중견국은 강대국에 비해 국제적인 수준의 정치경제적 이슈보다는 국내와 지역의 정치경제적 이슈에 보다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들의 지역 내에서 주로 관여하는 것 중 하나는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가까운 강대국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것들이다. Cooper et al.(1993)은 중견국은 국제 문제에 있어 다자간 해결책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 국가가 이끄는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드라이브는 중요한 중견국 외교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주의를 추진하는 한국의 역할은 중견국의 외교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아시아 지역주의에 관계된 다수의 한국의 외교 정책을 살펴보았다. 햇볕 정책에서 나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 비젼그룹(East Asia Vision Group; EAVG)과 동아시아 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 EASG)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AVG와 EASG는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견고한 수단과 액션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안한 EAVG는 1998년 12월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비공식 APT 정상 회담에서 설립되었다. 또한, EAVG의 권고를 평가하고 APT 지도자에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EASG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확대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상회담의 가치와 영향을 이끌 수 있다. 또한, 브루나이, 중국, ASEAN의 회원국 회의에서 10년 내에 자유 무역 지대를 설립할 계획이 시작되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든 APT 회원국을 포함하는 자유 무역 지대를 제안하였다(Stubbs, 2002).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다른 기념비적인 지역 이니셔티브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협력 이니셔티브(Northeast Asia Cooperation Initiative for Peace and Prosperity)이다. 이러한 노력의 목표는 1) 지경학적 이점으로부터의 경제적 기회 획득, 2) 분야를 불문하고 북한과의 연계 확장을 통한 남북한의 계속되는 안보적 문제의 해결이다(Nuangjamnong, 2007).

제17대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국이 외교와 국제 협력에 주목하는 것을 증명하는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의 슬로건과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글로벌 코리아"의 슬로건은 이러한 G20 서울 정상 회의,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 및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의 한국이 주최한 국제 회의로 표현된다(Lee, 2012).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64차 유엔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렸다.

"녹색기술의 개발과 국제협력은 기후변화 대응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G8 확대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전환기술 선도국가로 지정된 스마트 그리드 분야를 포함하여 녹색기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얻는 혜택을 온 인류와 함께 나눌 것입니다."(외교부, 2009)

또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에 따라 2,000억 원을 제공한다(외교부, 2013).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비전을 통해, 한국의 일반 대중과 국제적 사회에 대한 현 정권의 관심이 표현되고 있다. 중견국의 용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근혜의 중견국 정책이 드러난다. 또한, 박근혜는 외교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의제보다 외교 관련 의제에 우선순위를 둔다(Park, 2012).

제 2 절 아시아 지역주의(APT)에 있는 한국이 제도적 중견국 역할을 수행할 이유

1. 한국의 아시아 지역주의 구축 필요성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의 특성인 동시에 한국의 장단점이 된다.

Choi(2009)는 한국이 점차 중국과 일본에 의해 위협받는 것을 느낀다고 서술한다. 중국에의 경제 의존과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한국의 주요 우려 사항이다. 중국이 부상하는 시기에,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타협을 지원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석 외교관은 Asia Times Online 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생각하면, 중국은 서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Takahashi, 2012).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통제불능을 인지함에 따라,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지역적 정치에서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Choi, 2008). 또한, 영토 분쟁은 여전히 이 지역에서 큰 문제이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한국명) 또는 다케시마(일본명)의 주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다른 분쟁과 함께, 치열한 논쟁점으로 남아 있다. 독도는 현재 한국에 의해 관리되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일본의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발표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시위와 항의를 일으켰다. 이것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으며, 불만족스럽고 비우호적인 FTA 협상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안보 위협은 한국이 오랫 동안 해결을 시도하는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미국과 다른 이웃국가들이 북핵 6 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북핵 6 자회담의 제도적 약점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북한의 핵 문제는 현재 중국의 레버리지로의 활용과 미국의 당근과 채찍 접근방식에도 불구하고 교착 상태이다(Choi, 2009).

북한의 문제와 영토 분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외교 정책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외교 정책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Robertson(2007)은 한반도의 독특한 안보 상황은 외교 정책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발전시키는 한국의 역량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새로운 해결책을 추구할 필요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의 개선을 위한 자극도 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이 참여한 북핵 6 자 회담을 통해 북한 위협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 위협 협상의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지역의 평화를 원하는 다른 참여자가 필요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지속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의 안보 프레임워크에 포함될 수 있다(Choi, 2008). 결과적으로, 북한 문제와 영토 문제 모두 양자적으로 해결될 수 없지만, 지역기구 또는 지역주의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있다.

냉전 기간에, 한국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모두 연관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는 한국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외교 중 하나이지만, Choi(2009)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만으로는 한국의 안보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미국의 전 국방장관 Robert Gates 에 따르면, Barack Obama 행정부 후, 미국은 북한이 핵확산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북한의 사실상의 핵전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 그 결과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불완전한 핵 협상에 타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갖는다(Park, 2013).

2. APT 지역주의의 가능성과 중요성

앞서 한국이 지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APT 지역주의는 평화적이고 영구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대안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안보 문제의 해결책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다음 부분은 APT 지역주의의 가능성 및 중요성과, APT 지역주의를 이끄는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의 역량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정치와 행정적인 연관 관계는 확실히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다수 드러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분명히 진화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Stubbs(2002)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진행의 이유를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첫째, 일본 군국주의의 대두와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일본의 지역적 확장,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지역 차원의

경제 및 사회적 혼란, 식민주의의 지속적인 침해와 아시아 민족주의의 대두 등 유사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 또한, 1950년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의 지역 내 두 개의 주요 전쟁은 냉전의 최전선으로 동아시아 국가를들을 내몰았다. 둘째, 유럽과 북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동아시아 국가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이 지역의 특성으로 식별되는 일반적인 문화적 특성이 있다. 정치 전문가인 Pye(1985)에 따르면 동아시아 사회 전반에는 가족, 지역 사회적 조화뿐 아니라 의무, 계층 구조의 수용과 권위에 대한 존경 등을 중시한다. 셋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지향적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개입적이고, 촉진적이며, 성장기의 국가들이 되어 왔다.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부 경쟁으로부터 특정 산업을 보호한다. 넷째, 동아시아 자본주의는 법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다섯째, 동아시아 자본주의는 이 지역 전체를 휩쓴 해외직접투자의 홍수에 의해 강화되었다. 교차 투자 패턴은 수 십 년 동안 지역 경제의 밀접한 연결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Funabashi(1993)가 “아시아의 의식과 정체성”이라 칭하는 부분의 성장이 있다. 물론 동아시아의 지역화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공식적인 기관의 설립에 앞설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특히 아시아 금융 위기 등에 의해 지역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면서 등장하였다. Chung(2013)에 따르면, ASEAN은 정부의 지도자, 장관, 또는 고위공직자 급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세 대화 파트너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

2000년, 회원국의 재무 장관이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모여, APT는 주요 경제 통합 기능을 시작하였으며, 개별적으로 협상된 양자간 통화 스왑 협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CMI의 형태로 동아시아의 금융 통합의 시작을 표명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APT의 협력은 정치와 안보, 다국적 범죄, 경제, 금융, 통화, 농업과 임업, 에너지, 광물, 관광, 보건, 노동, 문화와 예술, 환경, 과학과 기술, 정보통신기술, 사회 복지, 농촌 개발과 빈곤 퇴치, 재해 관리, 청소년, 여성, 기타 이슈 등 20개의 분야로 설명된다(Arase, 2011).

또한, ASEAN의 목적은 국가 주권의 존중, 불간섭주의의 다짐,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약속에 대하다. ASEAN의 의제에 따라, 기본적인 원칙은 ASEAN의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 자유, 평화, 중립지대정책(Southeast Asian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 동남아비핵지대조약 (Treaty on the Southeast Asian Nuclear Weapon-Free-Zone)등과 같은 문서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안보 문제는 APT 지역주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지역 안보를 다루는 다른 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년이 이상의 기간 동안 ASEAN은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안보 지역주의의 주요 결정점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ASEAN은 국가간 신뢰 개선과 평화로운 변화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경제적 성과를 개선하고 강제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적인 체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Friedrichs, 2012).

3. 타국가들 대비 APT 지역주의의 리더가 되기에 적합한 한국

타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은 APT 지역주의의 주도권을 잡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ASEAN 국가들은 각각 내부적인 문제들, 특히, 비민주적 정치적 구조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또한, ASEAN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초기 회원국 다수는 기관을 갱신하고 재활성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반면, 신규 회원국들은 가입 시에 사인한 원칙으로부터 ASEAN이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현상유지를 원한다. 또한, 정치적 발전(민주주의)의 국가별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다. ASEAN에 필요한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부여하는 시도의 결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핵심 회원국들로부터 경제 위기와 인권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의 업무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양상이 있다(Stubbs, 2002). ASEAN 국가들은 이제 자유화보다 경제적 협력, 내부 통합보다 외부 연계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Choi, 2009). 그 결과, 주도권을 잡기에는 여전한 취약점들과 각국의 국내 문제 때문에 한국 외의 ASEAN 국가들은 APT 지역주의의 지도자 되기에는 제약이 있다.

중국은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은 ASEAN과 FTA의 체결을 추진한 최초의 나라이고, 이후 일본,

미국, 인도, 한국이 중국의 뒤를 따랐다(Yunhua, 2013). ASEAN 국가의 경제는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ASEAN은 중국의 경제 호황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중국은 그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ASEAN을 지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2003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에 관한 공동 선언"은 프놈펜에서 열린 중국-ASEAN 정상 회담에서 등장하였다. 중국은 TAC에 응했으며 최초로 군사간 회담을 제안한다 (Medeiros & Fravel, 2003).

그러나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경제, 자원, 영토의 크기 등의 측면에서 중국만큼 강력하지 않지만, 미국, 일본과 보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주권에 민감하며(Choi, 2009), 그리고 중국은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와의 남중국해 분쟁, 일본과의 다오 또는 센카쿠 제도 분쟁, 대만과의 갈등 등 이웃 국가들과 많은 영토 분쟁이있다. ASEAN 국가들과 중국의 영토 분쟁은 ASEAN 국가들이 이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새로운 정책의 목표는 토지와 해역의 보전과 통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ASEAN 국가들은 모두 작고 약하며, 그들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독주를 원치 않으며, 그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ASEAN의 이익을 해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손상될 것을 우려한다(Yunhua, 2013). 또한, 특히 대만 문제 등 중국의 안보 문제는 제한적인 군사적 투명성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제한적인 군사적 투명성은 중국이 신뢰 구축의 조치를 추진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준다.

중국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중국은 국내 문제에 많은 초점과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중국은 ASEAN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지만, 중국과 ASEAN은 모두 세계의 중요한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ASEAN의 경제적 경쟁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일부 ASEAN의 정부 관료들과 학자들은 ASEAN 국가들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중국보다 적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은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혜택을 얻는다고 믿는다. 그 결과, ASEAN은 특히 농업 부문에서 불공정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Breckon(2001)은 중국의 임금은 거의 모든 동남아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ASEAN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FTA에서 이익을 얻을지가 불분명하며, 그러므로 ASEAN은 그들 자신의 늘어나는 노동력을 위한 내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자본을 수출하는데 주저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가져왔다. 기러기편대이론(Flying Geese Model)을 통해, 일본은 특히 기술 개발에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를 지원하는 선도적인 거위의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 Yunhua(2013)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적 이익은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1970년대에 동남아시아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각종 기금을 설립하고, 일본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을 동남아시아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양국간 문화 교환, 인적 교류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발해왔다.

즉,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은 캄보디아의 평화 증진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동티모르의 평화 유지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근에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보다 메콩강을 따라 위치한 국가들에 많은 초점을 두고 이 지역의 가장 큰 원조국이 되었다.

또한, 일본은 미얀마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후쿠다 교리도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는 일본을 더 이상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APT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중국에게 보다 환영을 받는다. 일본 제국주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지도자로 환영받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일본과 중국은 역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리더십 경쟁 때문에 두 국가 모두 심도 있는 지역주의에 관심이 없고 협력할 수 없다(Choi, 2009).

중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각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에서 일본보다 낮은 재정적 기여를 받아들이기 꺼려했다. Chung(2013)에 따르면, 그 결과로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합의에 유리하도록 APT의 기존 회원국의 수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영향력있는 농업관계자의 로비 등 일본 내의 저항으로 인해, 일본은 농업과 어업 제품을 수입하는 ASEAN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대형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지도 원칙으로 인적 안보의 보호를 사용한다. 그러나 권한이 정부보다는 국민의 안보에 우위를 부여하는 보여주는 개념은 국경 방어 및 국내 반란에 더 큰 관심이 있는 동남아시아의 지배계층 엘리트에 의해 지지받는 국가 안보 개념을 불편하게 만든다(Arase, 2010).

미국을 살펴보면, APT가 미국을 제외하기 때문에 미국은 APT 지역주의를 지지하기 보다는 견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미국은 APT의 성공을 중국의 부상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 주권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2009).

또한, 미국이 포함된 APEC은 다수의 문제가 있다. APEC의 주요 문제는 무역 자유화에 대한 결합과 포괄적인 목표를 원하는 영미(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경제와 무역 촉진과 경제 및 기술적 협력의 확대를 원하는 아시아(특히 중국, 말레이시아) 경제의 분열이며, 이는 이미 명백해졌다(Stubbbs, 2002). 또한, Ravenhill(1998)은 APEC은 유럽

연합과 같은 지역기구 보다는 아시아-유럽 간의 회의와 유사하게 초지역적 기구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의 영향 하에서, APEC과 같은 기구는 동아시아 회원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

한국은 지역 정치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베트남 전쟁 기간에 한국의 경제가 독립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에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시작하고 촉진하였다. 1987년에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나라 중 하나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진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중심수단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지역주의에 대한 접근은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부터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ia and Pacific Council; ASPAC)라는 잘 알려진 지역기구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EAVG와 EASG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AVG와 EASG는 협력의 폭을 넓히고 견고한 수단과 액션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한 다른 기념비적인 지역 이니셔티브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2003년에 노무현 정부는 자유 무역 협정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그 안에 20개 이상의 국가와의 FTA를 활발히 추진하려는 의지를 명백히 서술하였다(Nuangjamnong, 2007).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서 동아시아를 대표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한국

외교의 중점을 확대하고, 한국의 정치적 관심을 경제에서 안보, 문화, 녹색 이슈, 개발으로 확장하겠다고 선포하였다(Arase, 2011).

결과적으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축에서 동남아시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한국이 오랜 시간 지역주의를 이끌어 온 역사는 다른 국가에게 만족스럽고 존경할 만한 리더가 되고, 아시아 지역주의에서 숙련된 리더가 되도록 미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또한, 역사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추진에 유리한 입장을 갖는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소 국가들과 많은 불쾌한 경험을 공유한다(Nuangjamnong, 2007). 이러한 경험은 20 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냉전, 1997 년 아시아 경제 위기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APT 공동체에서 정치경제적 특징이 있다. 한국은 중국 또는 일본과 비교하여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그 영향력은 보다 크다. 한국은 다른 ASEAN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안보적 이익도 얻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ASEAN 과 한국이 협력한다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은 국토가 좁고 자원도 부족하고 인건비가 높지만 월등히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국가들은 낮은 임금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진다(Arase, 2011). 그래서 이러한 협력은 한국과 ASEAN 모두에게 이롭다. 또한,

한국과 ASEAN 국가의 경제적 관계는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의존성, 평화로운 지역 환경으로 인해 강화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소프트 파워 외교의 수행에 성공한 주목 받는 국가가 되었다. 외교 분야에서, Kim(2013)은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다양한 개발과 문화 정책을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국제 회의를 개최하고, 집합적인 외교를 주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다수의 후원자를 소집할 목적을 갖는다고 서술한다. 이것은 중견국 역할을 수행할 채널을 제공한다. 다수의 근거에 따르면, 한국은 APT 지역주의를 이끌기에 적합한 역량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 3 절 APT 지역주의에서 한국이 수행해야 하는 중견국의 역할

중견국 이론, 한국의 중견국 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연구를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중견국 역할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외무부의 능력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연합 구축, 충돌 안정, 주도적인 역할, 의제 설정, 모범적인 국제 구성원이 되는 능력은 외무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캐나다는 분석 역량을 향상시키고 복잡해지는 세계 경제에서 국가의 경제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외교부와 통상부를 1982년에 합병하였다. 같은 이유로, 호주는 1987년에 외부무와 무역부를 통합하였다. Ravenhill(1998)은 각 외무 장관은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우선 외무부의 역량 개발 및 외교부와 통상부의 재합병을 통해 APT 지역주의에서 효과적인 중견국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캐나다처럼 국제 관계에 관한 보다 많은 경험을 얻고 한국과 그룹의 목표를 추구하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한국이 수행해야 하는 중견국의 다섯 가지 역할을 제안한다.

1. 유사입장국가의 탐색

권력과 영향력의 원천으로, 연합 형성은 중견국이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중견국 이론의 대부분은 중견국이 다른 국가들과 연합 및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견국은 연합 형성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국 중견국의 사례연구도 한국은 유사입장국가를 모으고 그들과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중견국의 선례인 호주와 캐나다는 연합을 형성하는 역량이 그들의 성공에 기여했음을 증명한다. 본 논문은 APT 지역주의를 통한 연합형성을 통해 한국이 중견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Choi(2009)에 따르면 한국의 연합 파트너는 지리적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사입장그룹을

추구하고 그들을 유인하려 한다. Kim(2013)도 한국은 유사한 안보적 문제를 공유하는 다른 중소국가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 결과, 한국의 관점에서 동일한 의견을 갖고 기꺼이 협력하고자 하는 그룹이나 국가는 ASEAN 이 될 수 있다. ASEAN 은 경제 개발 협력을 목표로 하고, 이 지역에서 평화를 원하는 국가의 그룹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ASEAN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안보 문제(북한의 위협, 중국과 일본의 관계, 중국과 미국의 경쟁)를 해결하기 위해 APT 지역주의에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Choi(2009)는 한국이 동아시아와의 배타적인 관계 형성을 피하고 동아시아 정상 회의의 회원국 확장에 열려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본 논문은 지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의는 회원국에 관련된 조건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지역주의는 아시아에 속하지 않고, 한국, 일본 등의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 지역주의에 APEC 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Trans-Pacific Partnership; TPP)와 같이 미국 또는 영미가 영향을 미치면, 지역기구의 목표는 단지 일부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 APT 지역주의는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의 편에 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PT 지역주의는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한국과 APT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등 지역 강대국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게다가, 지역주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체성이다. “The Awkwardness of Australian Engagement with Asia; The Dilemmas of Australian Idea of Regionalism”에서 He(2013)는 특히 Rudd 가 2008 년에 제안한 아시아태평양공동체(Asia Pacific Community; APC)와 같이 호주가 아시아 지역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서 직면하는 몇 가지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시아 지역에 적절히 연결되는 호주의 정체성이 없이, 아시아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아시아 지역주의에서 호주의 중요한 역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호주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적 및 지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호주는 문화적, 정신적으로 아시아가 아니다. ASEAN 국가들, 한국, 중국, 일본은 유사한 경험, 공통의 문화적 특성을 공유한다. 동아시아(APT) 자본주의는 법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Stubbs, 2002). 그 결과, 지역주의 형성에 있어 구성원의 선택은 목표와 정체성(특히 문화적 정체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2. 유사입장국가의 유인 및 결집

유사입장국가들을 확인한 후, 그 국가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브로커 역할의 상당 부분은 다른 국가들보다 다수의 행동주체를 모으는 역할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Kim, 2013).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의 지원을 통해 행동주체들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주는 모범 사례가 된다. 케언즈 그룹 설립 전, 호주는 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생필품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를 위한 계획 제안, 일부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등을 통해 특히 무역 문제에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저개발국을 지원해왔다.

또한, 국제 규범을 포괄하고 국제 규범에 근접한 외교 전략은 다른 국가를 유인할 수 있다. 중견국은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범적인 국제 회원국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Ravenhill(1998)에 따르면, 중견국 신뢰의 외부 차원은 중대한 행동주체를 위한 허수아비로 인식되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 또한, 중견국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호주는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서 국제 질서를 깊이 이해한다. 그 결과로 케언즈 그룹을 이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 간의 신뢰성을 생성하고 유사입장국가들을 유인하기 위해 한국이 모범적 국제 회원국 또는 좋은 국제 시민(Cooper el at., 1993)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한국은 다양한 개발 및 문화 정책의 실행을 지속해야 한다. Kim(2013)은 소프트 파워 외교 또는 매력외교의 수행을 통해 한국은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많은 국제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에는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를 공공 정책 도구로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로부터 지원을 얻는 것은 집합적인 외교 및 매력외교를 추구하는 한국의 노력을 보여준다.

한국은 집합적, 매력외교를 전개할 채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3. 그룹 의제 설정

유사입장그룹을 유인한 다음의 단계는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중견국은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견국은 강점을 갖는 분야나 틈새를 찾았을 때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견국은 일부 영역에서 역량이 부족하고 강대국만큼 힘이 강력하지는 않으나, 중견국은 이슈를 관리하고 추진할 충분한 역량을 갖는다. 이러한 역량은 충분히 넓은 외교 포스트 네트워크와 선택적인 "틈새 외교"를 포함한다. 따라서, 한국은 강점이 있는 틈새를 찾아야 한다.

호주의 사례 연구를 통해, 호주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들은 캄보디아 충돌, 남극 대륙 대회(the Antarctica Convention), APEC, 남태평양 비핵지대의 추진, 북한 핵의 위협, PIF 등의 지역 이슈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 확대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의 형태와 같은 경제 구조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등 호주의 고위 정치인들은 아시아-태평양 및 동아시아 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 결과, 한국은 지역주의 형성에서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동아시아 이슈에 중점을 둔 의제를 설정해야 하며, 한국의 고위 정치인들은 동아시아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경제 분야는 한국이 경제적 역량과 경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된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이다. 호주와 캐나다는 단지 새로운 의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다. 두 국가는 (특히 호주는) APEC, GATT와 케언즈 그룹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왔다. 호주는 세계 경제가 경쟁적인 지역 무역 블록으로 분화되고, 호주가 아시아, 유럽 및 북미 그룹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에 대해 염려한 반면, 캐나다는 NAFTA라는 북미 지역주의의 회원국 중 하나이다. 명백하게 동아시아 국가로 간주되는 한국은 이 지역의 경제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무역 자유화,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경제 협력 및 개발과 관련된 경제적 의제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제 개발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의제를 설정한 경험을 갖는다. 강희종(2013)에 한국의 개발 협력은 물질적 원조를 넘어 수원국의 문화, 환경, 국민적 수요 등에 적합한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은 한국에게 경제 개발 의제를 제시하는 한국에게 대한 바람직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인권, 민주주의, 환경 등의 윤리적인 이슈를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96년에 캐나다는 외교 정책에 사회적 우려를 재삽입하였다. 나아가, 캐나다는 르완다와 발칸의 집단 학살과 다른 대량

잔혹 행위의 지속적인 공포에 대응하였으며, 오존 수준 및 대기에 대한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 외에, 캐나다의 토론토 기반 Walter and Duncan Gordon Charitable Foundation, 몬트리올 기반의 CRB재단 등 비정부기구도 개발 및 국제 이해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1990년대에 한국은 캄보디아의 평화를 얻기 위한 중견국의 이니셔티브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고, 동티모르에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한국은 중견국 무역 자유화 노력에 자주 반대해 왔으나, 최근 들어 환경 보호에 관한 이니셔티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Robertson, 2007). 최근에 한국에서는 경제 강화와 환경 보호에 목적을 두고 개발 도상국의 녹색 기술을 지원하는 "녹색 성장"이 부상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과거보다 인간 안보 의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안보 측면에서 호주는 남극에서 광업과 석유 시추의 금지를 시작하고, ARF에서 새로운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고, UN의 평화와 안보적 역할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생성하고, 호주 그룹(Australia Group)과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을 수립하고, 핵무기 철폐에 관한 캔버라위원회(Canberra Commission on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를 후원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안보와 관련된 한국의 의제 설정은 제한적이다. Lee(2012)는 북한 위협 억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반도 외부의

평화 유지 노력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 또한, 특히 남북한간의 긴장이 심화될 때, 위협은 평화 유지에 대한 국민들의 지원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해외 평화 유지 활동은 한국군의 국내 상주가 필요한 한, 한국 중견국 외교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와 관련된 의제 설정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4. 지역 갈등 안정화

특히 지역의 강대국 사이에 지역 갈등이 일어날 때 중견국 역할은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지역주의에서 효과적인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갈등을 안정화해야 한다. 한국은 중일관계, 중미관계, 한미관계 등 세 가지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첫째, 한국, 일본, 중국, 세 국가 사이에서 중일 관계보다 한중과 한일 관계가 보다 원만하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과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19] 한국이 두 국가와 상당 부분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국은 영토와 역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을 지원하는 브로커가 될 수 있다. 또한, 3 국간 지역 내 무역의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0 년에,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일본과 한국은 중국의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간주되었다. 같은 해에, 일본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일본에서

[19] 중앙일보.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joongang.joins.com/index.html?cloc=home%7Cnavi_top%7Chome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였다.[20] 경제적 의존은 3 개국 사이의 관계 개선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3 국간 지역 내 무역의 비중을 유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2011 년, 한국은 서울에 3 국 협력 사무국을 설치하며 외교적 노력을 하였다. 이것은 지역과 APT 무대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좋은 징조이다. 더불어, Choi(2009)는 한국이 중국, 일본과 협력하기 위해 APT 와 같은 지역기구에 중국과 일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서술한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APT 지역주의를 지원하며, 동시에 APT 는 두 국가 사이의 문제를 완화한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지역 내 국가들의 우려를 낳는다. Lee 는(2012) 지역 균형이 한국의 국익에 이로우며,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한, 한국이 안보 영역에서 이들을 중재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결과, 한국은 두 나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해야 하는 동시에 한국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셋째, 한국이 APT 지역주의에 관한 외교 정책 수립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미국은 APT 회원국이 아니고 APT 지역주의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캐나다처럼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견국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

[20] Joint Study Report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meti.go.jp/press/2011/03/20120330027/20120330027-3.pdf

Choi(2009)는 한국이 반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두 국가는 북핵 6 자 회담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와 상세 설계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더불어, 민주국가의 안보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NATO 를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NATO 확대는 위태로운 한중안보관계 및 중미안보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에 적대적일 수 있는 안보 협력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지역주의 지속

본 논문은 APT 지역주의에서 중견국 역할의 마지막 단계를 "지역주의 지속"이라고 부른다. 유사입장국가를 탐색하고, 유사입장국가를 유인하고, 의제를 설정하고, 지역 갈등을 안정화한 후, 한국은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PT 가 영구적인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그룹의 프로필과 역량을 구축하는 시간과 자원은 모두 지역주의 형성과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 호주는 케언즈 그룹의 프로필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바치고, 또한 케언즈 그룹을 통합하고 회원국들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협업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룹 내에서 다른 회원국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책임을 지므로, 호주는 그룹의 지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APT 를 이끌기 위해 그룹의 중견국으로서 시간과 자원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지역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호주의 신뢰구축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신뢰구축 기술의 사용을 통해, 호주는 케언즈 그룹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공동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 신뢰구축은 국가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행동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모니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뢰 구축 방식은 다양하다. 케언즈 그룹의 경우에, 호주는 점진적인 헌신(걸림돌을 극복하고 주요 행동주체를 앞지르기 위한 단계별 접근), 투명성 방법의 기술 향상에 대한 헌신, 교착 상태에서 호주의 고위 무역 교섭인에 의한 왕복 외교와 브로커 행동의 광범위한 활용에 헌신 등 신뢰구축을 위한 세 가지 방식을 활용하였다(Higgott&Cooper, 1990). 한국은 이 지역의 주요 행동주체를 참여시키고 다른 회원국을 설득하기 위해 호주의 신뢰 구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APT 의 의제 및 장기 목표를 따르기 위해 한국에 공식적인 기관이 있어야 한다. 호주는 농업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호주에 농업경제국(Bureau of Agricultural Economics)을 설립하였다. 농업경제국의 역할은 케언즈 그룹의 의제와 관련된 정보 편찬, 분석, 홍보이다. 한국은 공식적인 기관 설립을 통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중견국 역할을 수행할 수있다.

넷째, 힘의 원천의 분포, 협력 국가들의 니즈와 수요, 시간적 긴급성, 정보의 흐름, 문화 등에 대한 한국의 이해 외에, 한국은 지역 이슈 및 지역 경제에 관한 시스템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호주는

전체적인 국제 무역 협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므로, 케언즈 그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끌 수 있다. 의제와 관련된 세계와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다른 국가 및 비정부 기구와의 정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 분야에 있어 호주가 성과를 거둔 이유 중 하나는 저개발국, 서부 동맹,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과의 전세계적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룹 외부의 정치적 관계는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 지역 의제 설정 및 지역 강대국과의 협업 필요성으로 인해, 한국은 APT 의 안팎으로 정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때때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와 관련된 의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비정부기구 사이 및 정부와 비정부 사이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지뢰에 대해 다루기 위해 비정부기구들, 국제 적십자 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비정부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공식적인 연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였다. 한국은 그룹의 의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대중의 지지에 의해 구성원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정부기구와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중견국 역할을 통해 APT 지역주의 추진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주의의 구축의 다섯 가지 요소(지역 내 사회적 통합의 확대, APT 국가들의 지역 의식과 정체성 고취, 국가 간 협력 지원, 지역 경제 통합 촉진, 지역 화합 도모 등 한국의 역할)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APT 국가들의 참여 유도, 경제 발전·윤리적 갈등·지역 이슈에 관련된 의제 설정, 지역 갈등 안정 등을 통해, 한국은 지역 내 사회적 통합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지역 협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 지역화를 위한 원동력인 지역 시장,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또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 외교는 사람들의 흐름을 증가시키고,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생각, 정치적 태도, 사고 방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여러 채널과 복잡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초국가적 지역 시민 사회를 생성할 수 있다.

둘째, APT 연합 형성 과정에서, 한국은 공통적인 문화, 역사, 종교적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내부 요인에 기반한 지역 의식(특정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APT 연합 형성은 경제적 의존성과 아시아 아이덴티티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셋째, APT 의 목표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고, 의제와 장기 목표를 따르기 위한 기관 설립을 통해 한국은 지역 내 국가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 활동에 중요한 정부간 협정 또는 제도에 관한 협상과 구축은 시간, 자원,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넷째, 한국은 GATT, APEC, G20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한국은 ASEAN 과의 FTA 를 체결하였으며, 중국 및 일본과의 FTA 를 확대하려 한다. 모범적인 국제 회원국과 “지역주의 지속”에 관한 역할은

무역 장벽의 제거 및 상품의 관세 동맹의 형성에 집중하는 한국에게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한국이 신뢰 구축, 그룹의 활동 지원, 신뢰성 형성을 통해 APT 경제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통합을 야기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은 신뢰 구축, 그룹 목표를 위한 기관 설립, 국가 간 또는 국가 및 비정부기구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 갈등 안정화 등을 통해 지역의 응집력을 가져올 수 있다.

제 6 장 결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 영토 분쟁,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역 강대국을 참여시키고 “동아시아” 목표를 대표하는 APT 의 메커니즘은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추진해 온 한국의 오랜 역사, 공통된 역사적 경험, 소프트 파워 외교의 실행 등 이러한 것은 모두 한국이 APT 지역주의에서 지도자로서 중견국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호주와 캐나다 등 앞선 중견국들의 성공을 고찰하고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이러한 역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룹의 목표를 추구하기 하는 주도적인 중견국의 실제 사례는 케언즈 그룹에서 호주의 역할 및 지뢰 금지 조약에서 캐나다의 역할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외교부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이 APT 지역주의 형성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 중견국 역할이 있다. 유사입장국가의 탐색, 유사입장국가의 유인 및 결집, 그룹 의제 설정, 지역 갈등 안정화, 지역주의 지속 등이다. 이러한 중견국 역할은 사회적 통합, 지역적 인식과 정체성, 지역 내 국가간의 협력, 지역적 경제 통합, 그리고 지역의 결합 등의 지역주의를 낳을 수 있다.

ASEAN 은 지역의 평화를 원하고 지역의 경제 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과 유사입장그룹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국 및 일본과 관련된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APT 지역주의에 중국과 일본을 참여시키고, 의제를 설정하고, 그룹의 목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APT 지역주의의 노력은 직접적인 안보 해결책이 아니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역 분쟁에 대한 평화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견국 역할은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국가는 오랜 시간 동안 그룹에 자신을 바쳐야 한다. 새로운 중견국인 한국은 앞선 중견국에게서 배워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중견국 역할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수행하기 위해 독특성과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외교부. (2013). 『2013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유현석. (2012). 『동아시아 지역주의: 평화,변영,인간안보의 지역적 모색』.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333 집.

Cooper, A. F., Higgott, R. A., & Nossal, K. R. (Eds.). (1993).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ol. 6). UBC Press.

De, M. J. & Panagariya, A. (1993).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P.

Ethier, W. (1998).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system. International Finance Section*, Department of Ec., Princeton University.

Holbraad, C. (1984).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Macmillan.

Nuangjamnong, N. (2007). *Korean Regionalism: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Pye, L. W. (1985). *Asian Power and Politics: The Cultural Dimension of Authority*, Havard University Press.

Renouf, A. (1979). *The frightened country* (p. 16). Melbourne: Macmillan.

학술지

강희종. (2013). 『개도국 사회수요 기반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 카메론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rase, D. (2010). Non-Traditional Security in China-ASEAN Coopera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and the Evolu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Asian Survey*, Vol.50, No.4, 808-833.

Arase, D. (2011). Korea, ASEAN, and East Asian Regionalism. *Joint U.S.-Korea Academic Studies*, Vol. 21: 33-53.

Chapnick, A. (1999). The Middle Power, *Canadian Foreign Policy*, Vol.7, No.2 (Winter 1999), 73-82.

Chapnick, A. (2000). The Canadian Middle Power Myth, *International Journal*, Vol.55, No.2, 201.

Chung, C. (2011). Japan's involvement in Asia-centered regional forums in the context of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sian Survey*, Vol.51, No.3, 407-428.

Chung, C. (2013). China and Japan in "ASEAN Plus" Multilateral Arrangements, *Asian Survey*, Vol.53, No.5, 801-824.

Cox, R. T. (1989). Middlepowermanship, Japan, and the future world order, *International Journal*, Vol.44, 827.

Friedrichs, J. (2012). East Asian Regional Security: What the ASEAN Family Can(Not) Do, *Asian Survey* , Vol.52, No.4, 754-776.

Funabashi, Y. (1993). The Asianization of Asia. *Foreign Affairs*, Vol.72, 75-85.

Hayes, G.(1993). Middle Powers in the New World Order*, Behind the Headlines*, Vol.51, No.2, 13.

He, B. (2013).The Awkwardness of Australian Engagement with Asia: The Dilemmas of Australian Idea of Regionalism, *Journal of Ritsumeika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Vol.5.

Henrikson, A. K. (1997). Middle Powers as Managers: International Mediation within across, and outside Institutions. *In Cooper ed*.

Higgott, R. A., & Cooper, A. F. (1990). Middle power leadership and coalition building: Australia, the Cairns Group, and the Uruguay Round of trade negot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9-632.

Holbraad, C. (1971). The role of middle powers. *Cooperation and Conflict*, Vol.6, No.1, 77-90.

Hund, M. (2003). ASEAN Plus Three: towards a new age of pan-East Asian regionalism? A skeptic's appraisal, *the Pacific Review*, Vol.16, No.3, 383-417.

Hurrell, A. (1995).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 Vol.21, 331-58.

Keohane, R. O. (1969). Lilliputians' Dilemmas: Small States in Internati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23, No.02, 291-310.

Lee, S. (2012). South Korea as New Middle Power Seeking Complex Diplomacy. *EAI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 연구보고서*, Vol.25, 1-36.

Medeiros, E & Fravel, M.(2003), China's New Diplomacy, *Foreign Affairs*, Vol 82, No.6, 22-35.

Neack, L. (1992). Empirical Observations on "Middle State" Behavior at the Start of a New International System, *Pacific Focus*, Vol.7, No.1, 5-21.

Potter, E. H. (1996). Niche diplomacy as Canadi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Vol.52, No.1, 25-38.

Ravenhill, J. (1998). Cycles of Middle power activism: Constraint and choice in Australian and Canadianforeign policie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52, No.3, 309-327.

Robertson, J. (2007).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Capacity, Behavior, and Now Opport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16, No.1, 151-174.

Soward, F. H.(1963). On Becoming and Being A Middle Power: The Canadian Experience.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32, No.2, 111-136.

Stubbs, R. (2002). ASEAN PLUS THREE Emering East Asian Regionalsim?, *Asian Survey*, Vol.42, No.3, 440-455.

Teo, E. (2001). The Emerging East Asian Regionalism. *Internationale Politik und Gesellschaft*, 49-53.

Tiberghien, Y. (2013). Global and Regional Institution-Building; The Importance of Middle Power Diplomacy in East Asia, The Role of Middle Power in 21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2013 KAIS-KF International Conference.*

Wood, B. (1987). Middle Power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A Preliminary Assessment of Potential, *Winder working papers*.

Wood, B. (1988). The middle powers and the general interest (No. 1). North South Inst.

Yunhua, C. (2013).What Kind of Policy towards Southeast Asia Does China Need for Its Peaceful Rise?, *Journal of Ritsumeika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vol.5.

학술대회

Burfisher, M. E., Robinson, S., & Thierfelder, K. (2003). *Regionalism: Old and new, theory and practice*.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to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Conference, June 2003, Capri, Italy. Economic Research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ashington, DC.

Choi, Y. (2009). *East Asian Regionalism and South Korea's Strategy: Lessons from the Experience of Middle Power Activis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PD (House), 24 March 1981, pp.829-30

Kim, S. (2013). *Roles of Middle Powers in East Asia: A Korean Perspective*, The Role of Middle Power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2013 KAIS-KF International Conference.

Lin, C. M., & Univesity, T. (2011, June). *The Role of Mid-power Countries in Asia-Pacific Regional Integration*. In 7th APEA Annual conference, Busan, Korea (p. 4).

Park, I. (2013). *Middle Power Diplomacy of the Next Korean Administration,* The Role of Middle Power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2013 KAIS-KF International Conference.

Yul, S. (2013). *The US-China Contest for Leadership in Desigining a Regional Architecture and the Role of Middle Powers*, The Role of Middle Power in 21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2013 KAIS-KF International Conference.

인터넷 자료

외교부. (2009). (2014 년 1 월 24 일 확인)
http://www.mofa.go.kr/trade/un/about/index.jsp?menu=m_30_60_10

중앙일보.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joongang.joins.com/index.html?cloc=home%7Cnavi_top%7Chom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ausaid.gov.au/Publications/Pages/summary-budget-2013-14.aspx#aidprogram

Baxter, L & Bishop, J. (1998). *Uncharted Ground: Canada, Middle Power Leadership, and Public Diplomacy*. Journa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2014 년 1 월 6 일 확인)
http://www.wws.princeton.edu/~jpia/5.html

Breckon, L. (2001). *China-Southeast Asia relations - gains for Beijing in an otherwise gloomy quarter.* Comparative Connections online, 3(4). (2014 년 1 월 6 일 확인) http://www.csis.org/pacfor/cc/0104Qchina_asean.html

Cairns Group.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cairnsgroup.org/Pages/min06_statement.aspx

Cairns Group. (2013 년 10 월 3 일 확인) http://cairnsgroup.org/Pages/min15_communique.aspx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4 년 1 월 6 일 확인)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s.html

Cheeppensook, K. (2008). *The European Union as a middle power and its role in world politics*.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ces.in.th/PDF/chiangmai_pub_kasira.pdf

Evans, G. (2011). *Middle Power Diplomacy*.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gevans.org/speeches/speech441.html

Joint Study Report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meti.go.jp/press/2011/03/20120330027/20120330027-3.pdf

Lim, J. (2012). *Reader response: Singapore's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aspistrategist.org.au/reader-response-singapores-relations-with-the-us-and-china/

Paterson, W. (2013). *Middle Power Diplomatic Strategy of Australia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s Middle Power*, Roundtable Discussions for Middle Power Diplomacy. No. 4.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eai.or.kr/data/bbs/eng_report/201310151120412.pdf

Reed, W. (2008). *ASIA: Middle power status for Australia: Mind over rhetoric*. 26 Apr. 2008. News Weekly.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newsweekly.com.au/article.php?id=3273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milexdata.sipri.org/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portal.sipri.org/publications/pages/expenditures/country-search

Takahashi, K. (2012). Asian Times.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atimes.com/atimes/Japan/NE26Dh01.html

Thayer, C. A. (2000). *'ASEAN Plus Three: an evolving East Asian community?'*, Comparative Connections online, 2(4).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csis.org.

Trading Economics.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dp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esa.un.org/unpd/wpp/Excel-Data/mortality.htm

World Bank.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

World Bank.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CD

World Bank.(2012).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databank.worldbank.org/data/download/GNI.pdf

World Trade Organization.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fact5_e.htm

Yi, C. (2007). Emergence of Regionalism: About State Preference Formation, POLIS Working Paper No. 23. (2013 년 10 월 1 일 확인)
http://www.polis.leeds.ac.uk/assets/files/research/working-papers/wp23yi.pdf

ABSTRACT

The Role of Korea as a Middle Power in Asian Regionalism: Focusing on ASEAN+3

Jiratatip Phumitharanon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plain the middle power role that South Korea should take in building Asian Regionalism. Korea has recently realized the significance of having a "Middle Power" role in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how and where the country should apply its middle power role is still controversial. Diversely from superpower countries, middle powe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lack the capacity to pursue their goals alone. Therefore, they have to take lead and achieve goal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 multilateral institutions.

As a new coming middle power country, South Korea should learn the lesson from previous successful middle powers' cases, for instance Australia and Canada. At the same time, due to the unique

political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play a middle power role based on its own situation. Korean regional security problems such as the North Korean threat and territorial disputes, demonstrate that Korea needs a regional partner and institution to solve its security problems. Therefore, Korea should promote the process of Asian regionalism and regional coalition building in order to push forward its agenda through a regional institution and finally pursue its goals.

In the research, ASEAN+3 is regarded as a regional institution where Korea plays a middle power role to achieve its goals. Moreover, results of the research have suggested the five roles of middle power that Korea should play in ASEAN+3 regionalism. These roles involve seeking like-minded countries, collecting and attracting the like-minded countries, setting the group agenda, stabilizing the regional conflicts, and lasting regionalism.

Keywords: Middle Power Role, Asian Regionalism, Regional Security Problems, Coalition Building, ASEAN+3 Regionalism, Like-Minded countries.

Student Number: 2011-24216